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오해섭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연구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청소년 국제교류의 논리적 토대 구축에서부터 법적·제도적 접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실태와 장애요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근거로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활성화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관련문헌 고찰을 통하여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으며, 한·중·일 각 나라의 청소년교류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별 전문가들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바람직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제1차 조사는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청소년교류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교류협회 5명,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5명, 문화관광부 및 통일부의 국제교류 담당자 5명, 중앙청소년 수련원 및 관련 청소년 단체 근무자 5명(총) 20명을 선정하여 전자우편으로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1명이 제1차 조사에 응답하였다.

제2차 조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에 관한 제1차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문항별 중요도와 추진전략을 단기적 차원과 중장기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1차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11명의 분야별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004년 8월 16일에서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요 약

이 연구는 동북아 3국인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이론적 토대 구축 및 법·제도 분석,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실태와 장애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 내용을 근거로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청소년교류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연구이다.

동북아 지역의 역사·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의식을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 청소년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국제적 유형 및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주도형 복지 및 투자모델을 선호하는 유럽형 모델과 비영리단체 주도형의 북미형 모델,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인 아세안 국가들의 청소년교류 형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관련 법·제도 연구이다.

한·중·일 3국의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법·제도를 포함하여 지방자치제의 조례 및 교류협정서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각국의 청소년교류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이다.

한·중·일 3국의 정부주도의 청소년교류,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소년교류, 그리고 청소년단체와 영리단체의 청소년교류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교류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넷째,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 제시이다.

동북아 지역의 바람직한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 방안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5
II.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의 이론적 기초	7
1. 글로벌 시대 동북아지역발전과 청소년교류의 필요성	9
2.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문화의 전형과 특성	20
3.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국제적 비교 및 유형화	41
III.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분석: 한국	63
1. 청소년 교류 법·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65
2. 청소년교류 법·제도의 역사	67
3. 청소년교류의 법적·제도적 정의	68
4. 청소년교류의 관련 법·제도	70
5. 청소년국제교류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	84
6. 청소년교류의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IV.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분석: 중국	91
1. 중국의 국제교류의 의의	93
2. 중국 청소년국제교류의 효과	95
3. 대표적인 중국 청소년국제교류 단체	100
4. 중국 청년국제교류의 추진 방향	106
5. 청년국제교류에서 중국정부의 기능과 역할	110

V.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분석: 일본	113
1.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일본의 인식	115
2. 일본 청소년국제교류의 역사, 실태 및 추진체계	117
3. 일본의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법규	126
VI.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	141
1. 동북아 3국 간 청소년교류 현황	143
2. 정부 간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	147
3.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	153
4. 청소년단체 간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	160
VII.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협력 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분석	167
1. 제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69
2. 제 2차 문항별 중요도조사 결과	177
VIII.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활성화 방안	195
1.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방안	197
2. 동북아 청소년교류 비전 및 전략	201
IX. 요약 및 제언	209
1. 요약	211
2. 제언	217
참고문헌	219
최근 발간자료 안내	225

표 목 차

<표 II-1> 문자세대와 영상세대의 가치관 비교	30
<표 V-1> 일본 정부의 청소년 국제 교류의 역사	118
<표 V-2>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개요(2002년)	120
<표 V-3> 2002년도 내각부(청소년 건전육성) 예산편성 및 사업	121
<표 V-4> 문부과학성 청소년국제교류사업	122
<표 V-5> 외무성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123
<표 V-6> 농림수산성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123
<표 V-7> 재류자격 분류표	130
<표 VI-1> 1999-2000년 연령별 중국인, 일본인 입국자 현황 ·	144
<표 VI-2> 1999년-2000년 연령별 중국, 일본 국민 출국자 현황	145
<표 VI-3> 주요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146
<표 VI-4> 지역별 한국인 유학생 수	147
<표 VI-5> 일본, 중국 국가 간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현황	149
<표 VI-6> 연도별 사업별 청소년육성예산(국고)	150
<표 VI-7>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류 현황	154
<표 VI-8> 일본, 중국 자매결연 현황	155
<표 VI-9> 1999년도 청소년국제교류 통계	161
<표 VI-10> 2001년도 청소년국제교류 통계	162
<표 VI-11> 민간단체 주관 교류 현황	162
<표 VI-12> 일본, 중국 청소년국제교류 인원 현황	163
<표 VII-1>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역할과 기능	170
<표 VII-2>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활동의 방향 및 접근방식 ·	171

<표 VII-3>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에서 중점 두어야 할 영역들 및 그 이유	172
<표 VII-4> 동북아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적 정비방안	173
<표 VII-5>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앙정부)	174
<표 VII-6>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 (지방자치단체)	175
<표 VII-7>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 (민간단체)	175
<표 VII-8> 향후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발전방안 및 수행을 위한 정책과제	176
<표 VII-9>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	178
<표 VII-10>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에 관한 장기적 차원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	179
<표 VII-11> 3국 간 청소년교류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및 접근방식에 관한 단기적 추진과제	180
<표 VII-12> 3국 간 청소년교류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및 접근방식에 관한 장기적 추진과제	181
<표 VII-13>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중 단기적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과 그 이유에 관한 의견	183
<표 VII-14>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중 장기적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과 그 이유에 관한 의견	184
<표 VII-15> 동북아 청소년교류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정비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개선 방안	185

<표 VII-16> 동북아 청소년교류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정비에 관한 장기적 차원의 개선 방안	187
<표 VII-17> 청소년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단기적 차원의 해결과제(중앙)	188
<표 VII-18> 청소년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기적 차원의 해결과제(중앙)	189
<표 VII-19> 청소년 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단기적 차원의 해결과제(지자체)	190
<표 VII-20> 청소년 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기적 차원의 해결과제(지자체)	191
<표 VII-21> 청소년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단기적 차원 해결과제(민간)	192
<표 VII-22> 청소년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기적 차원 해결과제(민간)	192
<표 VII-23>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동의 단기적 차원의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193
<표 VII-24>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장기적 차원의 발전방안 정책과제	194

그림 목차

<그림 II-1>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추진체계	18
<그림 II-2>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한·중·일	27
<그림 II-3> 세대경험과 신세대의 특성: 이론적 틀	31
<그림 II-4> 한·중·일 3국의 21C 문화적 접근구도	34
<그림 II-5> 청소년교류 협력의 방향, 방안 및 범위	36
<그림 VIII-1> 동북아 청소년교류 추진전략	208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교류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인간관계 조절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관용성 등 사회 공동체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품성을 기르는 중요한 활동의 장이다. 국내적으로는 국민화합과 민족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공존을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의 중요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간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교류 활동은 21세기에 들어 국가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청소년교류 활동은 삶의 질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인적자원의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결속력을 높여 우리가 21세기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시대의 주역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은 외국문화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 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문화감수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또한 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인 시각에서 환경, 인구, 기아, 전쟁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외국어 사용기회 및 국가 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 형성과정에서 인간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적 상호교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문화적 리더십개발, 정치·경제·기술·생태·문화 등과 같은 공통적이고 보편화된 분야로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평화와 안전, 개발 및 보전, 인권문제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적인 문제에 관련된 사항에서부터 ① 문화와 사회체제 간의 상호 이질성과 동질성 및 상호영향, ② 각 나라 및 지역 문화의 본질과 가치의 변화과정 및 오늘날에 미치는 영향, ③ 세계적인 질서에 작용하는 이슈와 관련된 사항들이 계획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앞서 강조된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청소년교류의 시대사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3국인 한·중·일 청소년국제교류의 이론적 토대구축 및 관련 법·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국간의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활성화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가. 동북아 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의 이론 탐구

동북아 지역의 역사·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의식을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 청소년문화의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권역별 유형을 비교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주도형 복지 및 투자모델을 선호하는 유럽형 모델과 비영리단체 주도형의 북미형 모델,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인 아세안 국가들의 청소년교류 형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나.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및 문제점 분석

한·중·일 3국의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법·제도를 포함하여 지방자치제의 조례 및 교류협정서 등을 고찰하고, 각 국의 청소년교류의 법·제도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

한·중·일 3국의 정부주도의 청소년교류,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소년교류, 그리고 청소년단체와 영리단체의 청소년교류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교류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라.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 제시

동북아 지역의 바람직한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방안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청소년국제교류 및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관련된 연구논문과 기초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이다.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기구, 법, 정책, 조직 및 국제교류실태, 국제교류사업 사례에 대한 국내·외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정부보고서나 관련부처 내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한·중·일 각 나라의 청소년교류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별 전문가들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다.

둘째,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

제교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 담당공무원들과 국제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와 영리단체 국제교류 담당자들 그리고 청소년관련 대학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기초 의견조사 및 문항별 중요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문가 자문 및 면접이다. 청소년국제교류의 방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국제교류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관련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넷째, 국제교류활동 참가자에 대한 인터뷰이다. 정부 혹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에 참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장단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II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의 이론적 기초

1. 글로벌 시대 동북아지역발전과 청소년교류의 필요성

가.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중요성

인류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교류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가에 관한 사적인 자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인류역사의 근원은 개인이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비롯되고, 한 집단은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하고 다른 집단과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부족국가와 고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국가 간 교류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인류문명 발전의 지역적 차이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문예부흥 이후 유럽대륙이 다른 대륙보다 빠르게 발전한 이유는 유럽대륙 국가들 간의 문화와 발명품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의 교류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구한말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일본은 정확하게 감지하여 서구 열강과의 교류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에 비해 그렇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아픔들은 세계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청소년국제교류 전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청소년국제교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언급한 자료들 또한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청소년국제교류의 형태가 해외여행 경험이든 청소년 단체를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든 청소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변화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체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며, 지구 공동체의 인류애와 함께 개인의 발전적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의 하나로 청소년국제교류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유화진(1996)은 해외여행의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해외

여행 무경험자보다 유경험자들에게서 자기개발, 대인관계, 애국심, 진로결정 등의 교육적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해외여행 경험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여행의 유의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방문국에 대한 태도 및 지각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여행이 마음을 넓게 한다’는 가설의 일부를 증명하였다. 연구 결과는 조사된 청소년들의 방문국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특히 인식의 변화는 방문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 방문한 다른 나라에까지 반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의 관점과 문화의식을 가지고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교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책임질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는 다른 어떤 분야의 국제교류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단순한 청소년육성 활동의 의미를 넘어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나.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목적

오늘날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의 근본 목적은 대상 국가에 대한 사전 정보검색을 토대로 직접적인 현장체험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경험한 내용을 이전에 습득한 지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의 틀 속에 개념화시키게 하는데 있다. 특히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학습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효과적인 측면을 지닌다.¹

- 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활동경험을 갖게 한다.

¹ 김은정, 「청소년의 국제교류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②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상대방에게 설명함으로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 ③ 공통된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 ④ 실생활에 유익한 학습경험이나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경험학습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좌표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 ⑤ 학습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청소년국제교류프로그램이 추구해야할 몇 가지 측면의 전제가 수반되어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외국문화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 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이를 통하여 외국문화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문화감수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고, 나아가 세계적인 시각에서 환경, 인구, 기아, 전쟁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는 외국어 사용기회 및 국가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둘째, 오늘날 다변화되고 전문화된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상은 개인적인 전문성과 조직경영 능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행동은 점차적으로 우리 인류 전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예방적 노력과 이미 발생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체험학습을 통하여 사회적인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접근의 일환으로서, 단 기간에 수행되는 현장견학에서부터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사회 및 문화연구, 그리고 일정기간의 홈스테이 등을 통한 인턴경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구성원들을 배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인적자원개발 프

로그래의 일환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보면, 직접적인 상호방문을 포함하여, 국가간 문서교환, 전화, TV, 영화 및 음악교류, 인터넷 이용 등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서신교환 및 직접적인 대화방 등의 확산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제교류활동의 공간적인 제약을 상당부분 해소해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공통의 언어사용 문제가 여전히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범위를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 한정시켰을 경우, 일차적으로는 영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차원에서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다원적인 시대에 직면해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로서 과거보다 현실세계를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향이 어느 때 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교류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각 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 등은 오늘날 그 민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유사한 정황에 대한 과거의 기록과 정보들은 결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에 적용시켜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시켜보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개인적인 사고체계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야 하며, 그 속에서 자신들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² 전성민, “한국 청소년문화와 문화간 소통,” 미지센터 개관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 (서울: 미지(mizy)센터, 2002)

총체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체험학습에 기초한 다방면의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성이 다소 미흡한 상태이므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타인의 결함과 잘못을 이해할 수 있는 아량을 겸비해야 한다.

둘째, 전 지구적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출발하여 정의, 인권, 평화, 환경 등에 대한 폭넓은 개념들을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구의 현 상태와 발전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성에 걸 맞는 적용가능성과 자신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구환경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셋째, 참여의식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개인 또는 집단적인 선택과 행동이 전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좁게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지역사회로부터 넓게는 세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의사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면적인 실천 전략이 마련하는 중추세력이 되어야 한다.

넷째, 과정 지향적인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학습과정과 개인의 발전은 최후의 도달점이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적 과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세계를 향한 경험적 사고형성과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는 단순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과감한 도전의식과 모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의 실현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10가지 학습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³ 권일남, “농어촌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 (서울: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2003)

① 자기 발견의 최우선

학습은 감정과 도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필수적인 지원이 결합될 때 가장 잘 일어난다. 사람들은 모험과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열정, 책임, 가치, 능력 등을 발견하게 된다.

② 새로운 아이디어의 획득

교류 활동이란 자신이 경험하고자 하는 세계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과 실험할 시간,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등을 느끼면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착상을 제공해 준다.

③ 학습을 위한 책임감

학습은 발견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개인적 과정이다. 모든 사람은 개인으로 있을 때나 집단으로 있을 때나 학습을 하게 되는데 교류 활동에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 분야에 속해 있고 학습을 받아들이면서 책임감이 증대된다.

④ 감정이입과 돌봄(care)의 성취

학습은 청소년과 지도자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어야 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교류 활동에서의 학습 집단은 소규모이지만 미지의 나라에서 서로 간에 돌보는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정이입상태가 형성된다.

⑤ 성패의 결정에 대처능력

사람은 어려운 도전에 처했을 때 자신감을 가지면 성공하게 된다. 그렇지만 때로는 실패의 교훈이 성공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언제 어려움이 닥쳐왔고 그 과정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려를 함으로써 대처능력 기회를 얻게 된다.

⑥ 협력과 경쟁의 기회제공

개인발달과 집단운영은 통합적이어야 한다. 집단활동을 통하여 우정의 가치와 신뢰성 증진, 그리고 집단행동에 필요한 행동을 체험한다. 회원들은 서로가 상반되지 않을 때 능력이 증대되며 상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⑦ 다양성과 포괄성

다양성과 포괄성은 아이디어를 부유하게 하고 권력을 창출하며 문제해결능력과 타인에 대한 존경 등을 심화시킨다. 교류 활동에서 회원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조사하고 역사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그들의 지역사회와 문화 등도 수용하게 된다.

⑧ 자연세계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주고받는 관계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 넣으며, 자연에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⑨ 외로움과 반성적 사고

자신이 상상해오던 곳에서 혼자서만의 탐색기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되며, 다른 회원이나 성인과의 반성적 교류시간을 가질 수 있다.

⑩ 봉사와 동정심

인간은 봉사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지속적인 봉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제교류의 목적은 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의 종사하는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교류 사업의 목적을 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즉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아이디어의 수용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다.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추진체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이 기본적으로 경험학습 모델(Experiential Learning Model)을 적용하여 그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교류 활동이 주로 단순히 그 나라의 문화 및 유적지 관광이나 행사참여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진정한 학습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지적과 반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중고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학습현장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학습모델이다. 경험학습 모델의 특징은 학습내용 보다 학습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필요로 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들이 다변화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험학습의 기본 틀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경험학습 혹은 체험학습은 학습자들의 경험을 학습과정(curriculum)에 통합시키고, 또한 그들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학습과정에 적용하려는 시도 아래 이루어지는 실천위주의 교육이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신체적, 감성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표출할 수 있는 감각을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역동적인 학습행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험학습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리적 혹은 심리적인 에너지를 자신이 의도하

⁴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2003)

는 학습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귀중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비록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의 공식적인 교사 및 지도자들 대부분이 나이든 성인들일지라도, 청소년들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과정을 공유(share)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협동학습과정을 통하여 서로가 실질적인 경험과정에서 배우려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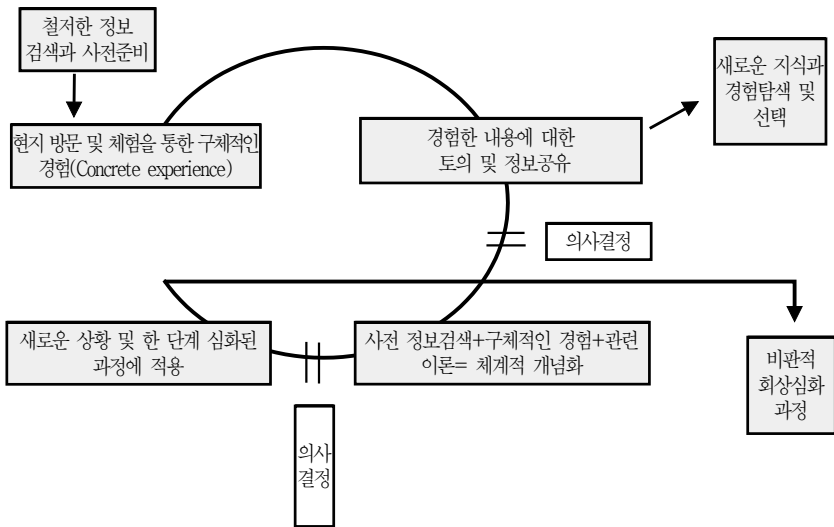
경험학습모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학습방식을 연구했던 Kolb(1984)는 인간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할 때, 아마도 그의 학습행위는 매번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새로운 학습상황을 접하게 되면, 그 동안 자신이 본능적 혹은 의식적으로 발전시켜온 반복적인 행동유형(a pattern of behavior)을 학습과정에 적용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일종의 학습방식(learning style)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개인의 현재 혹은 미래의 학습방식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그 사람의 심리적 성향, 학문적 훈련과정, 경력, 현재의 직업, 그리고 현재의 업무 등에 따라 독특한 유형으로 표출될 수 있다. 학습방식을 고정된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심리적 혹은 기능적 상태를 반영하는 유동적이며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방식을 약간씩 다르게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학습자에 따라서는 일관성 있는 학습방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학습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Kolb(1984)는 학습활동을 인지(perception)과정과 처리과정(processing)의 두 가지 구분된 활동으로 규정하였으며, 각각의 학습활동들은 상반된 개념(concept)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습활동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인 경험들, 즉 느낌(feeling), 촉감(touching), 시각(seeing),

그리고 청각(hearing)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가장 잘 인지하는가 하면, 다른 집단은 추상적 학습활동인 정신적 혹은 시각적 개념화(mental or visual conceptualization)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가장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1>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추진체계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일단 인지된 정보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인 실험을 통해 최적화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반성적인 관찰(reflective observation)에 의해 인지된 정보를 가장 적합하게 처리한다.

경험학습 모델에 근거하여 재구성한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추진체계는 <그림 II-1>에서 도식화된 바와 같다. 가장 먼저 현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정보 검색에서부터 출발하여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교류 활동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선택된 경험들이 반성적 사고(reflection) 및 경험한 내용에 대한 공유(share)과정,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분석

(Critical analysis), 종합적 사고(Synthesis),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Active experiment)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습효과 및 의의를 갖게 된다.

학습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때 순간 순간마다 청소년 자신의 적극적인 판단력과 의사결정이 개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델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소년 자신에게 주어지도록 유도하는 참여적이며 과정 중심적인 학습구조이다.

체험학습 위주의 국제교류 활동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의문을 제기, 조사, 실험, 호기심 발휘, 문제해결, 책임감 감수, 창의성 발휘, 의미부여 등에 전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인 모든 측면을 서로 균형 있게 활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같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학습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갖게 되며, 새롭고 유용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각 기관별로 연수목적, 연수방법과 내용 면에 있어 특색 있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교류분야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내실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이 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자 하는 측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평가의 기준은 관련기관의 해외연수 목표에 명시된 내용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연수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의 전 과정 그리고 연수 후 평가를 위한 간담회 개최에서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경비와 시간을 소요되는 청소년국제교류가 단순히 기분전환이나 관광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관 기관에서는 인솔자들을 포함하여 국제교류에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방문지역에 대한 기후조건 및 문화 등에 대한 철저한 정보 분석과 사전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교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위협요소를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국제교류 과정이 최소한 계획 → 실행 → 평가 → 시정 및 예방조치의 단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실행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문화의 전형과 특성

가. 동북아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중국·일본은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유래된 동일한 문화의 기원을 갖고 오랫동안 긴밀한 역사적 관련성을 맺어왔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삼국은 고대로부터 상호이동과 교류를 지속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당시 선진문명인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삼국은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

삼국은 의·식·주생활도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과거부터 공통적으로 유교적 질서관과 윤리체계를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유교식 전통은 가부장의 지위, 부모와 자식 간의 특별한 윤리적 관계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족중심주의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 가(家)를 중시하거나 심지어 집을 사회 조직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언어 사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밖에도 유교, 불교 등을 부를 때 유가, 불가 등으로 칭하는 것과 춘추 전국시대의 수많은 사상이 집단을 부를 때 제자백가(諸子百家)라고 ‘가(家)’를 쓴 것도 그 사상 공동체를 집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자 문화권인 동북아시아에서는 집단이란 집단은 모두 집의 개념으로 취급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들 세 나라는 동일한 유교문화권 속에 있으면서도 유교를 대하는 인식

이 각기 달랐으며, 한국은 효(孝), 중국은 신의(信義), 일본은 충(忠)을 강조하는 등 유교에서 저마다 강조한 덕목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갖고 있는 삼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청소년 의식구조의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체계는 조선조 사회의 지배적 가치였던 유교적 사상에 그 근거를 둔다. 유교적 사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서양에서 자연의 정복과 개척을 중시 여기는 것과는 달리 자연에 대한 순응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적 자연관, 서구의 근대적 인본주의가 강조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해방의 가치와는 구별되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기초로 한 전통적 인본주의, 즉 동양적 인간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교적 전통가치의 또 다른 특성은 철저한 상하 위계적인 서열관계를 중시여기는 권위주의적 가치지향이다.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등 모든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직업 및 신분집단의 관계가 엄격한 위계로서 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하 서열의식과 권위주의적 가치지향은 근대화를 경험한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도 뿌리깊이 잠재해 있는 전통가치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본격적인 사회구조적 변동은 1960~1970년대에 급속도로 진행되어 이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농촌사회로부터 도시화 및 공업사회로의 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또한 197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사회문화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겪어 왔는데 그 주된 유형으로, 산업화된 사회, 도시화된 사회, 중산층의 사회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는 한층 고도화되어 오늘날에는 이미 정보산업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고,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는 오늘날에 이르러 전국인구의 3분의 1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의 기형화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 이후 절대 빈곤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중산층 인구비율이 증가하여 중산층 중심의 사회로 진입하였으나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기 시작, 부의 편중화와 경제력 집중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화시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지만, 증대된 부가 일부계층에 편중되어 오히려 상대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고, 이는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하고 단결을 저해하고 계층 간, 지역 간 집단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남게 되었다. 절대적인 사회경제적인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근대화 과정은 사회적 분배의 공평성이나 사회정의의 정착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지금과 같은 사회구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고등학교 진학률 95%, 대학 진학률 30%를 넘어서 인구비율로 볼 때, 한국의 대학생 비율은 세계에서 2, 3위를 차지할 정도의 고학력사회가 되었다. 이처럼 급격함으로 묘사되는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은 그만큼 우리 삶의 힘겨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산업화, 근대화 과정은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혼란스러워 하며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기도 한다. 인본주의, 집단주의에 바탕을 둔 전통가치는 산업화, 도시화의 구조적 변동에 따라 공동체적, 친족적 결속이 와해됨으로써 개인 중심적 가치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전통적인 사회적 연대의 해체로 탈 집단화된 개인은 원초적인 연고적 관계에 안주함으로써 혈연과 학연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적 연줄망을 형성,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인한 가치관의 문제에 가장 직면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청소년이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경제적 빈곤, 후진사회로서의 절망감이나 열등의식으로부터 벗어나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생산주의 시대에 살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소비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더욱 더 물질주의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며, 전통가치를 부정하고,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등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 만연한 지식위주의 교육, 학력위주의 교육병리현상과 그에 편승한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은 청소년을 과열된 학습경쟁 속으로 몰아넣어 갈등상황에 제공하며, 그들에게 심한 가치관의 혼란과 부적응 행동을 초래하고 있다.

(2) 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중국의 문화는 서방문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근원성을 갖고 있다. 가치의식, 사회조직 등 여러 방면에 있어 서방문화와 명백한 차이를 드러내는 중국문화는 객관적인 이해와 해석을 주체로 논리적 자아의 형성을 중시여기는 서방문화와는 달리, 인성(人性)을 주체로 한 도덕적인 자아의 형성을 중시 여겼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는 덕치(德治)를, 사회적으로는 덕행(德行)을 경제적으로는 의리(義理)를, 개인적으로는 충효(忠孝)를 실천함이 중국사회의 가치체계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덕덕가치가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계층구조를 조직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조직의 관점에서 중국은 기독교문화의 영향으로 교회의 비중이 큰 서방과는 달리 가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의 전통사회구조 중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형태가 바로 중국 고유의 가족제도이다. 미국 M. J. Levy같은 학자는 중국의 모든 중요한 경제 및 기타 사회적인 관계는 정부와 가정 간의 관계라 할 정도로 가정은 사회의 핵심으로서 중국 전체 사회가치체계를 응결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가정은 혈연중심으로써 부계가 주축이 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절대복종관계가 주를 이루며, 이러한 상하관계는 유교의 ‘효’와 ‘삼강오륜’ 등을 강조하는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혈연중심의 가정의 기동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억제하고 혈연의 범위를 초월하는 중국사회의 계층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전통중심의 중국사회는 1978년 이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주축으로 한 개혁·개방정책 실시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이란 기존의 경제, 사회체제 및 제도를 변혁시킴은 물론, 사회구성원의 사고, 사상 및 행동양식까지 광범위하게 변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최대목표인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념, 제도, 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던 것이다.

등소평 시대 18년 간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의 경제력은 고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12억 중국인구의 약 80%가 사는 농촌의 개인소득이 월등히 증가되고, 삶의 양적·질적 향상은 물론, 중산층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왜곡된 서구의 자본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관료의 부패, 서구의 저질·퇴폐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전통을 존중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왔던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급속한 변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종래의 가치관에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분야 뿐만 아니라 청소년분야도 교류가 공식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양국정부 간 상호 합의 각서를 근간으로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모두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3) 일본의 사회문화적 배경

일본은 사회제도나 가치체계 면에서 한국, 중국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고 있으며, 삼국의 보편적 가치관인 유교도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과는 다르게 발전되었다. 즉 유교 자체의 순수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차별화하였다. 일본 사회는 유교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사무라이 윤리도로서 군주에의 절대충성과 부모에의 효도를 부시도의 두 가지 핵심강령으로 보았다. 한국과 중국의 유교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한다면 일본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부모나 가족에 대한 충성심보다 우위에 두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가족개념 및 가족제도에서 명백해진다.

일본도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가계(家系)의 영속성에 비중을 두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가족은 혈연원리가 중요하지 않은 만큼 가장에 대해서도 가장권은 인정하나 부권(父權)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자가 항상 가족의 계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장자상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혈연관계가 없는 양자도

가족을 계승할 수 있다. 또한 딸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도 그 능력에 따라 가족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여자도 가계를 이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자들도 후계자가 될 때까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성취지위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일본의 근대화가 앞당겨 졌다는 추측도 가능하다.⁵

현대 일본을 특정 짓는 독특한 형태의 능력과 경쟁은 분명 이러한 복잡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하는 이 같은 일본가족의 계약적 성격 때문에 그곳의 윤리도 효보다는 충이 강조되었으며, 타인들과의 관계 형성시 혈연 및 지연에 매우 집착하는 한국, 중국인과는 달리 동질성을 중시하고 있다.

지금의 일본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제 2차 세계대전직후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던 일본이 역경을 딛고 패전 50년이 지난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제반 사회여건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으며, 특히 일본사회 내부의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일본사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신장, 핵가족화 현상, 독신자의 증가로 대표되는 가족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목표도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재지향주의로 전화되었다. 특히 전후의 부흥기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거치며 물질적 풍요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란 젊은 세대는 현재의 자기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감성에 충실하게 매일 매일을 살고 싶어하는 현재 중심의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⁵ 정희옥·전경숙·권오실,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나. 동북아지역 청소년문화의 공통점 및 가치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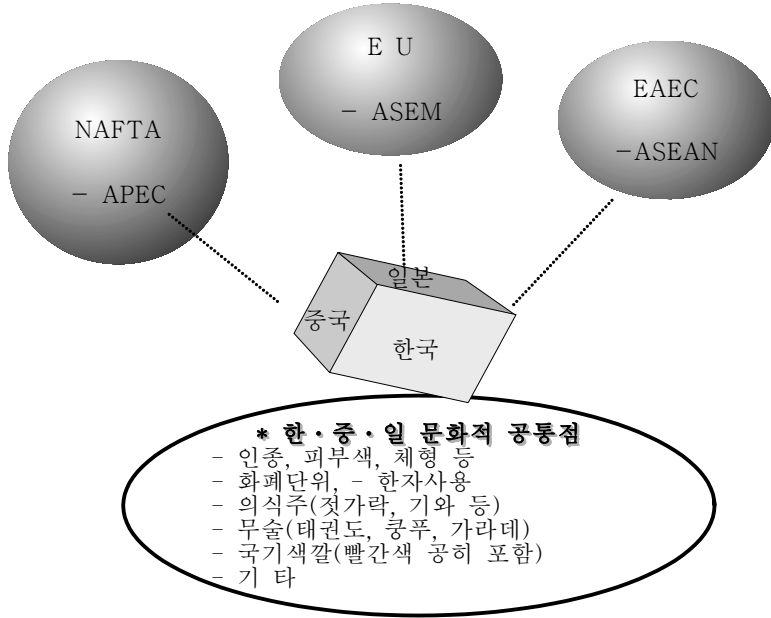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의 상호접촉과 교류과정을 통하여 문화적인 동질성과 각자의 독자성을 구축해왔다. 그 중에서도 세 나라의 국민적인 의식형성의 기저에는 유교주의에 이념과 논리가 공통적으로 작용해왔다.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는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여 다방면에 걸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가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언급한 언어와 문자이외에도 철기, 건축, 양잠, 도자기, 복식, 식생활 등의 생활문화, 불교·유교·도교 등의 각종 종교 및 정신문화, 문학의 장르, 각종 설화의 수용과 변용 등을 포함하여 주민 생활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문화의 교류가 있어왔다.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전역에서 빈번한 전쟁의 역사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대거 이동에 따른 상호간의 문화혼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성장과 발전 및 변모를 거듭해온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들 속에서 청소년에 해당되는 문화를 구분하여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접근이다. 우리사회를 비롯하여 동양적인 유교주의 가치관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가부장적이고 혼육적이며 국가중심 및 경제효율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용어에는 심지어 주변인, 질풍노도와 같은 불안한 상태, 잠재적 문제 발생자, 이탈자 등의 인식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그림 II-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중·일 3국간의 피부색과 체형을 비롯하여 의식주 및 한자의 사용 등과 같은 신체적 혹은 문화적 공통점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의 경우는 서구적 사고방식의 영향으로 자신의 권리주장이 확실하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부족하고 현실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⁶

<그림 II-2>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한·중·일



먼저 한국청소년의 경우 응답자의 87.2%(중국-35.2%, 일본-82.7%)가 자신이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응답해 삼국 중 스스로 번 돈에 대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던 반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개인주의 성향이 다른 두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약하고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청소년이 87.6%이고 일본청소년이 84.2%인 반면, 한국청소년의 경우 61.8%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특히, 중국청소년들의 경우 아직까지 부모에 대한 효사상과 공동체의식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국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장래에 대한 준비를 확고히 하는 미래지

⁶ 위의 책

향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종원(2003)이 연구한 “한·중·일·미 4개국 고교생 생화·의식 국제비교 조사”결과에서도 한국·일본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맞추어 자신의 장래를 결정하려 한다면, 중국 청소년들은 실제보다 낙관적이며 실제보다 장래에 대하여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풍요와 더불어 조직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려는 한국·일본의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현실은 다소 낙후된 상태이지만 중국청소년들은 보다 나은 장래를 위한 강한 성취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에서도 한·일 양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 혹은 다른 학생들과의 상대적인 순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양국 청소년들의 학교성적에 대한 응답결과는 중간층이 비대하고 상/하위권이 균등한 정상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상위권/중위권에 속한다고 응답하여 하위권이 매우 드문 비현실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국청소년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에 비해 공부양이 많은 측면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관한 조사항목에서 “친구·이성과의 접촉 빈도”는 한국·일본에 비해 중국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교 밖에서 친구와 자주 만나는 청소년은 한국이 가장 많았고(한 49.6%, 일 30.1%, 중 5.2%), 전화·이메일로 친구와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은 일본이 가장 많았다(일 81.5%, 한 68%, 중27.9%). 가족과의 대화 빈도는 일본청소년(88.8%)이 한국(67.3%)과 중국(52.6%)보다 빈번한 편이었다. 매체관련 활동에 있어서는 인쇄매체에 대한 한국청소년들의 기피 현상은 특이하다. 즉, 독서를 자주하는 하는 청소년은 중국이 과반수(54.1%)를 상회한 반면, 한국(34.4%)과 일본(31.6%) 수준이었다. 반면,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하는 청소년은 한국이 39.5%로 열명 중 4명 정도가 해당되지만 중국

(10.9%)과 일본(6.0%)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기성세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보수적인 반면, 일본청소년들이 매우 관용적인 점이 주목된다. 즉, 부모·교사에 대한 반항행동에 대하여 한국은 대다수가, 중국은 과반수 정도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본청소년들은 무방하다는 응답률이 7할을 상회할 정도였다. 또한 무단결석에 대해서도 한국·중국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데 비해 일본청소년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귀속집단(국가, 가정)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중국(58.1%), 한국(47.3%), 일본(35.4%) 순으로 나타났다. 자국 국민으로서의 만족정도에 대한 응답률은 중국은 91.1%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88.6%이며, 한국이 66.7%로 가장 낮았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점이 있을지언정 동북아 3국의 오늘날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기성세대와 비교되는 신세대로서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에서 보듯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달된 스크린 문화와 컴퓨터를 매체로 하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해지는 환경에 놓여있다.

기성세대의 정체성이 언어적, 분석적, 수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사물 인식 방법 및 가치관을 반영하는 인쇄문화에 기초해 있다면, 신세대의 정체성은 감성적, 종합적, 미적 사고에 기초한 사물 인식 방법 및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신세대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한다. 이들 신세대에게는 영상세계와 현실세계, 고급문화 대중문화, 이성 과 감성, 정신과 육체, 그리고 의미의 세계와 쾌락의 세계 간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⁷

⁷ 우종욱·권이중, 『2000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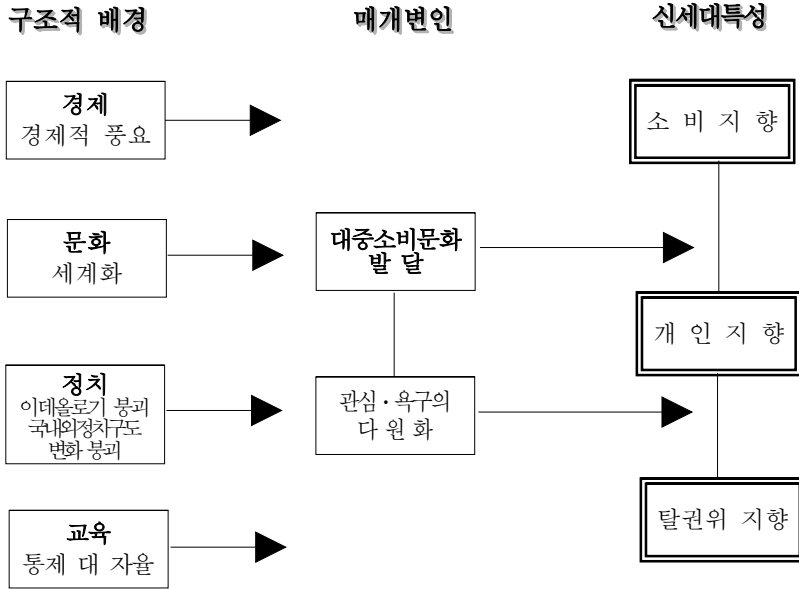
<표 II-1> 문자세대와 영상세대의 가치관 비교

문 자 세 대	영 상 세 대
이성 중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중시 논리적 심사숙고 미래의 득실중시 동일지향 가치관 남들(생애 모델)처럼 살고 싶다 자기절제 남이 창조한 가치에 대체로 동의 타인입장 중시 억제된 감정 보고 듣고 구경하는 정적 문화 소유가치 중시	감성 중심 좋고 싫음으로 판단 감각적 판단에 따른 행동 당장의 기분 및 이해득실 중요 다양성에 기초한 독특성 추구 남과 다르게 살고 싶다 자기표현 스스로 가치 창조 자기에게 충실하려는 자기 지향적 해방된 감정 직접 참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적 문화 사용가치 중시

*출처: 정원근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원의 혁명(1993), 재구성.

신세대 청소년들의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비추어 보면, 기성세대의 ‘생산지향적’, ‘집단지향적’, ‘권위지향적’ 특성과 비교되는 ① 소비지향적, ② 개인지향적, ③ 탈권위지향적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II-3>에서는 신세대 청소년들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배경들은 경제적 풍요,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국내외정치 구도변화, 통제와 자율이 교차하는 교육현실 등은 대중소비문화의 촉진과 개인적 욕구의 단원화라는 문화적 매개변인을 거쳐 결국은 청소년들의 소비지향적, 개인지향적, 탈권위지향적 특성을 가져오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3> 세대경험과 신세대의 특성: 이론적 틀



출처: 박재홍 『한국사회학』 제29집(1995), 재구성.

우선 소비주의, 물질주의, 낭비성향, 일보다 여가를 중시하는 특성 등을 ‘소비지향적 특성’으로 범주화시키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자신의 직업과 일의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삶의 풍요를 추구하려는 웰빙족 (Well-being family)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다양성·개방성·자율성 추구 등의 탈획일주의, 자유분방함과 개성을 중시하는 특성 등을 ‘개인지향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사고와 지식의 힘이 지배하는 미래사회에 상상력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지식창출과 지식기공 역량에 걸 맞는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표현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자생적 혹은 비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의 근본원리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규약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신세대적인 사고를 지녔다할지라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보와 타협적 사고’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동아시아 삼국이 주도적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면서 대중가수나 영화배우와 같은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대중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동아시아 권역의 새로운 청소년문화 유형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국제교류’라는 방식의 프로그램과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단순히 국제교류활동이라는 접근은 교통과 통신수단이 미비하여 상호교류가 쉽지 않았던 시기에 국가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그 나라의 문화 및 문물을 도입하던 때부터 줄곧 사용되어오던 용어이다. 그러나 오늘날 혹은 미래의 국제관계는 앞서 언급한 단계를 넘어 청소년들 간의 정부차원 혹은 민간단체를 통한 ‘청소년국제협력’이나 ‘청소년국제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같이 동반적 참여와 공동적 협력을 담아내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한·중·일 삼국의 문화공동체로서 협력방안

문화적 요인은 곧 세계화의 전제로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발전은 문화적 배경을 공통분모로 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II-4>는 한·중·일 3국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디지털과 사이버문화에 접근 수준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21세기 문화적 접근을 통한 동아시아 협력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상해 볼 수 있다.

첫째, 21세기는 문화 및 예술이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 국제교류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시기로서 문화자본의 중요성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동아시아 문화의 근원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국이 나름대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큰 틀에 있어서는 유교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해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21세기에는 디지털 및 사이버 문명이 사회 전체에 걸쳐 급속히 확산되어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하여,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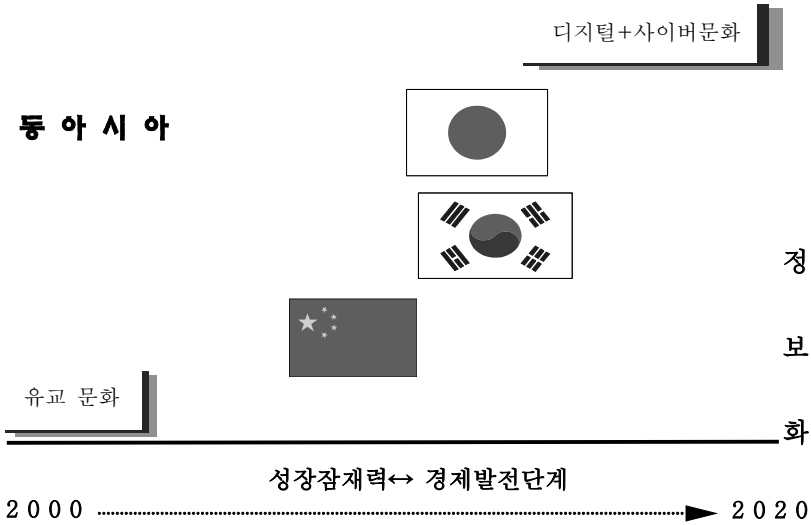
셋째, 협력의 구도는 한·중·일 3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동아시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단, 한·중·일 3국은 과거에 자주 등장하던 부메랑효과⁸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확고히 설정해야 한다.

넷째, 동아시아의 교역협력에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EU 및 러시아 등을 포함하여 주변 국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설정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아시아에서도 시장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경쟁과 협력의 통상기조 역시 고수되어야 한다. 21세기에는 WTO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공정한 룰이 적용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경쟁과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상 및 교류분위기는 동아시아의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고 본다.

⁸ 부메랑효과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경제원조나 자본투자를 한 결과, 현지생산이 시작되어 마침내 그 제품이 현지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아 처음 투자했던 선진국에 역수출되어 해당산업과 경합을 벌이는 현상이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자본투자·기술원조 등에 힘입어 여러 산업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에는 중화학공업제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생산하여 선진 여러 나라에 역수출하고 있다. 그 동안 한·중·일 3국간의 교역과정에서 몇 가지의 품목에서 발생되어온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4> 한·중·일 3국의 21C 문화적 접근구도



이와 같은 상호협력의 구도는 21세기 동아시아 공존을 약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본 중국과 일본의 역할은 단순한 외생적 변수 차원을 넘어서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긴밀한 파트너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통상관계를 비롯하여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어학연수를 포함한 유학생 교류, 대중문화 개방, 관광 및 여행, 민간단체교류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기조에서만 접근하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문화적인 특성과 공통점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 또한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까지 공동운명체적으로 움직여온 점과 지정학적 위상이 문화적 접근을 통한 동아시아 교역협력의 중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과거의 역사를 어떤 형태로든 일단락 짓고 관련 국가들이 모두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각자의 견해가 다르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가 쉽지 않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갈수록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성 및 상호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을 필두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발전적인 의식전환과 함께 실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과거를 치유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개최함으로써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들 모두가 국제교류의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인해 개별 당사국의 폐쇄적인 상태에서의 독자적 성장욕구는 스스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간 경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앞으로의 지구촌은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존공생의 이념아래 움직여질 것이므로 한·중·일 3국의 협력은 공동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선도하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라.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단계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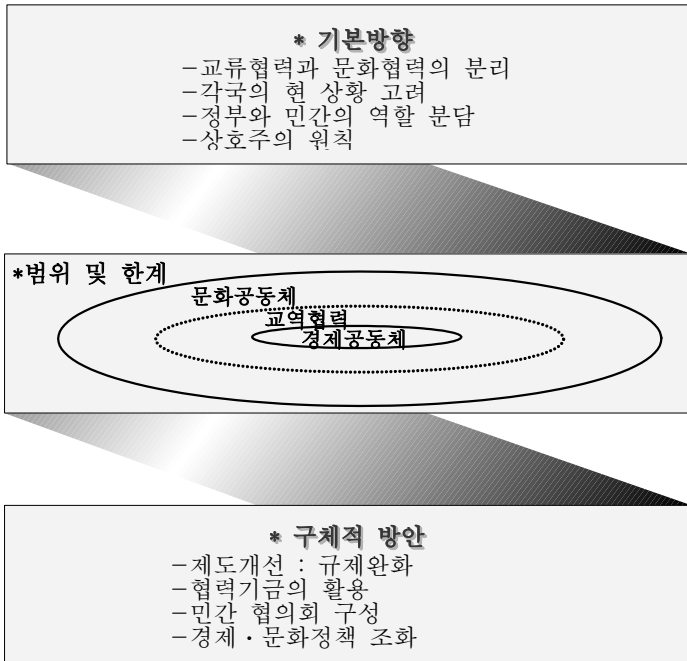
국가 간의 상호교류의 시작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교류를 비롯한 문화교류과정에서 항상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한·중·일을 필두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나름대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세계 어느 지역보다 민족과 철학적인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상황에서 보여주듯이 자금, 기술, 자원, 시장 등에서 상호보완성이 분명하며, 문화적인 공통점과 다양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성은 각국의 분야별 접근방식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상호호혜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가미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문화교류에서도 결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

과는 도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과거 선진국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사회적인 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상업주의적인 색채만을 견지한 채로 침투하여, 결국에는 그 나라 경제와 사회적인 시스템을 파괴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생활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의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어왔음을 서로가 인지해야 한다. 특히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상업주의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결과 막대한 부존자원을 소유하고서도 종속이론의 대상 국가들로서 제3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서로가 감안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방면의 상호보완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발전적인 문화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몇 가지를 <그림 II-5>를 통하여 도식화하고 이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그림 II-5> 청소년교류 협력의 방향, 방안 및 범위



문화적 차원에서의 선행적 협력과 병행하여 경제공동체로서의 과도기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교류 협력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 주요 도시간의 인터넷망을 비롯한 각종 문화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각국의 주요 도시, 주요 항구간의 무역, 운송, 금융, 관광, 환경보호, 정보,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활용한다. 도시는 지구촌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접근 용이성과 핵심적인 센터가 될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 공동연구를 행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가 21세기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자간 문화공동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문화, 역사에 정통하고 본 지역 언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한·중·일 3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상품을 개발해내야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우선 수요층이 두터운 영화 및 음악 등과 같은 청소년 대중문화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동아시아지역 문화자원개발 및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각국이 나름대로의 문화자원개발 및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3국간의 기나긴 교류과정에서 조성된 역사적인 유물이나 유적 혹은 무형문화재들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혹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보존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편협된 시각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 하려는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학교의 정규교과과정은 물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 오듯이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몇몇 지역을 둘러보는 식의 국제교류는 그 효과 면에서 회의

적인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계획된 동북아시아 구상은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국의 문화적 특성과 공통점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작업에 기초하여 다른 분야까지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이 지향하는 바가 반드시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방식에서 탈피하고 상호호혜성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공동운명체적 사고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윈윈전략으로 볼 수 있다.

마. 동아시아 문화 간 소통의 장애물과 해결책

우리는 물리적, 지리적인 국경이 없는 지구촌에서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문화적 장벽이 여전히 놓여있다. 또한 21세기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문화 간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단지 세계화 추세 때문에 국제적으로 일할 기회가 많아졌다거나 세계가 상호의존적인 되어 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이하여 주변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민족 간 갈등, 종교적인 분쟁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간 소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21세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문화 간 소통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1) 문화의 유사성과 자민족 중심주의

전 세계의 모든 문화는 공통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유사성과

상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의식주와 안전에 관한 욕구를 가진 인간들은 생리학적 및 사회학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이런 유사성의 환상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각자가 서구식 옷을 입고, 영어로 말하고 비슷한 식의 인사를 할 때의 느끼는 상이성을 인식하고 다른 규범을 이해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는 외국인의 행위를 자신의 문화기준으로 평가하며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인 자민족 중심주의이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지만 이것이 타문화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나라와 문화마다의 역사,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고정관념과 편견

고정관념은 국가, 민족 및 문화에 관한 지나치게 일반화되고 단순화된 개념을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인지유형과 과정에서 파생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고정관념은 성과 인종 같이 쉽게 식별되는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은 정보처리를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속한 집단의 메시지와 다른 집단의 메시지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고정관념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창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제약하며 고정관념을 확인시키는 커뮤니케이션을 부추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간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마음 자세를 갖는 가운데 맹목적으로 추측하지 않고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자신의 기존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

(3) 문화충격과 문화적응

문화충격은 문화가 다른 곳에 살거나 또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가 자신 본래의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느끼는 심리적 갈등으로 이는 사소한 당혹감에서부터 불안감, 무력감, 더 나아가 심각한 공포감이나 위기의식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문화충격을 대비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 배우며 문화의 대부분은 서로 상호 연결성이 있다는 통합적 개념을 갖는다.

둘째, 어떤 문화나 혹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완벽한 의사소통이나 완전한 이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셋째, 다른 문화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는 대신 감정이입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역지사지의 덕목을 발휘한다. 나아가 다른 문화권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려는 노력을 한다.

넷째,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오직 자신의 문화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의 첫 단계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에 부풀어 있는 상태로서 잠시 동안의 탐색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생소함과 당혹감 또한 약간의 적대감을 가지면서 문화충격을 느끼게 된다. 이 단계를 극복하면 새로운 문화에서 서서히 적응하게 된다. 결국은 타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서 문화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3.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국제적 비교 및 유형화

가. 유럽통합(EU)형: 국가 주도형 복지 및 투자 모델

현재 유럽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유형 중 대표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유럽 연합의 협의체에서 주도하는 공동 협력 교류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국가 간(동유럽 포함) 및 유럽 이외지역과의 국가차원의 협약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류 프로그램이다. 두 유형의 사업은 상호 관련을 가지고 운영되기도 하고 전혀 별개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모두가 국가 또는 국가 기관에서 관여하는 관계로 서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운영되며 때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이 다른 프로그램 운영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간에 유사성이 있는 프로그램들과 사업들은 어느 순간 통합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첫째, 유럽연합(EU) 협의체 주도에 의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다. 전통적인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소년국제교류 공동 프로그램은, ① 학교청소년 교류프로그램(SOKRATES), ② 학교 및 학교 외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교류 프로그램(LEONARDO), ③ 일반 청소년들 사이의 교류 프로그램(유럽 청소년Ⅲ)으로 구분된다.

둘째, 개별 국가 간 또는 개별 지방단체 차원의 교류 사업이다. 이는 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 체결 및 협약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과 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특히 서유럽과 동유럽지역 간의 교류 사업은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보다 활성화된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 양 진영 간에 오래 동안 지속된 냉전체제 이념대립의 상황 하에서도 양 지역 간의 청소년교류 사업은 제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같은 사업이라도 사업의 영역 및 내용 그리고 방법 면에서는 국가 및 지역별로 차이도 있었고 동서 각 국의 사정에 따른 교류사업의 취지 및 목적의 상이성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 청소년교류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한계점과 제약을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 간의 청소년교류 사업은 어떻게든 실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물론 양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교류 사업은 보다 능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1990년대 들어 유럽지역에서 냉전시대가 마감되면서부터이다.

전반적으로 유럽형 청소년 교류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지역 청소년들 간의 문화교류 및 문화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 사회의 안정 및 발전의 기초로서 청소년교류 사업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공동의 교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각 국가와 정부 또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신력 있는 협회 및 연맹에서 주도하고, 이에 각 국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시 내용, 방법 등에 합의하여 실시하는 쌍방향 복지 및 투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럽지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사업주체로 선정된 곳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맡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기획과 운영은 유럽연합의 협의체가 주관하고, 각 국의 관할 하에 관련 청소년교류 정책담당 부처 및 행정 부서로부터 시작하여 최하위 단위인 각급 학교 및 청소년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청소년복지 단체로까지 긴밀하게 연계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결론적으로 유럽형 청소년교류 사업은 미래를 위한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투자이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는 국가 투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운영 방법 및 수단으로 본다면 사회 안전 망 또는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사업 모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역사와 전통이 강한 유럽지역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경우에도 복지 사업의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간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영역은 직업기술교류 및 직업기술교육 사업의 영역인데,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 학교청소년 대상의 교류사업 차원으로

서가 아닌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층인 직업청소년 및 소외청소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며 투자로 시작된다. 또한 대학생들의 유럽지역 간 국제교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은 유럽지역 간의 역사와 전통에서도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성숙과 함께 필연적으로 부수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정책은 일차적으로 사회계층의 불균등 해소를 통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유럽에서의 청소년교류는 오래 전부터 개별 국가들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도 촉진되어 왔다. 이는 유럽지역의 사회 안정화 전략과도 크게 부합된다. 즉 국가와 국가 간 민족과 민족 간 아니면 종교와 종교 간의 전쟁과 반목의 역사가 깊은 유럽 대륙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웃 사회 및 문화와의 교제를 통하여 각국의 민족과 국민과 친해지고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상호 문화교류이고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이다. 따라서 문화 이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며 문화교류는 이를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고도로 발달하는 국제산업사회의 성숙과 유럽 대륙 간을 오고 가는 엄청난 유동인구로 인하여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도 청소년교류 사업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들 사이의 사회적-문화적 교류는 미래 유럽지역의 화해와 상호 발전을 약속한다. 특히 독일 통일을 계기로 급진전되기 시작한 유럽통합의 과제는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유럽 통합의 핵심전략 사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오늘날 엄청난 예산상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청소년교류 사업을 국정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유럽지역의 통합기구로 자리를 잡은 유럽 연합(EU)에서 유럽지역간의 청소년교류 사업을 미래 유럽 통합을 위한 전략적 기지로 여기

고 있다.

둘째, 최근 국제화 및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편으로는 유럽 청소년들 사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국제화 및 세계화의 시대에 보다 익숙해질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연합 또는 아시아연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역화를 통하여 지역블록화를 강화하려는 추세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블록화를 경계하며 동시에 유럽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미래의 투자로 간주하여 유럽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정책화하여 이 사업 영역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주도적 역할을 떠맡아 왔던 독일의 경우 실지로 유럽 통합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에 대한 성과는 유럽형 청소년교류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에 비교적 충실한 결과에서 연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보기로서 삼고 있다.

유럽형 사업의 특성은 유럽 연합 협의체 주도의 유럽 공동 프로그램 사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지역(동유럽과의 교류 포함) 개별 국가 간 사업 역시 맥락을 거의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 국가 간 전략이 유럽 연합의 전략과 상충할 수 없으며, 유럽 연합의 전략은 바로 회원 국가들의 정책 및 전략으로 대부분 흡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세부적 하위 목표들과 방법들을 체계화시켜 왔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education)과 훈련(training)”의 영역이다. 의무교육제도가 유럽지역에 확산되고 보편화된 이래로 오늘날 유럽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직업 청소년이다. 따라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사업에는 교육과 훈련의 과제를 해결하는 목표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의 국제청소년교류 사업은 우선 청소년들로 하여금 실용성 있고 가치 있는 이웃나라의 언어를 습득하는 기회를 주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습득을 위한 상호 교류의 시작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웃 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웃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이해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각국 간의 지식 및 기술 교류를 통한 교육 및 훈련 사업에의 기여 그리고 이웃 외국으로부터의 문화접변 및 문화수용을 통한 간접적인 타문화의 경험과 이해의 통로를 터 준다.

청소년교류 사업의 또 다른 목적은 바람직한 유럽 공동체에서의 각 개인의 삶의 조건과 환경 등에 대한 폭넓은 인식 및 이해 그리고 새로운 조건 및 환경의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물론 교류 사업에 대한 성과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국제 문화 학습 능력과 문화체험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차원 아니면 유럽 연합 개별회원국의 차원에서 볼 때, 사업 추진을 통하여 유럽 지역에 속하는 개별 국가와 민족들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고유한 문화영역을 직·간접으로 체험하게 하고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장기적으로 유럽통합을 계획하는 유럽 사회는 각 개인들 사이의 만남을 보다 개방하여 이를 통한 상호이해 및 유럽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유럽지역 주민들 사이의 공영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럽지역 간의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의 추진 방법은, 유럽 연합 협의체 주도 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가칭)유럽지역의 연합체가 기회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유럽지역 각국 정부에 제안하고, 각 국가는 여기에서 제안되는 프로그램 중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은 유럽연합 협의체의 회원국이 되며 회원국별로 예산 지원에서부터 행정적 협조까지 할당된 과제와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것이 유럽연합의 공동프로그램

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주도하는 유럽지역 간 청소년국제 교류 사업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들은 주로 자국의 입장과 상황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된다.

유럽지역의 개별국가간의 교류 사업일 경우에도 국가 간의 협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도시 간의 자매결연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별 또는 사업시행의 단위별로 공신력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기서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고 사업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나. 북미형: 비영리단체 주도형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은 유럽의 경우와는 내용, 방법, 범위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북미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국가에서 또는 국가 연합 차원에서 주도하고 개별 국가가 이를 준수하는 유럽형과 달리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NGO)의 속성을 지닌 비영리 단체가 주도한다. 이러한 사업 유형의 차이는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이 서로 상이한 국가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역시 양진영 간의 정치-경제-사회 정책의 차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정책 면에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은 공히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용, 방법, 목표 면에서는 매우 판이하다. 즉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의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 및 개인 자유 경쟁의 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유럽 지역의 자본주의는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요소와 절충된 소위 사회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대기업 중심주의로 일면 대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은 중견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복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과 캐나다는 대기업 중심주의로 일면 대기업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은 중견 및 중소기업 중심의 사회복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역시 유럽 지역처럼 국가 또는 연

한국가가 주도하지 않는다. 이는 북미 지역이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을 주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를테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국가와 정부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계속 지원하여 여기서 얻어지는 잉여이윤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사회에 환원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부는 처음부터 이에 개입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즉 국민 세금을 잘 버는 계층과 못 버는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걷어들여서 이 총액을 국가와 정부가 정하는 정의와 평등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으로 사회에 재분배 환원시킨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즉 북미형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민간차원의 비영리단체가 주도하고 정부와 기업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이다. 즉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며(예: 미국 IAP-66, J-1 비자 문제 협조), 기업과 사업가들 그리고 출연이 가능한 독지가들에게 주로 세금 정산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적 사회 환원의 규정을 법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북미에서 추진하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목적은 첫째,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상호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세계 국가 질서 및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둘째, 지구촌의 강자로 떠오른 북미 문화권에서 세계의 청소년들을 초대하여 이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시키고 주변문화 대신 중심으로 떠오르는 북미 문화를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실제로 제3세계 문화권으로부터 항상 “문화적 식민주의 논쟁”에 휘말리는 목적 영역으로 지적되지만, 이러한 목적 영역은 한번도 포기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투자하는 만큼 자신들을 지구촌의 중심무대로 즉 강대국으로의 위상을 유지 강화시키는 것을 노리는 것을 극히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3세계와의 논쟁에서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는 자

신감에 차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제3세계에서 비토를 내는 예민한 사안들에 대하여 이들은 문제를 가능한 한 지상에 노출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이 지향하는 청소년국제 교류 사업의 정책 역시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다.

청소년교류 사업을 통하여 인류 이해 및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에는 누구 하나를 제외하지 않고 심지어는 제3세계의 문화권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미형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목적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날로 발전하는 추세로 평가할 수 있다.

(1) ‘캐나다 세계 청소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30년 전부터 외국의 청소년들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국제적 교육의 기회와 일터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즉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고 지역사회와 국제 발전의 이슈를 개척하고 실제적 현장 경험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매년 약 20여 개국 출신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캐나다 세계 청소년’의 사명은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에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서로의 파트너십 속에서 함께 일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고 다양하고 다양한 문화의식, 세계 시민과 지역사회 개입 그리고 세계 이해와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비영리 단체의 사업이다. 이는 캐나다의 국제 개발 에이전시, 다른 정부와 비정부단체(NGO) 설립자들 그리고 많은 일반 기부자들에 의해 지원된다.

1971년에 설립된 사업 기구인 ‘캐나다 세계 청소년’은 청소년들의 혁신적 국제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고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주도 단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60개국 출신 24,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캐나다 세계 청소년’이 제공하는 삶의 혁신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참가 지원 자격은 30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가능 하지만,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의 참가 자격은 17-20세 사이의 청

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 청소년교류 프로그램(Youth Exchange Programs)

이 프로그램은 6-7개월가량 소요된다.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있는 지역 사회에서 삶과 일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반을 보낸다. 그리고 다른 반은 아프리카, 아시아, 캐리비안 국가 EH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낸다. 참가자들은 그들 자신의 국가와 다른 문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제 작업 현장의 경험을 획득하고 지역사회와 세계 발달에 관한 이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해의 기회를 갖게 된다.

* 중부유럽 및 동유럽 프로그램(Central and Eastern Europe Programs)

이 프로그램 역시 6-7개월가량 소요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반을 캐나다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보내고, 프로그램의 반은 중부 유럽 또는 동유럽에서 보낸다. 단일한 경제-정치적 맥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은 민주화, 환경, 시민의식, 시장 경제 그리고 소규모 사업 개발 같은 공통 이유에 관여하게 된다.

* 소비자 프로그램(Customized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환경, 지역사회 개발, 기업주 훈련 또는 특별 그룹(여성, 원주민 등)을 위한 이슈들에 근거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형태에서건 기한에서건 매우 다양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참가자들이 홈스테이 형식으로 호스트 가정에 머물면서 함께 살면서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된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머물 수도 있고 다른 개발도상국에 파견을 신청할 수도 있다.

* **작업 파트너 프로그램(Work Partner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에게 해외에서 실제 작업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3-6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파견되어 작업 경험을 하게 된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홈스테이로 거주하면서 호스트 가정과 함께 살고 건강관리, 환경, 새로운 정보 기술공학 그리고 지역 발전 같은 분야에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갖고 작업한다.

* **연합 이니셔티브 프로그램(Joint Initiatives Programs)**

이 프로그램들은 학교 청소년들과 단기적으로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그룹들에 의해 주도된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국제자원봉사활동, 이국 가정 체험, 그 나라 언어의 교육 훈련, 관광 그리고 학교 외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구성된다.

다. 아세안(ASEAN)형 : 문화-지역 네트워크형

(1) 아세안 교류협력기구

1) 아세안 사무국(The ASEAN Secretariat)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1967년 방콕에서 설립되었으며 그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자타르타에 위치하고 있다. 운영비 7백만불(USD)로 10개국이 공동 분담하는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ASEAN의 조직은 ASEAN 국가 정상회담, 외무장관회담, 타분야 각료 회담이 매년 이루어지며, 각료회담을 지원하는 29개의 상임공무원위원회와 122개의 기술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상임공무원 위원회 중 사회개발위원회(COSD) 하위의 분과위원회 중 아세안 청소년 분과위원회(the ASEAN Sub-Committee on Youth: ASY)와 아세안 교육 분과위원회(ASEAN Sub-Committee on Education:

ASCOE)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문화정보위원회(ASEAN Committee on Culture and Information: COCI)가 문화정보 관련 청소년사업을 주관한다.

ASEAN은 여러 특수부서가 있으며 다양한 현장분야와의 국가적 협력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다. 협력하고 있는 현장분야로는 아시아대학 네트워크(AUN), 아세안 농촌청소년 개발센터, 아세안 관광정보센터, 아세안 에너지 센터 등이 있다.

아세안의 주요목적은 정책개발, 아시안 의식 증진 시민교육, 능력형성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아세안 고위 공무원회의, 아세안 Youth Dialogue Meeting(2004년 의제는 창업문제), 아세안-중국 장관회의, Youth Exchange(매년 매국가 3명씩 총 30명 초청), Malaysia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예정사업: 비용은 10개국 분담)등이 있다.

■ 아세안 청소년 분과위원회(ASY)와 국가 별 조력사업

제 2차 아세안청소년장관회의의 결과로 각 나라 별로 적용계획을 세웠고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인도네시아), 사회적 시민적 책임의식(라오스), 리더쉽 교육(말레이시아), 아세안 시상식(필리핀), 과학과 기술(필리핀), 지속적 개발과 농촌청소년(태국), 학교밖 청소년의 기술훈련(베트남), 이 중 마지막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안들이 아세안 하위교육위원회와 연계하는 조력적 활동으로 결정되었다.

■ 아세안 청소년 분과위원회(ASY)의 주요 관심 분야

학교 밖 청소년의 훈련, 즉 학교에서 산업현장으로 간 청소년들의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의 기술교육을 위한 아세안 직업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일본-아세안 교환사업(JAEP)의 기금으로 1998년에 워크샵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과로 설립된 아세안 기술망(ASEAN SKILLSNET)은 이후 2000년에 Youth@ASEAN homepage (www.aseanyouth.org) 안으로 통합·발전되었다. 이 웹페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아세안협력에 대한 지역적 개관을 보여주며, 회원국들에 의해 시행되는 프로그램과 활동, 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아세안 청소년상 시상(ASEAN Youth Award)은 1999년부터 매년 ‘최고의 청소년봉사활동’의 주제아래 아세안 회원국에서 9명의 청소년에게 수상한다. 2001년에는 청소년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캄보디아의 10차 아세안 청소년의 날 회의와 연계하여 수상식을 가졌다. 이제까지 10차의 아세안 청소년의 날 회의는 일본정부가 제공하는 기금으로 치루어졌다. 2003년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11차 회의부터는 아세안 국가가 공동부담하여 이 행사를 치룰 것인데, 아세안 청소년 고위공직자회의(SOMY)는 아세안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수상식이 아세안 청소년분야의 지역적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매년 이 행사를 열기로 했다.

② 아세안은 2002년에 ‘도시청소년사업Ⅱ’ 세미나를 청소년 비행 줄이기의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었다. 또한 아세안+3 리더쉽행정 프로그램을 “청소년기관발전을 위한 정보기술의 물결 타기”의 주제로 개최했다. 같은 해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지역적 훈련워크숍을 열어 행동계획과 훈련기준을 마련하였다.

■ 아세안 교육분과위원회(ASCOE) 주요관심분야

SEAMEO와 연계하여 기본교육과 원거리 교육이 이루어질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또한 중등교육학교에 교과과정과 학생교환프로그램 안에서 아세안 연구(ASEAN Studies)를 통합하여 중등학교 내 아세안인식(ASEAN Awareness)을 높여왔다. 아세안 연구과정의 초등,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위해 아세안 연구자료집을 만들고 있다. 필립핀이 주도해서 아시아 교과목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이다.

■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ACOI) 주요사업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와 아세안문화기금(ACF)과 연계하여 상호이해, 회원국간의 연대, People to People 상호작용과 접촉, 정보교환과 기술개발, 문화공연, 축제행사와 전시회 등을 증진시키는 사업들을 해왔다.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 * 아세안 인식 증진(Promoting ASEAN Awareness): 지역적 정체성과 협동정신을 가지는 것을 돕고자하는 아세안프로그램의 지역적 인식 필요성에서 나왔다. 아세안활동증진을 통해 지역 내 자신감의 회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정보통신부장관들과 문화정보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 프로그램, 구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시작하였다: 하노이행동계획(HPA) 실행, 아세안 프로그램과 문제들의 공적 인식, 아세안 경제증진을 위한 의사소통프로그램, 아세안 위성 채널, 매스미디어 네트워크와 연결, 문화적 공연과 전시, 청소년 캠프와 교환, 멀티미디어 훈련, 문화적 유산.
- * 아세안 청소년캠프: 1997년에 시작된 사업이며 2004년 12월에 캄보디아에서 6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세안 회원국에서 50명의 청소년들이 12일 간 참여하여 서로간의 경험공유, 자기국가의 문화적 측면들을 공연, 참가자들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다지며 아세안과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 * People to People 교환프로그램: 일반대중차원의 아세안 문화상호작용을 도모한다.
- * 아세안 지역 퀴즈대회: 국가정보기관들이 국가적 아세안 퀴즈 경쟁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실시한다. 고등학생들이 참여대상이며 아세안에 대한 지식을 경쟁하는 퀴즈이므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아세안 관련 웹사이트 자주 접속하며 다른 아세안관련 출판자료를 접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퀴즈에 나갈 준비를 한다. 2002년 방콕에서 아세안 지역 퀴즈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개인전에서 우승, 준우승을 차지한 두 필리핀 고등학생에게 각각 500달러(USD)와 400달러(USD)가 주어졌

고 필리핀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아세안 전문가라는 칭찬과 함께 앞으로 외무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할 것을 격려를 받았다.⁹

■ 아세안 문화기금(ASEAN Cultural Fund: ACF)

1978년 아세안의 외무장관들이 아세안의 문화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위해 설립하였다. 일본이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로 문화와 정보 사업을 지원한다. 2,000만불(USD)로 시작된 기금이 2004년 현재 4,000만불(USD) 조성되었고 이 기금의 이자 수입만으로 사업을 시행한다.¹⁰

2) 아세안 기금(The ASEAN Foundation)

아세안 사무국이 아세안 정부국간의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면 아세안 기금은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아세안의 사적영역을 대변하는 통로가 된다.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 기금은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에 있어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¹¹ 아세안 기금은 1997년 아세안 10개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창설하였다. 아세안국가에서 4백20만 달러(USD)이상을 모금했고, 1999년에 일본에서 기금 지원(2천만 달러USD), 중국, 한국이 각각 2십만 달러(USD)를 지원하였다. 이 후 한국은 아세안과 최근에 그 관계를 확대해왔으나 아세안·한국 특별기금으로 인력자원개발, 정보기술, 보건 환경분야를 위해 2백만 달러(USD)를 지원하였다.¹² 일본·한국·중국에서 송금된 기금은 총 2천 4백만 달러로 이중 2천 2백만 달러가 사업재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천만 달러가 일본정부가 주도한 단기 사업들에 사용되어왔다. 많은 사업들을 선정하여 기금을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45%의 기부금이 사용되어 현재의 사용 가능한 기금이 제한적인 상태이다.

⁹ www.pia.gov.ph/philinfo/.

¹⁰ 『ASEAN Secretariat』 (2001. 4), 면담내용 참고

¹¹ www.aseanfoundation.org/activities.php.

¹² 『The ASEAN Foundation』, (2003. 5).

첫 번째 기금의 이자로 사업비를 마련하였고 최근 아세안기금에 부가적 수입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대학, 개인회사, 정부기관, 민간기관, 관리, ICT 의사소통이나 언어분야의 일반 공동체에 단기 코스들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수강료를 지불해야하며 그 지역의 대학이나 훈련 센터와 연계하여 훈련과정이 열린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감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얻는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저개발지역의 지역사회를 돕는데 사용된다. 이같이 사업후원을 통한 모금, 기업후원을 통한 자체모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왔지만 재정부족으로 대기업의 후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3)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

아세안 대학 네트워크는 1992년 4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결과로 고등교육수준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기위해 아세안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1995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지역 내 교수·학자·과학자간의 협력증진, 지역 내 학문적·전문적 인적자원개발, 아세안 학문적 공동체내의 정보보급증진, 회원들 간의 지역 간 정체성과 아세안인임에 대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³

아세안 국가의 대학교류 네트워크의 사무국은 태국의 국립대학인 출라롱콘(Chulalongkorn University)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조직은 이사진과, 사무국, 참여대학이 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아세안 10개국의 17개 대학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대전대학이 AUN과 교류하고 있다.

사무국의 운영은 태국정부가 지원하고 운영비 중 사업비는 대학별로 부담해서 충당한다.

¹³ www.aun.chula.ac.th/detail.htm.

AUN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국가내의 교류사업으로 AUN 질적 보증사업,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 학생·교수 교환 프로그램, 정보 네트워킹, 협력적 연구, 아세안 행정개발 프로그램, 아세안 대학원 경영·경제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이 있다.

① AUN질적 보증사업(AUN Quality Assurance)

AUN의 가장 우선적 사업으로써 2000년에 아세안대학동맹이 태국방콕에서 첫 워크숍을 통해 아세안대학내의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하고자 시작되었다. 2001년 이후 각 대학에서 임명한 질관리담당관(Chief Quality Officer)이 모여 2004년까지 6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아세안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공통된 기준체계를 설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벤치마킹법으로 대학간 좋은 사례를 나누고 적용하는 하며 바람직한 교수 학습법에 대한 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한 실제적 관찰을 하고 아세안대학들이 적용하도록 돕는다. 결국 아세안 국가내의 대학교육의 질의 수준을 관리하여 고등교육체계 내 조화를 이루며, 아세안 대학 간의 학점교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⁴ 일례로 현재 버마와 싱가포르 학점교환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나 장차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②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 (ASEAN Studies Program)은 아세안 지역의 연대와 정체성 강화, 아세안의식 고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AUN 회원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실행할 아세안 연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이를 위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대학원수준에서의 조사연구와 워크숍을 해왔으며 Malaya 대학(말레이시아)이 아세안연구 프로그램의 AUN 석사과정을 2003년 말에 시작하기로 하였고, 필요한 선수과정으로 6개의 필수과정 강의요강(ASEAN Studies Programme Syllabi)이 개발되었다. 아세안연구 6개 과정의 요강은 아세안의 경제협력, 아세안의 외부

¹⁴ 『ASEAN University Network』, (2002. 5, 2004. 12)

관계, 아세안의 기능적 협력/조사코스, 아세안 제도적 구조와 의사결정, 아세안내의 정치적 안전보장 협력, 동남아시아의 지역주의와 지역적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요강은 아세안기금의 후원으로 CD-Rom과 책으로 발간·배포되었다.¹⁵

③ 학생 교수교환프로그램에서 단기교류활동

AUN교육포럼, 아세안 문화포럼, Young Speaker Forum 등이 있고,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주로 대학생이 주 대상으로서 현재 태국에 2-30명의 아세안 국가 학생이 가서 공부하고 있다.

첫째, AUN 교육 포럼(AUN Educational Forum)은 1998년에 태국에서 시작되어 매년 이루지는 2주간의 Work camp 프로그램이다. 회원대학 별로 교수 1명과 대학교 2-3학년 학생 1-3명씩 50여명이 참여한다. 정치, 경제, 경영 등의 전공학생이 참여하며 포럼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럼토픽에 대한 3,000자의 에세이를 제출해야하며 교수진은 4,000자 내외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2004년에는 미얀마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아세안: 아세안연구 학습사회 구축'이라는 주제 하에 6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각 나라별로 주제를 준비해서 발표하게 되며 경비 중 항공료는 학생부담이며 나머지 비용은 주관대학이 부담한다.¹⁶

둘째, 아세안 청소년 문화포럼(ASEAN Youth Cultural Forum)에는 각 대학에서 5명의 미술·음악전공 학생들과 교수 1명이 초청되며, 3가지 주요활동에 참여한다. 음악, 노래와 춤에 관한 강의, 워크숍과 각국 대학의 문화공연에 참여한다. 참가학생은 60불의 가입비를 내며 항공료는 학생의 소속대학이 부담하고, 기타 비용은 행사 주관대학이 부담한다. 2003년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고, 2004년에는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대학에서 두 번째 아세안 문화포럼을 주관한다. 이 포럼은 아세안 청소년들에게 상호문화적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아이디어

¹⁵ 『ASEAN University Network』 (2003) pp. 1-5.

¹⁶ AUN, (2004. 12), 윤철경 AUN면담 내용정리.

들을 공유하고 경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연합을 추구하고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문화포럼은 아세안 각국의 문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⁷

셋째, Young Speaker Forum은 아세안 교육포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2002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어른들이 아세안 청소년들의 성숙한 생각들을 듣게 되는 기회를 가졌고 아세안 사무국의 의장은 이 행사가 매년 개최될 가치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동남아지역을 위한 미래의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한다.¹⁸

④ 협력적 연구(Collaborative Research)

아세안 기금의 지원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며, 크게 두 가지 즉, 경제적 안전보장문제(Economic Security Issues)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관련된 주제를 중점으로 연구조사를 한다. 먼저, 경제안전 문제에 관한 연구는 아세안 경제/경영대학원 프로그램 네트워크(AGBEP Network)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며 ‘아세안 5국내의 상호기금의 개발과 수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그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Gadjah Mada대학에 있다. 둘째로, 정보기술관련 조사는 필리핀의 De La Salle대학의 협력 하에 ‘아세안 5국 내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정보기술훈련’의 제목으로 이루어 졌다. 이 두 연구는 2003년 8월까지 연구를 마감하고 10월에 발표세미나를 가졌다.¹⁹

둘째, 아세안과 역외국가와의 교류사업(ASEAN and Dialogue Partners)으로 아세안-일본, 아세안-한국, 아세안-중국 등의 사업이 있으며 이외 아세

¹⁷ 『ASEAN University Network』 (2003. 4-6, 2004. 12), 윤철경 AUN 면담 내용정리.

¹⁸ 『ASEAN University Network』 (2002. 12).

¹⁹ 『ASEAN University Network』 (2003. 7).

안-유럽연합, 아세안-인도, 아세안-러시아 등이 교류 사업을 하고 있다.

① 아세안-한국과의 교류

1991년 아세안과 정식 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이 되었다. 아세안과 한국간의 관광, 과학, 기술발전과 인력자원개발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져왔고, 인력자원개발의 틀 안에서 한국은 아세안 청소년들과 학자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연구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주요한 활동으로는 아세안-한국 학문교류 프로그램, 아세안 박사 후(post doctoral) 우정 프로그램이 있다. 한 예로써, 한국의 대전대학에도 아세안 국가의 학생의 와서 수학하고 있다. 2002년 아세안·대전대 국제교환학생프로그램의 결과로 10명의 아세안 학생이 수학을 마치고 2003년 6월에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2003년 7월부터 10명에서 17명으로 장학생의 수를 늘렸다. 2003년의 경우 10개 아세안 국가에서 95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을 했으며 이중 17명에게 한국으로 파견되는 기회가 주어졌다. 대전대학의 경우 학비, 숙박비, 왕복티켓과 한 달 생활비 500달러를 1-2학기동안 17명의 아세안 학생에게 지급한다. 이처럼 대부분 교환학생의 등록금은 초청국의 대학이 부담하고 기타 비용은 초청국의 정부가 부담하는 경비구조이다. 그 외의 한국과의 학문적 교류는 AUN사무국과 한국동남아학회와의 교류가 2002년에 시작되어 워크샵, 협의, 공동연구, 우정교환, 조사와 원탁회의의 5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냉전 후 세계화시대의 동아시아의 지역적 협력과 정체성 세우기’의 주제로 이루어진 협의에는 아세안과 한국의 학자들이 20편의 논문을 제출했다. 공동연구와 우정교환 프로그램은 2004년 진행되었으며 6명의 연구자가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10명의 연구자가 우정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구해왔다. 2004년 6월이 연구마감 시점이며 연구와 프로그램의 결과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조사와 원탁회의는 2004년 1월에 시작되어 한국학과 아세안연구에 관한 한국과 아세안 전문가들이 각기 아세안나라 내의 한국연구에 대한 조사와 반대로 한국 내의 아세안연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6월 말레이시아의 대학에서 워크샵을 통해 보고하기

로 했다. 이 조사결과는 아세안과 한국에서의 서로에 대한 현재의 연구상태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서로간의 학문적 협력의 발전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²⁰

② 아세안-중국과의 교류

중국과의 학문적 협력과 교환프로그램은 2001년에 주요한 4개 활동, 즉 총장회담, 조사와 원탁회의, 협력연구, 교수학자 프로그램을 주요골자로 시작되었다. 총장회담은 2002년 태국의 출라롱콘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의 아세안나라와 아세안연구(ASEAN Studies)에 대한 연구 상황과 정보를 알 수 있었고 또한 향후 교류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AUN사무국과 중국의 북경외국연구대학(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BFSU)이 2004년 베이징에서의 조사 원탁회의를 준비해왔으며 이 회의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의 학자들이 참여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중국의 광시 대학(Guangxi University)은 2003년 11월에 경영대학에서 ‘아세안 중국의 경제 경영 고등 교육 협력’의 주제 아래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약 50명의 아세안 학자들과 80명의 중국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포럼은 아세안 국기와 중국 대학들 간의 고등 교육에 대한 학문적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를 증진·교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포럼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합의점을 도출해내었는데, 첫째, 아세안 중국자유무역지역을 주도하면서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기회 또한 제공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 협력은 인적자원 개발영역에 초점을 두고 확대될 것이다. 둘째, 아세안과 중국 간의 학문적 협력은 장기간을 통해 한단계씩 발전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양쪽간의 관계를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했고, 또한 참가대학들은 향후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국제적 프로그램을 개발 향상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했다.²¹

²⁰ 『ASEAN University Network』 (2004. 7-8), www.aun.chula.ac.th/Aunactivity.htm.

²¹ 『ASEAN University』 (2004. 9)

③ 아세안-일본과의 교류

일본경제조직연합에 의해 설립된 Keizai Koho센터가 1998-2000년까지 3차례 AUN 대학관계자와 학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10일간의 관광 및 교육적 방문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AUN 동남아시아 공학교육개발 네트워크 (AUN/SEED-NET: AUN/Southeast Asian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Network)를 설립하여 아세안과 일본의 대학 간의 공학분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세안 나라들 간의 공학교육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아세안에서 선별된 9개 대학들과 일본의 11개 대학이 회원이며 이 네트워크는 연구사업 자금지원, 연구 장비 제공,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학술 세미나개최, 1년 2회의 정기간행물 출간, 웹사이트 설립, 국제학술협의 참여를 위한 기금지원, 대학원석사학위 프로그램, 단기 훈련 코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국제협력기관(JICA)을 통하여 주로 일본정부가 재원을 지원하고 아세안기금이 부분적 재정지원을 한다. AUN/SEED Net의 특별 프로젝트로 2000년 회원대학들의 총장과 학장들의 준비회의가 개최되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받고 태국의 출라롱콘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2001년에는 동대학에서 네트워크의 개회식을 가졌다. 2002년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와 싱가포르국립대에서 ‘공학교육향상을 위한 정보기술 사용’을 주제로 첫 IT세미나를 개최했다.²²

④ 아세안-유럽연합

1997년 양 연합 간의 원탁회의 이후 상호간의 학문적 공동체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관계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태국의 출라롱콘대학에 프로그램관리 사무소가 있다. 크게 파트너쉽 사업과 네트워크 주도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파트너쉽 사업을 위해 공동적용연구, 인적자원개발, 교과과정 개발의 3 가지 사업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²² 『ASEAN University Network』, 13호 (2002). www.seed.net.org.

둘째로 네트워크 주도사업을 위해 2차례의 총장 협의와 4차례의 정기 원탁회의, AUN을 위한 기술원조가 계획되어 있다. 한 예로써, 최초 아세안 유럽연합 대학 네트워크 프로그램(AUNP) 원탁회의가 ‘고등교육의 질적 보증’을 주제로 2003년 방콕 출라롱콘대학에서 이루어졌다. 두 지역 대학 간의 질적인 수준 보증을 위한 실제적 협력 노력으로써 아세안-유럽연합 정책입안자, 학자, 실천가등 고등교육질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그들의 지식을 나누고, 몇몇 국가의 사례와 나라들 간의 비교를 통해 적용점을 찾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아세안학점교환체계를 설립하여 아세안 내와 아세안과 유럽 연합 간의 학문적 이동성을 향상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4년에 아세안과 유럽연합 대학들의 첫 총장협회가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 학생의 관심은 한국어와 한국의 고급기술에 대한 것이며 아세안 지역 내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세안 지역의 학생은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는데 아세안 국가와 유사한 문화, 중국어의 중요성, 중국의 생활비, 저렴한 수업료, 국가의 규모가 크고 구경할 곳이 많은 점 등이 아세안 학생의 중국교류 촉진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지원은 줄고 있지만 자부담을 통해 중국유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에 다녀온 학생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중국인이 거칠고 사기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세안 지역 학생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고급기술에 대한 학습에 있고 가기를 선호하지만 비싼 학비로 인해 경제력이 있는 학생만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정부의 장학금 지원은 한국에 비해 많지만 가고자 하는 학생이 많으므로 한국 신청자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다.

III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분석: 한국*

* 이 내용은 현재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에 재직하고 있는
김소희 박사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1. 청소년 교류 법·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혁명의 시대는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과거 통신수단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을 때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 지역문화가 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위성통신이나 인터넷의 보급 등 정보통신 체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세계는 외부의 영향을 급속히 받아들이며 변화하고 있다.

정보의 바다로 일컬어지는 인터넷은 예전에는 특정 계층만이 공유하였던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받아들 수 있게 했고, 위성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초단위 정보를 자기 집에서 TV를 통해 동시에 볼 수 있게 했다. 지역, 국가 간에 벽이 허물어지고, 시공의 개념이 무너지면서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도 가까운 이웃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멀고 큰 의미로 일컬어지던 세계라는 용어대신에 가까운 공동생활권의 의미로 사용하는 “지구촌”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다.²³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의 배양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생존과도 결부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감각은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세계를 짊어지고 갈 중심 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국제교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인류의 공통문제인 ‘환경 파괴’, ‘질병’, ‘기아’, ‘실업’ 등에 대해서 외국 젊은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의 자질도 함께 함양토록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 간 청소년국제교류’, ‘국제청소년행사 개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해외연수’ 등 다양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

²³ 한상철 외, 『청소년지도론』 (서울 : 학지사, 2001).

는 한편, 민간차원에서의 청소년국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국제 감각을 지닌 청소년 육성’을 주요한 정책 초점 중 하나로 제시하며, 개방화·정보화를 특징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청소년들을 세계로 향하여 열린 마음의 국제감각을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한다는 목적 하에 청소년 교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⁴

국가 간의 교류를 다변화·다양화하여 청소년들의 시야를 확대하고 직·간접적 경험을 확대하게 한정된 소수의 청소년에게 교류가 집중되지 않도록 수익자 부담을 증가시켜 다수의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참가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국가주도형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의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²⁵

첫째,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청소년상 확립의 차원에서 국제 청소년회의 등에서의 청소년대표 참여 확대, 취업·관광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해외봉사활동의 추진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둘째, 청소년교류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 간 청소년교류 사업의 확대 및 다변화를 추구한다.

셋째, 세계 각 국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발굴 및 참여와 아세안 내 국가와의 청소년 정기교류를 추진한다.

넷째, 정기적인 국제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청소년들의 외국에 대한 간접체험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 정보 교류기반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교류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증대 등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²⁴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2003).

²⁵ 김은정, 「청소년의 국제교류 의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교류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교류의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교류 정책의 실천을 지원하고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청소년교류 법·제도의 역사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관심정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세계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종, 성, 종교, 문화권 간의 상호협력의 당위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염원은 청소년들에 대한 국제이해교육의 강화를 통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목표에 접근하는데 효과적이라는데 주목하였다.

이러한 정신과 요구가 결집된 선언 또는 협약으로는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 12. 10 유엔총회 결의안 217 A (III)에 따라 채택)와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 그리고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ights,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1965. 12. 7 유엔총회에서 채택)이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제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18차 총회(1974)에서 국제 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권고를 채택하였고, 이 권고안은 지금도 청소년

들의 국제교류 활동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 공동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를 위한 세계교육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²⁶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가 문헌상에 언급된 것은 1919. 3. 10 한국남녀소년단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파리강화회의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기록과 1928. 10. 2 ‘세계아동예술전람회’를 개장하였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후, 몇몇 한국스카우트연맹, 대한 YWCA연합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의 청소년단체(기관)에서 실시하여 오던 국제교류가 국가 차원의 전략분야로 본격 대두된 것은 무한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경쟁력이 강조되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러한 사회 배경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실행규모는 외환위기를 맞이하였던 1997년과 1998년을 저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다.

3. 청소년교류의 법적·제도적 정의

청소년교류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앞에서 고찰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청소년교류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해 볼 때 청소년교류는 청소년육성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청소년의 간 문화적 이해, 심신과 기능의 발전적 변화, 평화적 공동체 삶의 창조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외국이나 국내의 지역간 상호 직접적 방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과 관계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정의에 대한 부분적 보충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문화관광부, 1999).

첫째, 청소년교류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지

²⁶ 전성민, “한국 청소년문화와 문화 간 소통.”

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환경개선, 청소년생활개혁과 함께 청소년육성의 중요한 부분임을 전제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교류의 주체로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청소년교류와 관계된 모든 지도자 및 이론 및 실천 담당자, 전문가, 정책가 등이여 청소년교류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행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 주체가 청소년임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복수형을 쓰지 않은 것은 청소년 개인도 청소년교류의 주체로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교류의 목적으로는 “간 문화적 이해와 심신과 기능의 발전적 변화와 평화적 공동체 삶의 창조”가 들어있다. 특히 심신과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청소년교류를 통해 자아 발견, 정서의 교감, 다양한 생활 및 사고방식의 경험, 언어능력의 신장, 국제 감각의 고양 등 청소년들의 심신과 기능에 영향을 주어 발전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교류를 통하여 평화적 공동체 삶의 부분은 21세기에 예상되는 정치·경제·사회·종교 등의 지역 간 분쟁과 갈등, 전쟁의 위협, 환경의 파괴 등의 지구촌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하여 바람직한 지구촌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넷째, 교류의 장소로는 외국과 국내의 지역 간으로 나누어 국내교류도 포함시켰다.

다섯째, 교류의 방법으로는 일방적인 방문이 아니고 방문과 초청의 상호 교류를 명시하였으며, 직접적이란 말과 기타 수단을 명시한 것은 인터넷이나 팬팔 등의 간접적 교류도 생각할 수 있고, 사이버 시대의 청소년들의 사이버 교류도 미래의 중요한 청소년교류의 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교류의 기간으로는 일정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청소년교류가 수 시간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질 수도 더 단시간이나, 장시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의 일정기간으로 말하였다.

일곱째, 교류의 내용으로는 청소년교류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나열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내용이란 포괄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여덟째, 교류의 형태로는 계획된 만남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청소년 교류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우연히 외국에서 청소년들끼리 일회적으로 목적 없이 만나는 것에는 청소년교류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류의 성격은 모든 활동들과 관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교류가 여러 다양한 청소년들의 교류관련 활동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류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활동을 제외한 모든 교류 관련 관계들, 예를 들면 각국의 청소년단체들 사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거나 청소년 관련 자료 등의 상호 교환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청소년교류의 관련 법·제도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 14조를 근거로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2003-2007)에서 국내·외 청소년교류 활동 지원을 주요한 정책 초점 중 하나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국제교류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청소년국제교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국제교류 지원센터 설치·운영,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국제교류 특성화 청소년 시설 지정·운영, 국제인턴십, 해외 자원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추진한다.

둘째,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간 청소년교류의 지속적 확대 및 다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 확대 및 다변화 유도, 청소년단체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청소년 관련 국내외 국제회의·행사 참가 또는 개최 지원, 취업관광 프로그램(Working-Holiday Program: WHP)운영 활성화한다.

셋째, 남북 청소년교류·협력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 청소년 단체교류·협력사업 지원, 남북 청소년 예술제, 평화캠프, 조국순례 대행진, 체육대회, 문화 및 역사유적지 답사 등 남북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개발·시행, 남북 청소년 만남의 집 개설 추진한다.

넷째, 교포 청소년 및 지역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교포 청소년 초청, 한민족의 문화와 언어·생활상 이해와 자부심 고취, 청소년단체 간 교류 활성화, 지역 간·도농 간 청소년교류를 확대한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정책의 실제적 실천을 위해서는 청소년국제교류 관계제도가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청소년국제교류 정책을 실천을 지원하고 정당성을 제공하는 관련법규와 행정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 정책이 제도적으로 직접 언급되어 있는 곳은 청소년기본법이며, 관련 법령으로 외교통상부에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이 있고, 교육부에 교육기본법 등 이 있다.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교류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으로써 명문화되어 있다. 제3조(정의) 2호에서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연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성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9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직접 언급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 25조 3항에도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04년 5월에 새로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교류를 청소년활동으로 재정립하였다. 청소년교류에 대해서 제 9조(청소년교류의 진흥 등) ①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②항에서는 국가는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전체 청소년들의 국내·외 교류의 진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구) 제 3조와 제 9조에서는 청소년교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 9조(청소년교류의 진흥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03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2005. 2. 10시행)**”에 명시된 청소년교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3조(정의)

3.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 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3.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해외의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파견하여 활발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중에 매년 개최하는 ‘국제청소년광장’은 1995년에 ‘21세기를 향한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의 세계화’를 시작으로 2004년 제 15회에는 “**신음하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주제 아래 참가자들이 집중적인 토론을 벌여 이를 모두 공유하고 종합한 후 ‘서울선언문’으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그 밖에도 아세안 10개국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체험과 세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청소년 교류활동, 국제워크숍, 한·일 청소년지도자회의, 토아마현 청소년교류, 한·일 청학단 교류활동 등의 국제적인 청소년 행사를 추진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중국, 핀란드, 칠레, 포르투갈 등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상호교류프로그램에 우리 청소년을 파견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의 청소년과 지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한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특히 주5일 수업시대의 도래 등 새로운 사회·제도적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비롯한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려 한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및 청소년교류활동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 2조).

둘째,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하여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종 활동정보의 제공 및 활동기록의 유지·관리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제7조 내지 제 9조).

셋째, 청소년이 국내외 다른 청소년과 사귀면서 상호 존중·협동심·공동체 의식 등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활동, 교포청소년교류, 남북청소년교류, 국내청소년교류, 도심 유스호스텔의 지정 및 청소년교류활동 사후지원 등 청소년교류활동을 진흥하도록 하였다(제59조 내지 제 67조).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명시된 청소년교류 관련 사항이다.

제 2조(정의)

4. ‘청소년교류활동’ (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 간·남북 간·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 5장 제 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 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 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 56조(교포청소년교류 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 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57조(청소년교류 활동의 사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 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58조(청소년교류 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가는 제 53조 내지 제 5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청소년교류 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59조(남·북 청소년교류 활동의 제도적 지원)

- ① 국가는 남·북 청소년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 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남·북 청소년교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교육기본법

교육부의 교육기본법 제 29조(국제교육) 3항에서는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해서 자비유학, 국비유학, 국비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에서 “국제교육의 진흥, 교육의 국제교류 활성화, 국비 유학제도 개선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을 통해 교육기본법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 29조(국제교육)

-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 1조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한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

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 6조에 명시하여 국제교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사업)

① 재단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6. 기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제 1호 내지 제 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5)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는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 및 해외인력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 1조), 이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가 연수생의 초청 및 훈련, 전문인력 파견(전문가, 의사, 태

권도 등),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개발조사사업, 문자공여사업, 프로젝트사업, 민간단체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제 7조).

제 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연수생의 초청
- 나. 전문인력의 파견
- 다. 해외봉사단의 파견
- 라. 개발조사
- 마. 재난구호
- 바. 물자·자금 및 시설의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 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 나. 외국의 원조관련기관 및 국제기구의 협력
- 다.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 라.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재외동포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야 할 것과(제 1조), 재외동포

교류사업, 조사·연구사업, 교육·문화홍보 등의 주요 사업을 행해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 7조).

제 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사업)

① 재단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외동포 교류사업
2.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4.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6.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출입국 관리법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할 때 외국참가자들의 초청과 관련된 비자문제와 공항에서의 한국 출입국과 관련된 법무부 법령을 알아두면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데 외국인 참가자 입국관련 예상치 않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입국 관리법

제 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旅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시행규칙에 제 8조와 제 11조에 사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두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 8조에도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에 대한 조항을 두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 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 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제 11조(단체사증의 발급) ① 재외공관의 장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항공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9.2.27>

(8) 학술진흥법;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의 학술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을 통해 학술교류 및 협력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학자들의 학술활동 교류 기반제공하고 공동학술대회/세미나, 공동연구, 학자상호교류 지원을 통하여 국제적

학문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국내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도모를 위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술진흥법** (2001. 4. 2 현재)의 제 7조를 근거로 국제학술교류 활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주로 공동연구 방문 연구 및 공동세미나 참가, 개최지원, 학자상호방문지원, 우수학자 상호초청 연구지원으로 항공료 또는 체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제 7조(학술교류협력계획)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그 업무를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이 될 지침을 작성한다.

1. 교수 및 연구요원의 국내외교류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대학·학술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학교·학술연구기관 및 기업이 연구인력·시설·기자재 등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술교류협력계획에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학술단체와의 학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때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시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교류 및 협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기타(자체규정 및 정관)

별도의 자체 법률이 없는 경우, “민법 제 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등

이 다양한 여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들이 설립되어 자체규정과 정관에 따라 국제교류와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1세기 국제화·지방화시대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국제화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주요기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 국제화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공무원 연수 및 교육 운영 등 지방의 국제화 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알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등 해외정보의 수집·제공,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통상활동 지원 등으로 자체 정관에 교류사업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 4조(사업) ① 재단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획·조사 및 연구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환경사업의 지원·알선
3.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지원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 해외연수·교육프로그램 운영
5. 외국의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국제교류와 협력업무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육교류 및 협력활성화를 위해 자체 규정집에 국제교육교류 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국제교육교류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육교류 관련 인적교류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육교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정부 초청 장학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계획
2.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 초청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협정, 기술협력 등 관련 인적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제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청소년의 국제친선교류진흥과 이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봉사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제사업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두고 실시하고 있다.

제 4 조(사업) ①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의 국내, 외 청소년과의 교류증진 및 해외 동포 교류사업
2. 국제교류 참가자의 사후관리로 사회봉사활동 참여
3. 교류 청소년 교육
4.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간행물 발간
5. 외국청소년 방한 시 민박제공 및 교류회 참여
6. 농, 어촌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지원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과 후원을 받아 국제교류행사를 실시하거나, 교류 상호협정을 맺은 상대국의 민간단체와 초청인원, 기간 등이 명시된 협정서를 근거로 초청과 파견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 청소년국제교류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

청소년국제교류 정책과 관련된 행정체계들을 살펴보면, 주된 정부 기관으로는 청소년국제교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문화관광부가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국 내외 청소년지원과에서 청소년교류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청소년 선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 청소년기구와의 협력,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 행사에의 파견,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관련 국제 행사 개최, 교포청소년의 육성 및 지원 등 청소년 교류에 관한 종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제교류사업으로서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AY)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YC)의 회원으로서 UN 등 각종 국제기구 개최, 세계 각 국과의 정기적, 비정기적인 청소년 지도자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의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정부 기관으로는 외교통상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이 있다.

외교통상부는 문화외교국의 홍보과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외교관계를 활용하여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업무에 대한 협조·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국가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 한국국제협력단(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3개 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지원하고 있다. 또한 문화외교가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확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외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시킨다.

둘째, 우리 문화의 해외소개 기회 확대 및 우리 대중문화의 대외경쟁력 향상시킨다.

셋째,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문화·예술·스포츠·관광·청소년교류 등 다양한 문화교류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화시대에의 적극 대처 등을 기본목표로 문화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청소년 정책의 기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각국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한편, 외국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실상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간의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정부는 2002년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모로코, 핀란드, 베트남, 헝가리, 몽골, 러시아, 멕시코, 칠레, 아세안 회원국 등과 600여명 규모의 상호교류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일본과 청소년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양국 정부 주관의 한·일 대학생교류 사업에 따라 각 20명의 대학생대표단이 한·일 양국을 상호 방문하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은 2002 월드컵 공동개최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하여 2002년 7월 한·일 정상은 “한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정부는 2003년부터 매년 스포츠 및 청소년 교류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키로 합의하였다. 중국과의 청소년 교류도 1998년 10월 12일 한·중 양국 외교부장관이 청소년교류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중 수교이후 실시되어 온 양국 청소년 교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양국은 동 양해각서에 따라 과거 20명씩 교환하여온 청소년 대표단의 규모를 2001년부터는 4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며, 2002년 한·중 국민교류의 해를 맞아 한·중 청년공무원 대표단, 청소년 및 교사 교류 등 다양한 인적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양국 정부가 약정을 통해 중국청년대표단을 3년간 500명씩 초청하는데 협정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ASEAN 10개국과의 청소년교류 사업은 1996년 한·ASEAN 확대외무장관회담 시 우리 측 제의에 따라 2002년에도 44명이 ASEAN

회원국 6개국을 방문했으며, ASEAN 청소년 120명을 초청한 바 있다. 청소년 교류가 청소년들 간의 우의증진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 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긴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여,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는 국제교육협력관실 내외 국제교육협력담당관과 재외동포교육 담당관에서는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교육협력담당관에서는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교육 분야 대외 개방 총괄 및 국외 교육 관련 정보·자료수집, 교육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추진,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육교류사업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외 한국학 연구진흥 및 한국학 보급,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운영지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 교육담당관에서는 국외유학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국내유학 외국인 관리, 정부 초청 장학생사업, 외국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과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지원, 귀국자녀 교육지원, 재외동포 교육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지원, 국제교육진흥원의 운영 지원, 해외주재 교육관 및 공무원의 국외 파견 지원 등의 일을 수행한다. 또한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국제교육진흥원(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을 두어 재외국민의 교육, 국제교육교류 및 협력, 교원 및 대학 등의 국외연수, 국비유학생 선발 관리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협력업무추진에 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 및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국제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제화를 이끌 인재 육성, 해외정보 관리 및 자료 제공, 국제교류지원사업, 국제통상 업무 지원, 해외사무소 및 해외명예주재원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6. 청소년교류의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청소년교류 관련 법·제도의 정비

이상의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법규들을 살펴보면, 법적 내용이 너무 취약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추상적인 명시만 있을 뿐 궁극적 목적에 대한 명시와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명시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국제교류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의 정비가 이루어져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의의 및 목적 명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 시행령에서 의무·법적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나. 행정기능 및 지원체계의 강화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된 행정 부처들은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과정에서 서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입장에서만 청소년교류를 이해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국제교류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 문화관광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되는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총괄적인 관장이 미약한 실정이다. 정부는 청소년 정책 추진 방향의 하나로 청소년의 국제감각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할 정부의 전담조직과 예산은 축소를 거듭해 오고 있다.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와 관심의 증가와 시대적 필요성이 라는 현실에 비해 국제교류에 대한 행정적 체계가 취약한 실정임을 인식하여 정부는 청소년국제교류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교류 활동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

어야 한다. 청소년교류 활동의 대상자로서의 청소년들의 요구나 특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책 및 행정지원체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화된 프로그램개발과 지원방안의 다원화 및 정보접근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의 청소년관련 정부 부서들 사이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구축과 함께 청소년교류의 지원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청소년 전담부서인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2002)에 따르면 2001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을 활용한 청소년육성 지원에서도 전체예산 72억원 중에서 4.2%에 해당하는 3억원이 지원되었을 뿐이다. 2003년도 예산내역에 따르면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국고예산은 250억원이며, 청소년교류에 배정된 예산은 9억 2천만원으로 청소년 육성 전체 국고예산의 3.7%에 해당된다.

정부가 청소년교류를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청소년교류를 지원하는 전담하는 기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 교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점을 청소년교류 특성화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유기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다. 청소년교류 관련 시설 및 사후관리 강화

청소년교류가 특별한 국제행사에 참여하여만 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에 있는 한국주재 외국인과 연계하여 생활권내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수련시설내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교류의 사전교육과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 교류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

라. 인터넷 사이트 콘텐츠 개발 및 참가자 전산관리

청소년교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산뱅크제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http://www.iye.go.kr>)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제교류의 유형과 수행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홈페이지의 운영과 함께 오프라인 상에서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홈페이지의 소그룹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상의 국제교류 참가팀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제교류 사후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이 지속적인 국제교류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참가자에 대한 데이터가 전산관리되어 국제교류 사전교육과 자원봉사 및 민박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국제교류의 창구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 홈페이지의 언어가 중국어, 일어, 불어 등 주요 언어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관련단체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교류는 교류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들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호주체적인 협력관계보다는 종속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청소년단체들이 정부부처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단체 교류가 점점 확대됨에 따른 정부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체계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교류 관련 예산과 인적·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교류사업을 중점

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단체들 간의 연계협력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단체들은 서로 정보와 경험이 교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교류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주재외국대사관 및 상사원, 외국인학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류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바. 전문교류인력 양성

청소년교류 활동의 전문영역 및 지도력에 대한 연수기능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교류 활동의 질과 교육적 효과의 정도는 전문지도력의 안목과 역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지도력에 대한 연수기능은 평생학습자로서의 자기개발에도 도움이 되며, 전문지도력을 통한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청소년교류의 시행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양질의 청소년교류 지도자를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단체 간의 경험교환 및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사. 국가 간 협력확대

동아시아 지역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한다.

유럽청소년교류가 유럽통합의 기초가 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할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는 동아시아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V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분석: 중국*

* 이 내용은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유학하고 있는
최금해 박사(중국)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1. 중국의 국제교류의 의의

국제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이다. 거기에서는 “물건”, “화폐”는 물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서로 다른 문화속 에서 이루어진 “정보”가 교환되고, 협조되어 서로 부딪치는 것이다.²⁷

중국에서는 국제교류를 대중(公衆)외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고대사회에서는 외교를 “외사(外事)”라고 부르고 청(淸)나라 말기에는 “외무(外務)”라고 부르기도 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외교를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 간의 왕래(交往)와 교섭(交涉)이라고 한다. 이런 외교는 중세기 말기 특히 최근 국제관계가 발전한 결과이다. 국내외에서 외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광의적인 외교는 어떤 주권국가를 주체로 하여 평화방식을 통해서 국가간의 관계와 국제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차대전 후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 현대의 외교방식이 점차 형성 되었다. 현대의 외교방식은 전통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과 인원들의 정부행위뿐만 아니라 다변다교(多邊多交), 수뇌(首腦)간 외교, 경제외교와 대중외교 등 새로운 외교방식도 포함하고 있다.²⁸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제적인 업무가 다양화되면서 외부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 증가와 함께 문화교류 참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통신기술과 각종 정보전달방식도 국제교류를 하는 데 물질적인 기초를 제공하였고, 외교관계에서 사람들의 관심증대와 함께 국제교류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국제교류는 소수의 정치가와 외교가들의 활동차원을 넘어 개인 간, 민간 단체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시킴으로써 국가와 인민들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국가의 대외영향력과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도 한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각 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국제지위와 대외정책목표

²⁷ 이은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²⁸ 呂嵐, 「區縣經濟發展中青年國際交流与政府功能研究」, (中國人民大學 公共管理碩士論文, 2003).

를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제교류를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고 부르고 어떤 학자들은 국제교류를 ‘전통적인 외교범위를 넘은 국제관계’로 보기도 한다. 국제교류는 정부가 다른 나라의 대중여론에 대한 육성, 정부범위 외에서 한 나라의 각종 집단과 이익과 다른 나라의 각종 집단과 이익간의 상호영향, 정보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정보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공공외교(국제교류)를 국가외교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국제교류 활동에 있어서 수만 명의 인원과 매년 수억 달러의 재정교부금을 투입하고 있다.

발전 단계에 있는 나라들은 재정과 기술상의 한계 때문에 공공외교에 있어서 발전한 나라보다 적은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세계 각국의 선진 기술과 문화를 수용하고 국제변화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국가주권과 민족존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세계가 자기나라의 내외정책과 국가의 진실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의 국제교류는 정부, 반(半)정부와 민간의 다방면의 국제교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국제교류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대외전파(傳播)이다. 즉, 정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각종 전파수단을 이용해서 중국의 발전과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세계에 중국을 알린다. 두 번째는 국제문화관계를 발전시킨다. 즉, 각종 문화교류와 합작계획을 통해서 민중들 간의 연결을 증진하고 서로 각 민족의 장점을 배우고 각 민족의 소질을 제고하고 세계의 우의와 평화를 증진한다.

새로운 시기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사업의 필요와 국제형세의 새로운 발전에 따라 1996년 10월 말까지 중국은 이미 160개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더 많은 나라와 지역과 경제무역왕래를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의 우호교류도 더욱 보편화되면서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더 많은 주도권을 가졌고 더 많은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광범위한 국제교류의 발전을 통하여 중국은 더욱 발전된 세계의 선진적인 과학기술지식과 관리경험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

라 중국의 국력을 제고시켜 중국만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기회로 이용하기도 했다.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며 민족의 희망이다. WTO 가입 후 중국경제의 발전,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중국의 전면적인 소강(小康)상태란 사회목표의 확립과 세계경제의 지구화 영향에 따라 중국에서는 세계를 많이 알고 선진적인 기능과 우수한 소질을 가진 인적자원과 국제관계규칙과 외국어에 능통한 청소년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국제교류활동은 소질 높은 청년인재들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등소평은 "교육은 현대화를 향해야 하고 세계를 향해야 하고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교의 사상품덕, 정치와 이론교육의 개혁에 관한 통지에서 중국공산당중앙에서는 "학교에서는 응당히 학생들에게 현대세계의 정치경제의 기본상황과 국제관계의 기본지식을 소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대외개방이란 환경 속에서 견고한 입장과 강한 적응능력을 갖도록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청년단 15회 대회에서는 경제지구화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새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국제청년인재들의 교류를 크게 지지하고 서로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중국 청년들이 세계청년들과 함께 인류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중국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는 새 세기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수요이고 국제청년인재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욕구이며 세계의 평화와 우의의 필연선택이며 국제교류에 매우 깊은 의의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2. 중국 청소년국제교류의 효과

국제교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제적인 보장, 정책상의 지지와 인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사회효과와 이익(效益), 경제효

과와 이익과 인재효과와 이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청년국제교류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이익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가. 사회적 효과와 이익

(1) 국가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지리 상의 격리, 언어, 문화, 의식형태와 발전수준상의 차이 때문에 국가 간의 교류협작에는 많은 장애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요소가 비교적 적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는 정부 간의 교류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신뢰도와 진실도도 높고 교류의 범위와 영향도 더욱 큰 활동이다.

청년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에 중국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다. 중국은 5,000년의 긴 역사와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 중국은 세계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의 모든 사업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류를 통해 세계는 전면적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와 새시기의 발전을 이해하고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다.

중국 청년들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국제정세의 상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각 나라의 전통문화와 풍습을 알 수 있고 개방적인 생각으로 세계를 관찰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국제간의 교류와 협작을 촉진할 수 있다.

(2) 국가 간의 교량역할 및 정치관계 형성에 유리하다.

세계 각 나라의 의식형태, 사상문화, 발전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세계 각 나라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이상(理想)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국제교류는 청소년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평화와 우호에 다리를 세웠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깊은 우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국제교류를 하는 청소년들은 외교관은 아니지만 때로는 외교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들 간의 우호사절과 민족의 우수문화전통의 전파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국가의 우호관계의 문을 여는 선행자가 될 수 있다.

(3) 세계적인 과제의 연구와 협작을 촉진한다.

지구화시대에 따라 지구화와 관련된 과제에 대한 연구와 협작은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선진국과 발전 중인 국가 간에 복잡한 이익충돌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발전을 병행하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국제적인 협작을 전개하고 공동대책을 추구하고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고 각 나라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적인 공약의 제정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는 청소년들부터 시작하여 청소년들의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국제교류는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나. 경제효과와 이익

(1) 세계경제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의 개방적이고 서로 연결하고 있는 세계이다. 모든 나라에서는 국가의 경제발전, 새로운 과학기술의 이용, 자원의 탐구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 평등하고 서로 이익을 주는 원칙 하에서 교류하고 협작을 한다. 생산사회화와 경제지구화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의 경제, 기술의 연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각 국가 간의 상호 의존정도는 높아지고 있고 생산국제화는 인류사회의 생산력발전의 필연결과이다.

국제경제연합발전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현저한 추세를 볼 수

있다. 첫째, 경제가 더 발달한 나라일수록 국제 간의 경제연계는 더욱 광범위하다. 둘째, 경제발전이 더 빠른 나라일수록 외국자본, 기술과 대외무역을 끌어들이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다. 청년국제교류의 전개는 국제경제관계를 더 촉진하고 지구경제의 일체화(一体化)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중국의 WTO가입 후 새로운 형식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청년국제교류는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의식 고취와 세계의 경제동향에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제시장의 다양화, 다방면의 욕구를 연구하고 중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와 다양한 협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선진적인 기술과 관리경험을 배우는데 있어서 유리하다.

대외개방은 중국의 확고한 기본정책이다. 덩소평은 "우리는 내부에서 경제를 활발하게 이루는 방침을 제정하는 동시에 대외경제를 개방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문을 닫고 건설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²⁹ 역설하였다. 또한 중국은 세계에서 모든 선진적인 기술과 관리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현대화건설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청년국제교류활동은 중국과 다른 나라간의 교류와 협작을 촉진하였으며,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증진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청소년들은 서구의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관리경험을 접촉하면서 인류가 창조한 모든 우수한 문화성과를 배우고 시야와 지식영역을 넓히고 경쟁과 도전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²⁹ 鄧小平, 『鄧小平文選』第3卷, 第282頁, (人民出版社, 1993年版)

(3)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경제란 사회노동이 지역으로 분담(分工)하는 기초하에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형성된 특색 있고 밀접한 경제연결을 가지고 있는 지역생산종합체이다.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서는 일정한 경제지역 혹은 행정지역에 의존하는 것, 제한된 자원과 공간의 합리적인 배치와 산업간의 효율적인 조합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 각종 자원요소와 산업간, 지역간의 경제기술연결, 시장공급연결을 기본 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경제는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써 전국 경제의 작은 체계이며 지역경제의 조화와 통일성은 국민경제의 정상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경제의 발전에는 구체적인 지역상황에 대해서 언급해야 한다. 즉, 지역 지리, 사회, 경제체제환경과 지역 외(기타 지역환경과 국제환경)에서 본 지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인 촉진요소와 제약요소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교류는 지역 간 우세비교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고 지역경제구조를 조정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역경제발전방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발전수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진적인 경험을 참고하고 지역의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다. 인재개발 효과

(1) 청년국제인재의 배양을 강화한다.

청년국제교류는 젊은 인재들을 배양하는데 있어서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과학기술, 국제경제무역, 금융, 기업관리 등 영역에서 외향적인 국제인재를 배양하는 데 유리하고 중국의 WTO의 가입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욕구에 적응하다. 미래의 세계경쟁은 최종 인재의 경쟁이다.

강택민(江澤民)주석은 16회 대표대회에서 중국의 건설사업은 수억 명의 소질이 높은 노동자, 천백만 명의 전문가와 많은 창조력이 있는 인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³⁰ 이러한 차원에서 청소년국제교류는 서구 발전국가의 청년들의 교육경험을 받아들여 과학적인 청년인재배양체계를 확립하고 국제규칙과 관례에 능통하며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한 국제적인 인재를 배양하여 중국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소년들의 외국어수준과 인간교류능력을 제고한다.

청소년국제교류의 전개는 청소년들에게 외국어를 신속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외국어환경에 적응하고 짧은 시간에 외국어에 대한 감각과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특히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은 실용적인 생활언어와 생활습관 등을 배우는 과정에서 상호 교류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대표적인 중국 청소년국제교류 단체

중국의 청소년국제교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청소년국제교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YFU국제교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아래에서는 우선 YFU국제교류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중국 YFU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1) YFU국제교류의 역사와 현황

YFU국제교류(YOUTH FOR UNDERSTANDING INTERNATIONAL EXCHANGE)는 1951년 미국 국무성의 후원아래 창설된 비영리 민간교류기관(Non-profit Organization)으로서 현재 53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국제교류기관이다.³¹

³⁰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02年11月8日).

YFU국제교류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독일 청소년들 간의 상호교류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적대국과의 화해를 바탕으로 각 나라 간의 민간교류와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의 평화를 촉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1950년대 초기에 이런 청소년교류를 미국정부에서 후원을 했으며, YFU는 우수한 국제학생들을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민박가정과 학교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1956년부터 미국정부의 후원이 중단되었고 대신 미국국무성에서 민간의 후원자금을 기반으로 국제교류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런 미국과 독일간에 전쟁으로 받은 상처를 없애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국제교류는 점차 가정을 기본단위로 하는 교류계획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1년에 약 7,000명 이상의 교류학생을 60개국에서 상호간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날 YFU는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면에서 가장 크며 널리 알려져 있는 국제교류기구 중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 1951년부터 20여 만명의 국제학생들이 YFU의 교류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핀란드 등 많은 국가정부와 기업들이 상당한 수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100여개의 대학에서는 YFU 교류학생들에게 특수한 입학혜택과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학생들의 교류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YFU-Greater China(YOUTH FOR UNDERSTANDING-GREATER CHINA)는 홍콩에서 등록하여 전문적으로 국제교류학생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미국 YFU와의 협작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고등학생문화교류프로그램은 YFU-Greater China가 항상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사회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1997년의 성립부터 지금까지 YFU-Greater China는 성공적으로 각 지역의 약 300명의

³¹ <http://www.yfukorea.org/new4.htm>

고등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 문화교류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미국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중국과 다른 교육체제와 교육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교류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의 미국에서의 생활과 공부를 통해 영어수준 특히 영어회화능력이 크게 발전되었다.

그 외 수 많은 귀국 학생들과 부모들은 “한 학기동안의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독립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자립의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을 통해 자기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1년 YFU-Greater China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개최한 YFU국제연회에서 정식으로 “국제교류협작 및 공동인식협정의 건립(AICCB)”에 서명을 하여 YFU의 한 구성원으로 되었다. 그 뒤를 이어 YFU독일, YFU프랑스, YFU스위스, YFU호주, YFU뉴질랜드, YFU일본, YFU한국 등 나라에서 YFU-Greater China와 협상을 통해 국가간의 교류계획을 합작하여 발전시키기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2년에는 미국교환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20여명의 중국 고등학생들은 교환으로 독일에 가서 한 학기동안의 교류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동시에 20여명의 독일학생, 10여명의 일본학생, 30여명의 한국학생과 프랑스,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교환으로 중국으로 오게 된 학생들이 여름학기에 단기간의 교류활동에 참가하였다.

현재 YFU-Greater China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동안 외국생활을 하는 프로그램 외 YFU미국지방대학프로그램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단기간교류프로그램도 있다. 1999년부터 YFU-Greater China는 매년마다 COCA CODA, JONHSON & JONHSON, PHILLIP MORRIS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중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교류활동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YFU-Greater China의 총본부는 북경에 있으며, 광주(广州), 심천(深

圳), 상해(上海), 광서(广西)와 대만(台湾) 등 지역에 협력기관을 두고 있다.

(2) 한·중 국가 간 청소년교류 단체

한·중 교류는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여 오늘 날 사회 발전의 중요한 축인 정보화 인터넷 세상을 주도하고 상대국의 사회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이러한 한·중 청소년교류가 더욱더 발전하여 양국 청소년들이 아시아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실질적이 되고 계속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실지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간의 대표적인 청소년교류 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송경령기금회(宋慶齡基金會)

송경령기금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초대수석 孫文의 부인 송경령(宋慶齡)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하게 되었다. 송경령기금회는 국내외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인사들과 교류하며,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이다.

이 재단의 조직은 명예주석, 주석, 부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활동은 주석 및 부주석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운영·관리되는 독립적 사회단체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소년·아동교육, 과학기술과 복리사업, 소년·아동 심신건강의 발전 촉진, 국제교류 활성화와 세계평화의 유지이다.

한국국제청소년교류의 주관단체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Foundation for the Rural Youth)은 중국 송경령기금회(宋慶齡基金會)와 정기 교류 협정을 체결한 재단이다. 이 재단에서는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 한, 중국가 간 청소년 교류 사업(중국청소년 방한)을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하였다.

■ 중화전국청년연합회(中華全國青年聯合會)

중화전국청년연합회에서는 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를 축하하면서 양국 간 청소년교류를 제의하였고, 1993년부터 매년 20명씩(청소년 17명, 지도자 3명) 10일 간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중화전국청년연합회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을 핵심 조직으로 하여 각 청소년단체들이 연합된 조직으로써 중국청소년들이 신앙·당파·사회적 지위·직업·민족 간의 차이를 초월한 애국주의, 통일전선의 청소년연합 조직이다.

이 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이 국가의 개혁과 경제건설에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 ② 교육·고용·생활 등에서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여론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고 제공한다.
- ③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에 보다 나은 성과를 얻도록 지원한다.
- ④ 여행뿐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 연대 활동을 지원한다.
- ⑤ 다양한 민족성과 다른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과 연대화·소수민족거주 지역 경제발전과 문화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사업을 실시한다.
- ⑥ 해외 청소년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 청소년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 ⑦ 세계평화보호와 인류 진보를 추진하고 자주독립·평화우호·상호존중·평등합작의 기초 위에 다양한 국가의 지역의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간의 우의와 협조를 강화한다.

※ 한중청소년국제교류 사례

2001년 9월 3일에서 12일까지 문화관광부와 중화전국청년연합회의 합의로 시행되었던 한-중 청소년 교류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청소년대표인 안산동산고등학교 3학년 문충만은 중국에서의 방문을 통해 "이번 일정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세계를 꿈꾸는 또 한 명의 대한민국 청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서로를 잘 몰랐던 우리 단원들이었지만, 사실 너무도 다른 곳에서 자랐고 생활했던 우리들... 난 사실 이런 게 좋았다. 서로를 보살피 주고 감싸주었던 모습과 남을 챙겨 주고 남을 위한 배려를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모습들을 나는 기억한다”고 말했다.³²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 유현숙은 중국을 다녀와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건물이나 탑들을 돋보이게 하는 조명들 덕분에 천안문 광장의 야경은 참 멋있었다. 나는 야경이 아름다운 곳을 좋아한다. 이제 북경은 그런 곳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중국여행은 내 평생에 최고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여행이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아직은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우물안 개구리 같았던 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중국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년 박세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서울 밖으로는 잘 가보지 않은 나에게..한국에서는 서울이라는 연못에만 있던 나에게 중국은 하나의 바다일 수밖에 없었다. 천안문 광장, 만리장성, 이화원..모두 TV와 책에서만 보던 것들..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큰 광장, 엄청난 크기의 성, 어딜 보나 포도밭에 안 보이는 포도농장, 몇 만 명이 현재까지도 살고 있는 고성..중국에서 본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한정된 것만 보고 살았나..하는 생각에 창피했다”고 국제교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가 증진하였다고 했다.

³² 문화관광부, “2001년도 한국·중국교류(파견)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2001).

4. 중국 청년국제교류의 추진 방향

중국의 WTO가입, 개혁개방과 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점차 건립과 개선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따라 청년국제교류에는 새롭고 더 높은 욕구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방하고 청년국제교류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탐구해야 한다.

(1) 단일 패턴에서 다중 패턴으로 변화한다.

개혁개방 초기에 국제교류의 방식은 매우 단기간으로 추진되었으며, 파견인원은 주로 국가에서 정해주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인원 수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당시 중국의 과학기술과 연구수준은 전체적으로 발전국가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파견된 사람들의 주요임무도 주로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출국하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며, 파견인원은 주로 기관 간부이거나 학교,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이었고 일반 청년들이 출국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개혁개방이 점차 가속화 되면서 국제교류와 협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청소년국제교류는 예전의 단순화 방식에서 다면화된 방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우선 범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정부기관과 지역 청년 등 다양한 범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히고 역량을 강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내용면에서도 단순히 외국을 방문하여 배우는 것에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 교육, 문화, 체육, 선전활동교류, 경제무역교류, 자원봉사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이 추진되었다. 그 밖에도 행사참관, 회의, 민박 등 다양한 형식의 국제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사고력과 소질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을 국제적인 인재로 양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일방에서 쌍방으로 변화한다.

예전의 청년국제교류는 주로 중국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외국 연수를 통해 국제적인 상황과 정세를 이해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교류는 쌍방의 교류이어야 한다. 즉, ‘나가고’ 또 ‘초청해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외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중국의 발전상황을 체험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 많은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전통문화와 중국의 발전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귀국 후 중국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과학기술과 연구수준은 최근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떤 영역은 국제적으로 상위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쌍방협작 및 상호교류가 가능해지고 이는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 프로젝트, 의료위생, 언어교육의 협작 및 교류는 점차 쌍방향 혹은 다방향으로 바뀌면서 국제협작과 교류의 영향과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할 때이다.

(3)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바뀐다.

예전의 청소년교류는 출국 기회가 부족한데다 시간이 짧고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외교적인 차원의 국제적인 인재가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수준의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각 나라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을 외국에 보내 시야를 넓히고 지식을 습득하여 능력을 제고하는 국제적 인재 시범효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었다.

청년국제교류 규모의 확장에는 국제교류 프로젝트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단기적인 참관에서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의 교류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은 외국사회의 문화, 역사, 과학기술의 발전, 사상의식 등 다방면의 상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발전추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외국생활은 청년의 외국어수

준의 제고에 있어서 큰 촉진역할을 할 수 있다.

(4) 단기배치에서 프로젝트관리로 바뀐다.

이전의 청소년국제교류는 국제교류 담당자가 사업을 통보받은 후에야 임시적으로 교류인원을 선발하고 조직하여 간단한 훈련과 정치심사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견하였다. 그 결과 업무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목적도 뚜렷하지 않았으며, 그 효과도 크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국제정세에 부응하기 위한 청소년국제교류는 프로젝트관리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완전하고 체계적인 조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프로젝트관리에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과정이 있다.

첫째, 시작과정이다. 프로젝트 관리 집단을 조직하여 시작하는 단계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둘째, 계획과정이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의하고 평가하며 프로젝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일 좋은 전략을 선택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셋째, 실행과정이다. 모든 유용한 자원을 동원하고 인원, 정보 기술 등을 조화롭게 조직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넷째, 통제 및 평가과정이다. 프로젝트의 방향 및 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계획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다.

다섯째, 종료과정이다. 실행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정보 피드백 과정을 통해 다음 프로젝트의 실시에도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단계이다.

청소년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실시과정에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하고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 계획, 조정, 인원관리, 예산지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실시결과 및 참가자들의 업무일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여 청소년국제교류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

(5) 국가주도에서 시장경제 위주로 바뀐다.

예전의 국제교류는 주로 국가에서 파견하고 국가의 지정된 계획에 따라 파견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혁개방에 따라 국제교류방식은 점차 변모하게 되었으며, 국가에서 파견하는 방식 외에 기업에서 파견하는 방식 혹은 비용을 자기가 지적 부담하는 자비출국 등 다양한 교류방식 등이 등장하였다. 교류의 목적도 단순한 유학뿐만 아니라 합작을 통한 공동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중국의 WTO가입과 완전한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청소년 국제교류도 단순히 정해진 계획에서 다양한 교류방식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화와 시장화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사회화에는 인원의 사회화와 조직의 사회화를 포함하고 있다. 인원의 사회화에는 참가인원이 정부에서 파견한 기관 간부, 연구원에서 사회에 있는 청소년(중학생, 대학생, 기업 직원, 지역 청년 등)까지 확장되었다.

조직의 사회화에는 청년국제교류의 조직업무를 정부의 외사처에서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에서 사회단체, 청년협회, 청년서비스센터 등 비정부조직까지 확장되었다. 시장화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장화와 출자(出資)예산의 시장화가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시장화는 지역발전요구에 따라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다른 국가와의 합작을 증대하고, 경제무역, 교육 등 활동을 전개하며 시장의 욕구를 만족하는 것이다. 출자(出資)예산의 시장화는 출자 경로를 넓히고 완전히 정부와 기업에서 출자하는 현상을 바꾸고 시장경제의 형태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 자기비용부담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5. 청년국제교류에서 중국정부의 기능과 역할

가. 법제보장을 강화하고 개선한다.

외부적으로 국제교류는 국가의 주권, 민족의 존엄과 국제이미지를 구현하며, 내부적으로는 국가의 안전, 국민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교류 관련 업무를 잘 실행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현대화건설을 촉진하며 중국의 새 세기 전략 실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제교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법률, 법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중국의 국가주권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이 부담해야 할 국제의무를 엄격히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기본기능 면에서 정부는 정책제도보장의 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고 섭외법제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법에 의해 섭외사무를 관리하고 시장경제와 WTO 규칙에 따라 공평하고 예견할 수 있는 법제환경을 조성하며, 감시제어체계를 건립하고 국가의 이익추구 원칙하에 효과적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치환경과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나. 서비스와 검사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서 정부는 서비스와 검사관리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하고 국제교류가 국가, 지역의 경제발전에 촉진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국제교류가 국제적인 청소년인재의 양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청년국제교류를 통해 창출된 경제효과와 이익, 사회효과와 이익과 인재효과와 이익 등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교류업무를 지도하는 역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의 전개상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구(區) 현(縣)정부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청소년 인재배양과 과학 기술교류를 위한 청년국제교류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활동 및 구체적인 활동 내용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를 통해 청년들이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국제교류를 위한 자금제공을 통해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새로운 외사관리체제를 창조한다.

외사관리는 형세의 발전욕구에 적응해야 하고 외사관리체제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1996년 중국중앙관공서, 국무원관공서에서는 ‘지방외사업무에 관한 몇 가지 규정(關於地方外事工作的若干規定)’을 인쇄 배포하였고, 북경시는 본 규정을 따라 1997년에 ‘북경시 외사업무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關於加強北京市外事工作的若干規定)’을 인쇄 배포하였다. 이 두 가지 규정은 외사업무를 전개하는 중요한 관리문서이다. 이외, ‘중국에 있는 외국인재들의 취업관리규정(外國人才在中國就業管理規定)’, ‘외국투자기업외국전문가관리방법(外商投資企業外國專家管理規定)’ 등 문건도 모두 1996년에 실행되었고, 국제와 국내의 새로운 환경에 마주치기 위해 외사업무도 새로운 형세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서는 2002년에 ‘외국국적을 가진 인재들과 외국 투자에 관해 입국과 편리한 거주를 제공하는 규정(關於爲外國籍高層次人才和投資都提供入境和居留便利的規定)’이 등장되었고 북경시에서도 이 규정과 상응하여 ‘외국인과 대만, 홍콩과 마카오인들의 응업(應業)수속과 관련된 문제를 간소하게 처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簡化辦理外國人和台港澳人員應業手續有關問題的通知)’도 실행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모두 형세의 발전에 따라 외국계의 인재들과 인국인 투자자들은 더 많이 끌어와서 중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투자하기 위해 일부분 조항들을 수정한 것이다.

라. NGO 조직을 발전시킨다.

《UN헌장》 제 71조에서는 NGO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NGO는 국제범위 내에서 비영리활동을 종사하는 정부외의 모든 조직이며 이 조직에서는 각종 자선조직, 원조조직,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합작협회, 경영협회 등을 포함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 특히 시장경제체계가 비교적 완전한 국가에서 NGO는 국가의 정치경제와 사회생활 중의 중요한 조직형태가 되었고 NGO의 영향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에 따라 NGO는 점차 발전되고 확대되어 있으면서 거대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희망공정" 활동, 중국청년자원봉사자협회에서 전개한 청년자원봉사자행동 등등이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와 비교하면 중국의 NGO는 수량, 품질, 수입원과 활동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개선에 따라 NGO는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청소년국제교류에 있어서 NGO의 활동과 역할은 더욱 확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청년연합회, 청소년서비스센터, 청년자원봉사자협회 등과 같은 기관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청소년국제교류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V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분석: 일본*

* 이 내용은 현재 한국청소년개발원 초빙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강영배 박사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1.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일본의 인식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 장벽을 넘어 현 시대, 현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의 공통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지역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범세계적 사고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및 성인들의 중요한 역할로 부상되고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선 청소년 국제 교류의 정의에 관한 기본적 합의점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윤철경(2000:10)은 청소년 국제 교류를 “청소년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 개인, 청소년 대표 또는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단체나 사회단체 등 청소년 집단의 인적, 물질, 문화적, 사상적인 교류활동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및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여건 조성 사업을 의미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조영승(1999:57-58)은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교류적 맥락’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청소년교류를 “청소년 육성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청소년 간 문화적 이해, 심신과 기능의 발전적 변화, 평화적 공동체 삶의 참조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외국이나 국내의지역간 상호 직접적 방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과 관계들”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정의에서 도출될 수 있는 중요한 착안점은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 교류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주체가 일정부분 계획성 내지는 의도성을 지니고, 교류의 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류의 과정을 통하여 일정부분 성과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청소년국제교류, 특히 교류의 법적 근거 및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에 있어서도 위의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화 및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해지고 있으며, 아울러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국제

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일본의 국제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조 속에 추진되고 있다.³³

첫째, 유럽, 서구 중심의 국제화, 즉 ‘탈아시아’에서 ‘아시아의 일원’이 되기 위한 국제화이다. 현재 일본 사회는 서구지향의 근대화를 완료한 상태로 진단되며 세계 경제가 블록화 되어 가는 정치·경제적 현실 속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축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류 증대와 일본 이해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국제화는 ‘지역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외국인 많이 찾아오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외국인 거주자 및 방문자 수는 지역의 국제화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며 외국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시설의 제공을 자치체의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지역을 방문, 거주하는 외국인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상호·공존하는 지역의 건설이 주요 정책지표이다.

셋째, 일본의 국제화는 ‘보통사람의 국제화’와, ‘세계 시민’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발전의 수준은 일반 시민의 의식과 태도에 의해 뒷받침된다. 일반시민의 국제화된 의식과 태도의 보유는 ‘지구촌 시대의 선진 시민’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역’의 국제교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역시 민박과 교류회 등 지역 주민과 외국인과의 교류기회를 증대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한일교류’에 대한 관점은 ‘양국’관계 보다는 ‘다국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한일관계를 ‘양국’관계를 넘어 넓은 지역적·세계적 지평속에서 자리매김하려고 시도한다. 역사·과거 문제가 얽히는 양국관계보다는 인권, 환경, 자원 등의 지국적 문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보장

³³ 윤철경, “청소년국제교류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99).

과 경제협력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 또는 세계주의(globalism)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청소년국제교류는 교육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 의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최근 일본 정부는 교육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혁의 과제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함양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육 개념의 4대 이념³⁴ 중 ‘사회성’ 및 ‘국제성’의 함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일본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을 갖춘 일본 시민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일본 정부의 청소년 국제 교류의 실태 및 추진 체계, 역사 등을 검토한 후, 청소년의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원활한 국제교류 추진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 청소년국제교류의 역사, 실태 및 추진체계

가. 청소년국제교류의 역사

일본 청소년국제 교류의 역사를 내각부가 실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V-1>과 같다. 내각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1959년 당시 황태자의 결혼 기념으로 내각부 총리대신이 발의에 의해 ‘청소년해외파견’사업이 개시된 것을 발단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메이지 백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의 배’사업이 개시되었다. ‘청년해외파견’사업과 ‘청년의 배’ 사업은 둘 다 그 당시 일본의 젊은이

³⁴ 일본은 교육 개혁의 4대 이념으로 ‘개성’과 ‘능력’의 존중, ‘사회성’과 ‘국제성’의 함양, ‘다양성’과 ‘선택’의 존중 그리고 ‘공개’와 ‘평가’의 추진을 꼽고 있다.

들이 자력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곤란했던 시기에 정부가 사업 실시의 주체가 되어 일본 청소년들을 해외에 파견한 사업으로, 그 당시 일본 국내의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준 사업으로 1987년까지 실시되었다.

<표 V-1> 일본 정부의 청소년 국제 교류의 역사

년도	교류 사업 내용
1959	「청년해외파견」사업 실시
1961	「청년해외파견」사업 참가 청년들에 의한 「일본청년해외파견청우회(靑友會)」 축발
1962	「해외청년초청」사업 개시
1967	「청년의 배」사업 개시
1968	「청년의 배」참가 청소년들에 의한 「청년의 배 모임」발족
1974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사업 개시
1978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참가청년연대강화회의의 개최를 시작
1979	「일본·중국 청년 친선 교류」사업 개시
1985	「일본 청년 해외파견 청우회」와 「청년의 배 모임」을 통합하여 「일본청소년국제교류기구」를 발족
1987	「일본·한국 청소년 친선 교류」사업 개시, SSEAYP(The Ship for Southeast Asian Youth Program) International 설립
1988	제1회 SIGA(SSEAYP International General Assembly) 개최
1989	「세계 청년의 배」사업 개최
1994	「국제청소년육성교류」사업 개시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 설립
1996	SWYAA(Ship for World Youth Alumni Association) 사업 개시
2001	「21세기 르네상스 청소년 리더 초청」사업 개시
2002	「청소년 사회활동 협력 지도자(co-leader) 육성 프로그램」사업 개시

출처: (재)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센터 연간보고서(2003)

그 후 일본과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의 공동 성명에 기초하여 1974년에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가 발족하여, 1985년부터는 브루나이가 추가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1996년에는 베트남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사업은 각국의 청년들이 배에서 생활하면서 각국에 있는 항구를 돌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세안 각 국에서는 이 사업에 참가하는 것이 상당히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이 사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979년에는 일본과 중국의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일본·중국 청년 친선 교류’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87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일본 청년 친선 교류’ 사업이 실시되었다.

두 가지 사업은 양국 간의 상호 교류 사업인 것이 특징이며, 파견 및 초청에 관련된 경비도 양국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85년에는 유엔에서 정한 국제 청년의 해를 기념하여, 정부 차원에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내각부에서는 1985년부터 국제 청년의 해의 취지와 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국제 청년의 마을’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 사업은 약 1주일간 공동 생활을 통하여 일본 및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교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의 증대, 사회 각 분야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하여 내각부의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에 있어서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우선 1988년 ‘청년의 배’ 사업을 개선하여, 종래의 일본 청소년들 중심의 교류 내용을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시켰다. 1994년에는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여 ‘국제청년육성교류’ 사업을 발족하였다. 이 사업은 종래의 ‘청년해외파견’ 사업 및 ‘해외 청년 초청’ 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나. 일본의 청소년국제교류 실태

일본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내각부, 문부과학성, 외무성 그리고 농림수산성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내각부 실시 사업

<표 V-2>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개요(2002년)

사업명	사업의 개요
국제 청년육성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태자의 결혼식을 기념하여 1994년부터 실시 ○일본 청소년의 해외 파견 및 외국 청소년의 일본 초청 사업의 2가지로 구성, 당시 황태자의 결혼 기념사업으로 1959년 개시된 '청년해외파견' 사업 및 1962년부터 개시된 '외국청소년초청' 사업을 계속 발전 ○자원봉사활동, 복지활동, 전통문화활동 등 공동체험교류를 중심으로 한 거점 체재형으로 국제교류활동을 실시 ○일본 청소년 71명 파견, 외국 청소년 98명 초청
일본·중국 청년 친선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중 우호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일본과 중국 양국의 공동 사업으로 1979년부터 실시 ○일본 청소년 30명 파견, 중국 청소년 28명 초청
일본·한국 청년 친선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4년 한일공동성명 및 1985년 한일국교정상화 2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양국의 공동사업으로 1987년부터 실시 ○일본 청소년 29명 파견, 한국 청소년 40명 초청
세계 청년의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이지(明治) 백년 사업의 일환으로 1967년부터 실시해 온 '청년의 배' 사업을 개조하여 1988년부터 실시 ○일본 청소년 117명을 방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청소년 130명이 배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세계적인 시야에서 공동 과제를 연구, 토론, 각종 토의, 스포츠 활동 등의 교류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방문국에서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 ○북중미, 태평양 연안 지역과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방년을 격년 주기로 방문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SEAN국가들과 일본 간 1974년부터 실시 ○ASEAN 10개국의 청소년 279명과 일본 청소년 38명이 배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ASEAN 국가 및 일본 방문
21세기 르네상스 청소년 리더 초청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부터 실시 ○세계 각국의 청소년 리더 78명을 14일간 일본에 초청하여, 일본의 청소년 리더와 토의·교류를 실시
청소년 사회활동 협동 지도자(co-leader) 육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리더의 육성을 목표로 2002년부터 실시 ○사회활동과 관련을 지니는 일본 청소년과 외국 청소년이 토의 및 교류 실시 ○일본 청소년 15명을 10일간 파견, 외국 청소년 39명을 14일간 초청
국제 청년의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의 국제청소년의 해 기념사업으로 1985년부터 실시 ○일본 청소년과 세계 각국의 청년 208명이 한 곳에 모여 일주일간 공동생활 속에서 각종 교류활동을 실시

출처: (재)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2003), p. 54

일본 정부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2002년도 내각부의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 편성 중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표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건전육성 관련사업 중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에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편성되어 있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있어 국제교류가 가지는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 2002년도 내각부(청소년 건전육성) 예산편성 및 사업

사업명	예산액	사업내용
청소년 건전육성추진경비	총 2,316	(단위: 백만엔)
1. 청소년문제연구조사비	53	1. 청소년문제 종합연구조사비(37) 2. 청소년문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16)
2. 청소년비행방지 활동 추진사업 3.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408	1. 소년보도(補導)센터교부금(116) 2. 청소년비행 방지활동 추진사업경비 (270) 3. 청소년 정보시스템관계 경비(22)
	1,855	1.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경비(213) 2. 세계 청년의 배 운항 경비(645) 3. 동남아 청년의 배 운항 경비(622) 4. 청소년 국제교류사업활동의 충실 및 강화를 위한 경비(124) 5. 일·중(日中)청소년친선교류사업 경비 (23) 6. 일·한(日韓)청소년친선교류사업 경비 (23) 7. 21세기르네상스청소년리더 초청사업경비(86) 8. 청소년 사회봉사활동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경비(118)

출처: 청소년 백서(2003)와 청소년문제(2002)의 내용 재구성.

② 문부과학성 실시 사업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으로 유학생 유치 사업을 들 수 있겠다.

<표 V-4> 문부과학성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JET program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 대상은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원칙적으로는 40세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2회-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한 스포츠 교류사업	○일·한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념하며, 일본과 한국 청소년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본과 한국의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인원은 파견 800명, 초청 800명 규모이다.
일·중·한 청소년 스포츠 교류사업	○2003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각 경기 종목에 있어 전문적으로 경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함께 참가하며 약 350명 규모의 인원이 참가한다.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	○1954년 ‘국비외국인유학생유치제도’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954년 당시 23명의 외국인이 일본으로 유학을 왔다. 그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17-35세미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5,285명(2003년 기준)의 유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단기유학추진제도	○일본 및 세계 각국의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3년을 기준으로 585명의 일본 청소년들이 세계 각국으로 파견되었으며, 1,950명의 외국 청소년들이 일본으로 초청되었다. 교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출처: www8.cao.go.jp/youth2/kokusai-koryu/zenkoku-kibo/mombu.html.

이밖에도 문부과학성에서는 <표 V-5>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업이외에도, ‘귀국외국인유학생단기연구제도’, ‘스포츠교류사업’, ‘오кина와(沖縄) 고등학생 미국파견사업’, ‘외국교육시설 일본어지도교사 파견사업(REX Program)’, ‘청소년국제네트워킹포럼’ 등의 사업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③ 외무성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표 V-5> 외무성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청소년 해외협력대 파견사업	○일본 국적을 가진 20-2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시아, 중동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의 지역에 대하여 2년간 매년 1,380명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21세기 우정의 계획」	○원칙적으로는 18-35세의 청소년으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몽골, 호주 등에 파견하며, 파견기간은 21일간, 참가인원은 1,695명이다.
외국 청소년초청사업	○원칙적으로 18-35세의 장래 청소년지도자를 지망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남아시아, 남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몽고, 호주, 아프리카, 중도, 중남미, 유럽 지역에 약 600명을 파견한다.

출처: www.8cao.go.jp/youth2/kokusai-koryu/zenkoku-kibo/gaimu.html.

④ 농림수산업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표 V-6> 농림수산업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농촌청소년 파견사업	○18-30세로 향후 농업에 종사할 예정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국(하와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에 1년간 60명 정도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아시아농촌청소년인재육성사업	○20-28세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약 60명가 이 교류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1년간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국제농업교류촉진특별대책사업	○18-3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1년간 중남미 국가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참가인원은 매년 8명 정도로 하고 있다.

출처: www8.cao.go.jp/youth2/kokusai-koryu/zenkoku-kibo/noumu.html.

다. 일본의 청소년 국제 교류를 위한 추진 체제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내각부가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각부의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은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가 실무적인 업무를 위탁 형식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교류 참가자의 사후 관리 업무는 일본청소년국제교류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화,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과 일본 청소년들의 해외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국제협력기구가 정부차원에서의 청소년국제교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각 기관들의 개요 및 특성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재)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와 일본청소년국제교류 기구(IYEO)는 1994년에 설립되어, 내각부 등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시에 대한 협력을 포함하여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실시,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계발, 정보 제공, 지원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이 풍부한 청소년의 육성과 이러한 청소년들을 국내, 국외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해 온 단체이다. (재) 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위탁받는 형식으로 하며,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기타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일본청소년국제교류기구(International Youth Exchange Organization, IYEO)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IYEO는 1961년부터 시작된 내각부 정책통관관(총무청·총리부)의 청소년국제교류사업에 참가한 청소년들 약1만4천명이 국제교류사업을 통하여 얻은 성과와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국제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청소년해외파견’ 사업의 참가자들의 조직으로 1963년에 결성된 ‘일본청우회(靑友會)’와 ‘청년의 배’ 사업의 참가자 조직으로 1970년에 결성된 ‘청년의 배 모임’의 양 조직이 활동기반의 확립을 목표로 하여 1987년에

통합된 것이 바로 IYEO이다.

IYEO는 3종류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전국에 약 1만4천 명에 달한다. 본부는 동경에 있으며, 47개 도도부현에 자원봉사자에 의한 조직이 구축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조직과도 긴밀한 연계를 이루며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IYEO의 회원으로는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 참가한 청소년(일반회원), 내각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국제교류에 참가한 지도자 및 관계자 그 밖에 기구의 활동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찬조회원), 그리고 교류활동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으로 내각부 정책통괄관의 추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IYEO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이루어지며, 활동은 대부분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The Japan Foundation)

일본국제교류기금은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 상호이해와 국제 우호친선의 촉진을 목적으로 1972년 일본 외무성소관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국제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첫 공적 전문기관으로서 학술, 일본연구에서 일본어 교육, 예술, 출판, 영상매체, 스포츠,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기본으로 한 문화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운영은 정부 및 민간 출자금에 따른 운용이익,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예산을 포함한 정부 보조금 및 민간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국제협력기구는 일본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중요한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여러 기관이 담당해 오던 해외기술협력이나 이주사업 등이 통합되어, 1974년 ‘국제협력사업단법’에 기초하여 발족한 기관이다. 그

이후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2002년 법률 제136호)에 의거하여 독립행정법인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설립목적으로는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촉진을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기구의 주된 사업으로는 외국인의 일본 연수 사업,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일본인 전문가 파견사업, 무상자금협력,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인재의 양성 및 확보 사업, 긴급원조를 위한 물자 및 장비의 비축, 제공, 국제긴급원조대의 파견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재 파견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년퇴직한 노인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기구의 사업들은 국제협력기구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있지만, 외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3. 일본의 청소년국제교류 관련 법규

일본의 청소년 국제 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거시적 접근에서는 2001년 10월에 제정된 ‘청소년육성추진요강’과 2003년 12월에 제정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내용과, 미시적 접근에서는 개별 법령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시적 접근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외국인등록법’, ‘독립행정법인 국제관광진흥기구법’,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그리고 유학생교류사업과 관련하여 1901년에 제정된 ‘문부성직할학교외국인특별입학규정’(문부성령 제 15호)을 시작으로 1954년 제정된 ‘국비외국인유학생초청제도’, ‘사비유학생통일시험의 실시’ 등이다.

최근 유학생교류와 관련하여 중앙교육심의회의 ‘새로운 유학생정책의 전계에 관하여’란 답신에서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가. 거시적 접근

① 청소년육성추진요강(청소년육성추진회의, 2001년 10월 개정)

청소년육성추진요강 중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내용은 제3장 중점추진 사항 중 제2절 청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의 추진을 구성하고 있는 4개 항목 중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추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제 3장 제 2절의 1(국제교류사업의 추진) 청소년은 국제 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장 등에 관한 인식을 높임과 아울러 국제적인 연대감이나 협조의 정신을 몸에 익히는 기회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그 때, 일본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상호 교류의 추진에 대하여 배려를 기울임과 동시에 세계에 대한 공헌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업의 주요추진관청으로는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이 있다.

제 3장 제 2절의 2(국제이해교육의 충실) 주변 국가의 역사·문화에 대한 학습이나 외국어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주요추진관청으로는 문부과학성, 총무성, 외무성 등이 있다.

제 3장 제 2절의 3(시책·사업 연계의 강화 등) 국제교류와 관련된 시책·사업에 대하여 국가 행정기관의 상호간,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 공공단체, 행정 기관과 청소년관계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교류 프로그램이 기획·개발, 지도자의 연수, 교류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수집, 자료의 작성 및 제공 등을 충실히 한다. 그 때, 고도의 정보통신수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사업의 주요추진관청으로는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등이 있다.

제 3장 제 2절의 4(사후활동의 촉진) 국제교류사업에 참가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과 그 밖의 지원시책의 충실을 기한다. 사업의 실시 기관으로는 내각부, 외무성, 문부과학성을 들 수 있겠다.

② 청소년육성시책대강(청소년육성추진본부, 2003년 12월 제정)

청소년육성시책대강에서는 청소년육성추진요강에서와 같이 청소년국제 교류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 있지만 않지만,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제 7장 제 3절 ‘추진체제’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제적인 연대 및 협력,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7장 제 3절 (국제적인 연계 및 협력) ① 국제기관 등에 대한 협력: UN 등의 국제기관에 있어 청소년에 관한 조약이나 행동 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가함과 동시에 상호 교류 등의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② 정보의 수집 및 발산: 각국의 청소년육성정책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함과 아울러 일본의 국내 정책에 대하여 외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린다.

나. 미시적 접근

(1)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이 법은 제 1장 제 1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 입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이들의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난민의 인정절차를 정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의 2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기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상륙허가 또는 해당 외국인의 취득과 관련된 재류자격 또는 그 갱신과 관련된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도록 한다. 제 ②에서는 재류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표 V-7>과 같다. 그리고 ③ “제 1항의 외국인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을 재류기간이라 하며, 그 재류기간은 각 재류자격에 대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한다. 위의 경우를 제외한 외교, 공용 및 영주자의 재류자격이외의 재류자격과 관련된 재류기간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3장 상륙 절차

제 1절 상륙의 위한 심사

제 6조(상륙의 신청) 일본에 상륙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에 일본국 영사관 등의 사증을 받은 것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국제적 약속 또는 일본정부가 외국정부에 대하여 실시한 통고에 따라 일본영사관 등의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외국인 여권,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여행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자의 해당 증명서에는 일본영사관 등의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7조의 2(재류자격인정증명서) 법무대신은 법무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본에 상륙하려고 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사전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제 6조 제 1항 제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4장 재류 및 출국

제 1절 재류, 재류자격의 갱신 및 재류기간의 갱신

제 19조(재류) <표 V-7>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 중인 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에 열거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 열거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 <표 V-7>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중인 자. 해당 재류자격에 따라 이러한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속하지 않는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에 대한 사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시적인 보수 그 밖의 법무성이 정하는 내용은 제외. 이하 동일.)를 받는 활동

<표 V-7>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가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한다.

<표 V-7> 재류자격 분류표

재류자격		일본에서 가능한 활동
I 분류	외교	일본 정부가 접수하는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 및 면제를 받는 자 또는 이러한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공용	일본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외교에서 열거하는 활동 제외)
	교수	일본의 대학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의 연구 또는 연구의 지도, 교육 활동
	예술	수입을 동반하는 음악, 미술, 문학 그 밖의 예술상의 활동(홍행에서 열거하고 있는 활동 제외)
	종교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하여 일본에 파견된 종교인이 행하는 포교, 그 밖의 종교상의 활동
	보도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취재, 그 밖의 보도상의 활동
II 분류	투자·경영	일본에서 무역 또는 그 이외의 사업의 경영을 시작하거나, 일본에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담당하거나, 또는 해당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이러한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 또는 일본에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 경영을 담당하거나 해당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활동(이하 법률, 회계 업무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격이 없으면 법률상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은 제외)
	법률·회계 업무	외국법률사무변호사, 외국공인회계사와 그 밖의 법률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의료	의사, 치과의사 그 밖의 법률상 자격을 소지한 자가 수행할 있는 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연구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교수에서 언급하고 있는 활동은 제외)
	교육	일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와 관련하여 이에 준한 학교기관에서 어학교육 또는 그 이외의 교육 활동
	기술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이학, 공학 그 이외의 자연과학분야에 속한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투자·경영, 의료, 교육, 기업전근에서 열거하고 있는 활동 제외)

재류자격		일본에서 가능한 활동
분류 III	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밖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교수, 예술, 보도, 투자·경영, 교육, 기업내전근, 흥행에서 열거하고 있는 활동은 제외)
	기업내전근	일본에 본점, 지점 그 밖의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공적, 사적 기관의 직원이 일본의 사업소에 일정 기간 전근을 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활동(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활동)
	흥행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과 관련된 활동 또는 그 밖의 연예활동(투자·경영에서 열거하고 있는 활동은 제외)
	기능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며,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분류 IV	문화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학술상 또는 예술상의 활동, 일본 특유의 문화 또는 기예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이러한 기예를 습득하는 활동(유학, 연수에서 열거하고 있는 활동은 제외)
	단기체재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여 관광, 보양, 스포츠, 친족 방문, 견학, 강습 또는 모임 참가, 업무 연락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활동
분류 V	유학	일본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외국에서 12년간 학교 교육을 수료한 이에 대하여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취학	일본의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고등부과정, 전수학교의 고등과정 또는 일반과정, 각종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있어 이에 준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
	연수	일본의 공적, 사적 기관으로부터 초대되어 실시하는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위한 활동(유학, 취학에서 열거하는 활동은 제외)
	가족체재	위에서 언급한 활동과 관련된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일본에 재류중인 자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법무대신은 <표 V-7>의 분류 I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중인 자중에서 법무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재류자격에 따라 <표 V-7>에서 열거하고 있는 활동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 외국인등록법

제 1조(목적) 이 법률은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등록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인의 거주관계 및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류 외국인의 공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률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중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규정의 의한 가(仮)상륙허가, 기항지상륙허가, 통과상륙허가, 승원상륙허가, 긴급상륙허가 및 조난에 의한 상륙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이들을 말한다.

(3)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

제 1조 (목적) 이 법률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기금의 목적)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 및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도모하며, 국제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아울러 문화와 그 밖의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하여 양호한 국제환경의 정비 및 일본의 조화로운 대외관계의 유지, 발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자본금) ① 기금의 자본금은 부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출자금으로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출자의 목적으로 기금에 추가적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출자액에 따라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⑤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이 가격은 출자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전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위원과 그 밖에 동항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 령으로 정한다.

제 3장 업무 등

제 12조(업무의 범위) 기금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인적, 물적 파견 및 초빙,
- ② 해외에서의 일본 연구에 대한 원조 및 알선, 일본어의 보급, ③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실시, 원조 및 알선, 행사에의 참가, ④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와 그 밖의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⑤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정비에 대한 원조 및 국제문화교류를 위하여 이용되는 물품의 구입에 관한 원조, 이러한 물품의 증여(기금이 기부를 받은 물품의 증여에 한정한다).
- ⑥ 국제문화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⑦ 전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

(4)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2002년 12월 6일 법률 제 136호)

제 1조(목적) 이 법률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률 및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년 법률 제 103호 이하 '통칙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통칙법 제 2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의 명칭은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로 한다.

제 3조(기구의 목적)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기술협력의 실시 및 무상 자금 공여에 의한 개발도상국 정부에 대한 국가적 협력의 실시, 촉진 및 개발도상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등의 협력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를 실시한다. 또한 중남미지역 등으로의 이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업무를 실시하며, 아울러 개발도상국 등에서의 대규모재해에 대한 긴급원조의 실시에 필요한 업무를 실시하며, 이러한 지역의 경제 및 사회발전, 부흥에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촉진

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자본금) 기구의 자본금은 부칙 제 2조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의 출자금으로 한다.

①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구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출자액에 따라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제 3장 업무 등

제 13조(업무의 범위) 기구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약과 그 이외의 국제적 약속에 근거하는 기술협력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것.

㉠ 개발도상국가로부터의 기술연수원에 대하여 기술의 연수를 실시하며, 아울러 이러한 기술연수원을 위한 연수 시설 및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 ㉡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인원을 파견할 것. ㉢ ㉡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기술협력과 그 밖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기재를 제공할 것. ㉣ 개발도상국가에 설치된 기술협력센터에 필요한 인원의 파견, 기계설비의 조달 등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 ㉤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공공적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기초적 조사를 실시할 것.

(2) 조약과 그 밖의 국제적 약속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무상자금 공여에 의한 협력(자금을 증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협력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무상자금협력'이라 한다.)의 실시,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것.

㉥ 다음에서 열거하는 무상자금협력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관하여 조사, 알선, 연락과 그 밖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

(1) 조약과 그 밖의 국제적 약속에 근거하는 기술협력을 위한 시설(선박포함. 이하 이 호에서 동일)의 정비(해당 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설

비 및 자재의 조달을 포함. 이하 이 호에서 동일)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상자금협력

(2) 조약과 그 밖의 국제적 약속에 근거하는 기술협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상자금협력

(3) 조약과 그 밖의 국제적 약속에 근거하는 기술협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외무대신이 지정하는 무상자금협력

㉞ ㉝에서 규정하는 조약의 실시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것.

(3) 국민, 민법 제 34조의 법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 2조 제 2항의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 그 밖의 민간단체 등 봉사활동 또는 지방공공단체, 대학의 활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당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의 경제, 사회의 발전, 부흥에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촉진하며,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것. ㉞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의 주민과 하나가 되어 실시하는 국민 등의 협력활동을 지망하는 개인의 모집, 선고 및 훈련을 실시하며, 아울러 그 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 ㉞ 조약과 그 밖의 국제적 약속에 근거하여 ㉝의 선고 및 훈련을 받은 자를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 파견할 것. ㉞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하여 국민 등의 협력활동을 지망하는 이들로부터의 제안과 관련된 다음의 사업으로 외무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해당 국민 등의 협력활동을 지망하는 이들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

(1) 해당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의 기술연수원에 대한 기술의 연수

(2) 해당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인원의 파견

(3) 해당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한 기재의 제공

㉞ 국민 등의 협력활동에 관하여 지식을 보급하며, 아울러 국민의 이해를 증진할 것.

(4) 이주자에 대한 원조 및 지도 등을 국내, 국외를 통하여 일관되게 실시

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실시할 것. ㉗ 해외이주에 관하여 조사 및 지식을 보급할 것. ㉘ 해외에서 이주자의 사업, 직업과 그 밖의 이주자의 생활 일반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며, 그 지도를 수행할 것. ㉙ 해외에서 이주자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시설의 정비와 그 밖의 원조를 실시할 것.

(5) 개발도상국가 및 지역에서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국제긴급원조활동과 그 밖의 긴급원조를 위한 기재와 물자를 비축하여, 제공할 것.

(6) 제 1호, 제 3호의 ㉘ 및 전호와 아울러 다음의 항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양성 및 확보할 것.

(7) 전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의 부대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

(5) 독립행정법인 국제관광진흥기구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률은 독립행정법인 국제관광진흥기구의 명칭, 목적,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기구의 목적) 독립행정법인 국제관광진흥기구(이하, 기구)는 해외에서의 관광의 선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 안내, 그 밖의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의 촉진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 관광의 진흥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자본금) 기구의 자본금은 부칙 제 2조 제 6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된 자금으로 한다.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기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출자액에 따라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제 3장 업무 등

제 9조(업무의 범위) 기구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선전활동. ②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 안내소의 운영. ③ 통역안내업법 제 5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 3조의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 ④ 국제관

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⑤ 국제관광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⑥ 전각호의 업무에 관한 부대적인 업무의 수행. ⑦ 국제회의 등의 유치, 촉진 및 원활한 개최 등에 따른 국제관광의 진흥에 관한 법률(1994년 법률 제 79호)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

(6) 기타 관련 법령 (유학생 교류정책에 관한 제도)

①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2004년 4월에 설립된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국비유학생에 대한 일본어예비교육, 유학생기숙사에 관한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업무들은 국가와 관련 기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유학생에 있어서 그 업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그러나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설립에 따라 업무가 통일성을 지니며 보다 섬세한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해외에 대하여 정보제공의 충실, 유학생관련업무에 관한 연수의 실시 등 각 대학에 있어서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체제의 확립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실시하며, 보다 질 높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학생지원기구가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국비유학생지원제도

국비유학생에 대한 채용 방법은 대사관추천, 대학추천, 국내 채용 등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연구유학생의 경우는 그 채용인원비율이 대략 5:4:1 정도가 된다. 대사관추천의 경우는 외교정책상의 배려 또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인재의 육성의 관점 등도 감안하면서 국가별 균형을 고려하는 한편, 대학추천의 경우는 각 대학의 외국 대학 간의 교류협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각 대학의 주체적인 유학생교류를 촉진하며, 대학의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채용의 경우는 우수한 사비유학생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종류의 채

용방식에 있어서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향후 질 높은 유학생 확보를 위하여 현행 국비유학생제도의 수정 및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국비유학생의 응모에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대학을 선택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비유학생의 모집·선발·배치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둘째, 우수한 유학생에 대하여 일본국내채용을 통하여 국비유학생이 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한편, 학년 말마다 유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이 좋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서는 향후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성적관리에도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일본 정부는 2001년 창설된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의 하나이며, 아시아 국가에 있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청소년들을 육성하며, 각 국가간 지도자층의 인적·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Young Leaders Program(YLP)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대학의 확대와 학생의 선발방식, 공모방식 등에 관한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래 각 국가의 지도자가 될 청소년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착실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유학 후의 사후관리에도 충실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사비유학생지원제도

일본에 재류중인 유학생중 대략 90%는 사비유학생이며, 앞으로도 일본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사비유학생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학 등에 재학중인 유학생들중에서 경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인 ‘사비외국인유학생장려금’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장학금 수급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일본유학시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질 높은 유학생의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업료면제학교법인원조’에 관해서는 각 학교 법인이 사비유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업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이며, 사비유학생의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사비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립대학 등의 유학생 기숙사 시설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VI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

* 이 내용은 김은정(청소년의 국제교류 의식에 관한 연구, 2001)에게 집필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1. 동북아 3국 간 청소년교류 현황

청소년국제교류는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 추진 주체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외교 분야에서는 국가 이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인 형태로 청소년국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학생 청소년 대상의 교육교류 형태의 청소년교류가 추진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국제교류는 다각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에 일관된 틀로 유형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행주체와 교류내용 또는 교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수행주체에 따라서는 ① 정부 간의 교류,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③ 청소년단체 간 교류, ④ 여행·관광 형태 등으로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별교류(이민희외, 2004)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교류내용에 따라서는 ① 일반교류, ② 연수, ③ 국제회의, ④ 국제행사(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류방법에 따라서 ① 국가 간의 청소년 정기교류, ② 청소년국제기구와의 협력, ③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④ 해외연수(청소년백서, 2003)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인 중국인의 우리나라 입국 현황과 중국 일본으로의 우리 국민 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은 '99년 총 입국자의 4.5%, '00년 5%, '01년 6.3%, '02년 6.9%로 나타났으며, 중국인 총 입국자 중 11세에서 25세 연령층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입국 비율은 13.8%, 15.2%, 15.1%, 15.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일본인은 '99년 총 입국자의 55%, '00년 56%, '01년 55%, '02년 53%이며, 일본인 총 입국자 중 11세에서 25세 연령층의 입국 비율은 16.8%, 16.1%, 14.6%, 15.4%로 나타났다.

<표 VI-1> 1999-2000년 연령별 중국인, 일본인 입국자현황

(단위 %)

	0~5	6~10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이상	입국자수 (N)
1999년 총 외국인	1.62	1.60	1.86	4.09	10.8	12.52	11.23	10.97	45.82	3,920,909
1999년 중국인	0.41	1.20	1.89	3.57	8.64	16.09	16.59	15.71	35.89	63,979
1999년 일본인	1.18	0.94	1.42	4.43	10.99	11.73	9.01	8.64	51.65	1,123,127
2000년 총 외국인	1.57	1.63	1.94	3.98	9.71	12.40	11.17	11.1	46.49	2,031,823
2000년 중국인	0.50	1.4	2.64	4.01	8.64	14.96	15.93	16.77	35.15	77,126
2000년 일본인	1.19	1.05	1.50	4.32	10.29	11.75	9.16	8.75	51.98	1,270,220
2001년 총 외국인	1.57	1.59	1.90	3.65	9.36	12.26	11.36	11.33	46.98	2,008,593
2001년 중국인	0.51	1.33	2.80	3.71	8.60	13.77	16.22	17.79	35.28	95,096
2001년 일본인	1.19	1.04	1.41	3.74	9.51	11.78	9.44	9.13	52.77	1,245,639
2002년 총 외국인	1.43	1.52	1.98	4.03	9.25	12.15	11.97	11.40	46.26	2,032,053
2002년 중국인	0.35	1.05	2.08	3.84	9.55	13.40	16.88	18.88	33.97	103,024
2002년 일본인	0.98	0.96	1.57	4.53	9.27	11.59	10.29	8.94	51.88	1,196,842

*자료: 출입국 관리국 통계 자료 재구성, 각 년도.

우리 국민의 중국 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99년 총 출국자의 19%가 중국 출국자이고, '00년 20%, '01년 22%, '02년 26%가 총 출국자 중 중국 출국자로 나타났다.

중국 출국자 중 11세에서 25세 연령층 청소년의 중국 출국 비율은 '99년 총 중국 출국자 중 7.8%, '00년 7.6%, '01년 8.5%, '02년 9.4%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일본 출국 현황은 '99년 총 출국자의 28.8%, '00년 24.8%, '01년 24%, '02년 22%로 나타났고, 일본 출국자 중 11세에서 25세 연령층 청소년의 출국 비율은 '99년 10.6%, '00년 11.6%, '01년 12.4%, '02년 13.3%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청소년 입국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중국인 입국 비율이 전체 입국자 중 해마다 0.5% 증가세를 나타낸 것에 비해 청소년 입국 비율은 200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중국 출국 비율은 2000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일본 입국자로 나타났으며, 일본 입국자 중 11세에서 25세 연령 청소년의 입국 비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일본 출국 비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 1999년-2000년 연령별 중국, 일본 국민 출국자 현황
(단위 %)

	0~5	6~10	11~15	16~20	20~25	26~30	31~35	36~40	41이상	전체 출국자수 (N)
1999년 총 출국자	1.71	1.86	2.08	2.66	6.73	13.80	12.32	13.97	44.88	1,915,312
1999년 중국출국자	1.22	0.96	1.11	1.74	5.04	9.34	11.53	16.53	52.52	432,991
1999년 일본출국자	1.60	1.40	1.85	2.59	6.41	12.08	11.93	13.25	48.89	600,063
2000년 총 출국자	1.68	2.21	2.66	2.73	6.54	13.79	12.48	13.49	44.41	2,271,747
2000년 중국출국자	1.10	1.20	1.63	1.87	4.12	8.34	10.54	15.17	56.01	581,418
2000년 일본출국자	1.68	1.70	2.53	2.67	6.35	12.51	12.7	13.30	46.50	589,512
2001년 총 출국자	1.70	2.43	2.90	2.98	6.72	13.18	12.53	12.84	44.73	2,547,882
2001년 중국출국자	1.06	1.47	2.09	2.32	4.09	7.63	10.18	13.87	57.29	747,218
2001년 일본출국자	1.68	1.80	2.5	2.91	6.94	12.35	12.87	12.67	46.22	618,729
2002년 총 출국자	1.66	2.55	3.08	3.04	6.64	12.21	12.81	12.08	45.93	3,073,801
2002년 중국출국자	1.00	1.60	2.44	2.65	4.33	7.11	10.35	13.08	57.44	994,445
2002년 일본출국자	1.68	2.08	3.01	3.26	6.98	11.45	12.90	11.46	47.19	679,974

*자료: 출입국 관리국 통계 자료 재구성, 각 년도.

한·일 청소년 교류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되어 오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에 ① 재학자 수 1,000명을 목표로 한국의 이공계대학 학부 유학생 파견·유학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② 앞으로 10년 동안 1만 명을 목표로 중·고생 교류 사업을 실시한다. ③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1999년 4월부터 시작한다. 등의 청소년국제교류 확대 내용 합의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통해 한·일 청소년 교류는 긍정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향후 한·일 청소년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교류는 1992년 외교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며, 1998년 중국 정부에 의해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국가로 지정되면서 해마다 중국인의 방한이 점진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던 ‘한류’ 열풍은 한국에 대한 중국 청소년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등에 의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한국인 유학생 수 또한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VI-3> 주요 출신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
(2003. 9. 1. 기준)

연 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러시아	베트남	기타	계
2003.9 기준	20.2	45.5	4.7	5.1	2.5	3.0	19.0	100(%) (N=12,314)
2001.8 기준	30.6	27.7	11.1	4.8	3.1	1.7	21.0	100(%) (N=11,64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2003).

<표 VI-4> 지역별 한국인 유학생 수

(2003.6.30기준)

연 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타	계
2001	39.0	14.6	10.9	10.0	7.0	1.8	16.7	100(%) (N=149,933)
2003	30.7	8.8	11.4	10.8	9.9	6.2	22.2	100(%) (N=159,90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과(2003).

2. 정부 간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

국가가 수행하는 국제교류 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 간 교류사업과, 국가가 지원하는 교류 사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정부 간 교류 사업은 국가 정부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교류 사업을 지칭한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정부 기관으로는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이 있다.

국가 간 청소년교류는 양국 청소년 담당 부처 간 약정이나 청소년관련기관·단체 등의 상호 합의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국의 청소년기관·단체·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와의 친선교류회, 민박, 문화센터, 역사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함은 물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관광부는 현재 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헝가리, 필란드, 칠레, 멕시코, 러시아, 이스라엘 등 14개국과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일본 청소년 교류와 한·중국 청소년교류는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청소년교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교류인원 측면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며, 사업시행의 지속성 면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본 청소년교류는 198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청소년 교

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래 1987년부터 매년 15일간 40명 규모로 초청·파견하고 있으나 2003년부터는 교류인원을 30명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일본의 내각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483명, 파견 576명으로 총 1,059명이다.

이외에 한·일 청소년교류 사업으로는 문화관광부와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 주관으로 매년 청소년지도자, 교원, 근로청소년, 대학생 각 25명씩 100명을 1개월간 일본으로 파견하여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교양 강좌와 교류회, 산업시설, 문화유적지 견학, 민박 등의 경험을 통해 일본 청소년과의 우의증진과 전문 확대를 도모한 “21세기 우정의 계획”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21세기 우정의 계획은 1987년부터 5년 단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었고, 1997년부터 제3차 사업기간이 시작되었으나, 2001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1,478명의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를 파견한 바 있다.

한·중 청소년교류는 1992년 8월 한·중 양국 간 정식 수교 후, 양국 간 합의에 의해 20명씩 10일간 상호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주관하며 양국 간의 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한·중 양국 간 청소년교류 양해각서 체결(1998. 11월)에 의해 매년 20명씩 10일간 2회로 확대시행 중이다. 2003년까지 교류인원은 초청 333명, 파견 358명으로 총 691명이다.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2003-2007)에서 정부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의 지속적 확대 및 다변화를 정책 추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 중국과의 정부 간 교류를 살펴보면, 교류 내용이 다변화된 발전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며, 일본과의 정부간 교류는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일본 측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40명 교류 인원을 30명으로 오히려 축소 조정했다.

2003년도까지 문화관광부의 일본, 중국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현황 및 직접 주관한 청소년국제교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VI-5> 일본, 중국 국가 간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현황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근거	최 초 시행년도	약정내용 (인원·기간)
일 본(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40명씩 15일간 ('03년부터 30명)
중 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 양해각서('98)	'93	20명씩 10일간 (98년부터 연2회)

*자료: 문화관광부(2003)

일본은 청소년교류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과 독자적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비해서 청소년교류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있는 일본의 이러한 요청은 한·일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의 내실 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부 간 교류 활동의 적극성과 능동성 측면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14개국과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과의 교류는 정부의 국제교류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 부분에서나, 파견·초청의 균형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단체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문화적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분명히 교류 목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적 차이점과 교류목표는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나 중국 청소년과의 교류에 거의 같은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일본이나 중국과 정부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전체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진 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본, 중국과의 정부 간 교류는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비교적 정착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일본,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방향성이 될 만한 선진사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일 교류와 한·중교류는 정부 간 교류 중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류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내용의 교류가 반복되고 있을 뿐 전문화된 한·일 교류 프로그램, 전문화된 한·중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은 '97년부터 '03년까지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부 청소년 예산을 정리한 표이다.

<표 VI-6> 연도별 사업별 청소년육성예산(국고)
(단위: 백만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청소년시설	33,031	25,330	22,353	18,995	25,801	11,772	14,382
청소년육성	9,220	8,600	7,252	6,707	6,797	11,784	10,702
청소년단체지원	6,226	6,554	4,252	4,918	5,516	6,130	7,065
청소년국제교류	917	485	350	*500	550	620	820
기타청소년육성	2,077	1,561	2,650	1,431	731	5,034	2,817
기본사업비	340	270	243	252	787	579	579
청소년육성기금출연	10,000	-	-	-	-	-	-
합 계	52,591	34,200	29,848	25,954	33,385	24,135	25,663

*자료: 청소년육성 기능강화 및 행정체계 발전 방안(2004).
*산식: 358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문화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500으로 정정함.

위의 <표 VI-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국제교류 예산 편성 수준은 다른 사업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있다. 예산 편성은 그 분야의 중요성 인식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볼 때 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제교류 예산 수준은 정부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인식을 엿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 교육, 복지, 보건, 정보화, 청소년 노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는 있으나, 청소년국제교류에 관한 통계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나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1996년부터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 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왔으나, 문화관광부의 예산 폐지로 인해 '01년에서 교류 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만료되어, '01년 이후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제시할 기관이 없어진 것이다. 어떤 분야이건 그 분야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태가 파악되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진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96년부터 '01년까지 진행되어온 국제교류 현황조사 사업을 만료한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의 국제교류 전담 부서였던 국제교류과가 2000년 국제지원과로 축소 조정된 것을 일례로 들 수 있겠다. 현재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는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가 이를 위한 지지기반이 되어 청소년교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독립된 전담 부서의 활발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오히려 축소 조정된 것을 보았을 때 정부의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국제교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추진 계획을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양태는 정부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인식 부족의 실정을 역력히 나타내고 있다.

일본, 중국과의 정부 간 교류는 위에서 지적한 인식의 문제, 그와 관련된 예산의 문제와 교류 실태 파악의 부재 등의 문제와 함께, 이외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의 문제와 교류 관련 인력의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류 사업 추진 시 동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뱅크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으로 단순히 일본어나 중국어의 언어 능력이 있는 인력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질적으로 내실 있는 청소년교류 수행에 문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교류가 단순한 외국 청소년과의 접촉을 넘어서 교류를 통한 지적, 신체적, 정신적 면에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때 단순한 언어능력만을 갖추고 있는 인력의 활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 교류 청소년 전문가, 중국 교류 청소년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중국 교류와 관련한 총괄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청소년 국제교류에 대한 총괄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나, 타 국가들과의 교류에 비해 일본과의 교류는 전체 청소년교류의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 또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류 중 하나라는 측면과, 이들 두 국가와의 교류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을 고려해 볼 때 적어도 일본, 중국 교류에 대한 교류 부분에서 만이라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류의 사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는 전체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류의 단계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교류 총괄 체계 부재와 관련하여 교류 정보 접촉 측면을 일례로 들면,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제교류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도 국제교류 정보에 대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교류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이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부터(www.iye.go.kr)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 사이트에서 외교통상부나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시행되는 한·일 교류나, 한·중 교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 사이트는 일본이나 중국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며 사이트 운영이 초기 단계이므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점들을 안고 있기는 하나, 국제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총괄체계 부재로 인한 한계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 각 정부 기관들의 연계 협력을 통한 총괄 시스템

의 부재가 정보 제공 측면에서의 총괄체계 부재의 기저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모두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교류 전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각 국가별 교류 전담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각 국가별 교류 전담 체계 구축은 현실점에서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이지만, 적어도 교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중국 교류 전담 체계 구축은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간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개방화·국제화와 함께 지방화·자율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91년 지방의회의 구성이후 '94년 3월 지방자치법 등 정치개혁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95년 이후 외국지방자치단체들과 국제교류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00년 이후로 자치단체간 청소년국제교류는 주목할 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청소년국제교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 인원은 대략 300명 내지 500명이었으나 2001년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청소년국제교류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치단체의 63.8('00)%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청소년국제교류 분야가 가장 높은 21.8%로 나타났으며, 문화교류(16.3%), 행정교류(16.3%) 그리고 스포츠교류(10.5%)순으로 나타났다.³⁵

현재 청소년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의 경우도 83%에 해

당하는 자치단체가 앞으로 국제교류 계획과 의향이 있음을 밝혔고, 특히 장래 국제교류를 희망하는 상대국으로 일본(40.4%)과 중국(1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동북아 지역 청소년 교류 확대에 고무적인 시사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의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154개 총170개의 자치단체가 외국 44개국의 440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다.

<표 VI-7>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류 현황

구분		'96			'97			'98			'99			'00			'01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청소년 교류	국가수	3	1	4	4	1	5	3	3	6	3	2	5	4	2	6	8	5	13
	인원	145	154	299	329	6	335	161	397	558	118	26	144	177	121	298	940	126	1066
청소년 연수	국가수	3	1	4	1	-	1	-	-	-	-	-	1	1	2	3	4	7	
	인원	62	39	101	3	-	3	-	-	-	-	-	43	20	63	88	88	176	
국제 회의	국가수	-	-	-	-	-	-	-	-	-	-	-	-	-	-	-	-	-	
	인원	-	-	-	-	-	-	-	-	-	-	-	-	-	-	-	-	-	
국제 행사	국가수	1	1	2	-	-	-	-	-	-	-	-	-	2	2	-	-	-	
	인원	68	35	103	-	-	-	-	-	-	-	-	-	120	120	-	-	-	
합계	국가수	7	3	10	5	1	6	3	3	6	3	2	5	4	2	6	8	5	13
	인원	275	228	503	332	6	338	161	397	558	118	26	144	220	261	481	1028	214	1242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관광부 자료 재구성, 각 년도.

³⁵ 윤철경 외. 『새천년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이중 일본의 14개 광역자치단체와 64개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13개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통한 자치단체간 교류는 중국과의 자매결연(12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80), 일본(7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중 중국·일본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전체의 46%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VI-8> 일본, 중국 자매결연 현황

(2004년 1월 현재)

국가명	외국자치단체수	단체구분	
		광역	기초
일본	78	14	64
중국	129	16	113

*자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45%이상이 일본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소년 교류 또한 일본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에는 양국 해협 연안 8개의 시·도가 교류하는 한·일 해협 간 청소년교류가 있으며, 정기적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청소년교류가 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사례로 ① 부산광역시의 일본 시모노세끼시와의 교류(총 교류38회 중 10회), ② 대전광역시의 시마네현 오다시와의 교류(총 교류 22회 중 11회), ③ 경기도의 카나가와현과의 교류(총214회 중 14회), ④ 충청북도의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교류(총 교류 151회 중 27회), ⑤ 전라북도와 가고시마현과의 교류(총257회 중 50회) 등을 들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청소년교류가 잘되고 있는 사례로는 ① 경기도의정부시와 시바타시와의 청소년교류(18회)·초등학교미술교류(3회), ② 강원도 동해시와 후쿠이현 쓰루가시와의 친선축구단교류 등 각종 청소년교류(13

회), ③ 충북보은군과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정과의 초등학교간 교류(16회), ④ 충남 부여군 부여읍과 다자이후시·난고손과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 등 교류(59회), ⑤ 전남여수시와 사가현 가라쓰시와의 소년의 배 등 청소년 교류(12회), ⑥ 제주시와 와카야마시와의 초등학교 학생 친선교류 등(14회)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자매결연을 맺고 양국 간 정기적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로 서울시와 동경도, 울산광역시와 아마구찌현 하기시, 충남 공주시와 아마구찌시, 경남 남해시와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경북 포항시와 히로시마현 후쿠야마현, 경기도 부천시와 카나키와현 카와사키시, 강원도 속초시와 돛토리현 요나고시, 경기도 광명시와 카나카오현 사가미하라시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³⁶

자매결연을 통한 청소년교류 시기도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 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시의 경우 일본 아마구찌현 하기시와 1968년 한·일 최초의 자매결연 도시가 된 이래로 매년 초등학교학생 간 그림교환전시회를 실시하였고, '93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개최하는 등 매년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일본 오다시와 '88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97년 이후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02년부터 청소년 상호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의 자치단체간 교류의 경우 '93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도, 경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94년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울산 '95년 경북, 제주 '96년 광주, 충북 '98년 전남 순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의 75%이상이 중국 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있다.

중국은 자매결연 교류의 양적인 면에서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우위에 있으나,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는 정기적인 교류 사례를 찾기 힘들

³⁶ 문화관광부, 앞의책 (2001).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과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실태 조사가 거의 전무실정에 기인한 탓도 있겠지만,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자치단체들이 주로 경제통상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기에 자매교류에 비해 아직까지 청소년교류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중국 자치단체와 활발한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로는 전남과 절강성의 교류 사례를 들 수 있다. 전남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늦게 중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나, 매해 정기적으로 중국과 고등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 외에 중국과 정기적인 청소년교류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로 충북과 흑룡강성, 경남과 산둥성의 교류 사례가 있고, 이외에 부산시와 상해시, 경기도와 광둥성, 대구시와 칭도시 등의 교류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과 청소년교류 사업을 추진한 시기는 대개가 '90년대 후반으로 '00년 이후 교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중국이 일본보다 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나 실제 청소년교류는 중국보다 일본과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사회체제 변화 시점이나 외교정책 등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인식과 교류중점을 재고해 볼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류 프로그램 대부분이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인식을 가지 있으며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과의 청소년교류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에 대한 적극적 추진 노력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일본 자치단체들의 제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과의 교류의 경우 자매결연 체결 비율은 높으나 이에 비해 청소년교류는 아직까지 미미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들이 교류의 중점을 주로 경제 분야에 두고 있다. 주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교류의 경우 단체장의 표면

적 실적을 내세우기 위한 정도의 부차적인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교류의 경우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교류 효과가 표면화되는 것도 쉽지 않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 교류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체제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교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청소년 국제교류가 좌우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체장이 자신의 임기를 넘어 효과가 발생하는 청소년 교류에 대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철경(2000)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국제교류는 행정적 의무사항도 아니고 강제조항도 없기에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청소년교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재정부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만으로 청소년교류를 추진하기에는 체계적이고 정착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의 경우 다른 분야의 활발한 교류에 비해 청소년 교류가 극히 미미한 실정인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중국 측이 청소년 교류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측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보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성을 띄고 중국 지방자치단체에 제의를 한다면 중국과의 교류 사업은 활성화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청소년 교류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일본, 중국과 교류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과의 후원 연계 체계 또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조직을 살펴보면 국제교류를 전담하

고 있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 또는 통상협력과 등과 단위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국제교류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국제교류 조직관련 조사에 의하면 국제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30.8%가 국제교류 전담 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62.9%가 전담 부서가 없다고³⁷ 응답한 것을 볼 때, 청소년 교류 전담 부서의 실정은 더욱 취약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중국과 교류 사례가 있는 자치단체들의 청소년교류를 담당했던 부서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여성정책국 청소년과에서, 인천시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과에서, 부산시의 경우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서, 충청남도의 경우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교류를 담당했는데, 이들 부서들은 국제교류 업무만 전담하기보다는 다른 업무와 중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국제교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전담 조직의 부재는 또한 전문 인력 확보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질적으로 발전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정부간 교류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일본과의 교류를 위한, 중국과의 교류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례가 거의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성 행사성 위주의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이러한 한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정기적으로 일본, 중국과 교류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도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 차별성 없는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역적 특색에 맞는 국가별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개발 시행되어 질적인 교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³⁷ 이정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과 교류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면, 현재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교류의 양적 확대 측면에까지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사업의 실태와 통계 자료를 파악 관리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간의 청소년교류를 총괄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자치단체 간 연계성이나 정보교류, 협력 체계가 전무하다는 점, 자치단체 간 자매교류는 시·도,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나 학생단위의 교류 사업은 시도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된 행정 추진 체계 등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일 분, 중국과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 보완을 필요로 하는 많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4. 청소년단체 간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62개 단체와 기타 가입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하여 총210여개의 청소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인 협의체로 창설되어, 아시아청소년회의(AYC)와 세계청소년회의(WAY)에 가입하여 한국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연맹 형태의 국제조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단체가 가맹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단체 간 상호 교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³⁸

우리나라의 청소년국제교류는 민간단체의 교류가 전체의 약90%(파견 90.51%, 초청 88.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몇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교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청소년단체의 교류라고 볼 수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99년과 '00년, '01년 청소년국제교류 통계 자료에

³⁸ 김경준,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따르면, 전체 청소년교류 인원(지도자 제외)의 각각 93%이상, 90%, 81% 이상이 청소년단체에 의한 교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는 '98년 경제난으로 교류 인원이 대폭 감소했었으나 '99년부터 교류 인원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파견, 초청 측면에서 볼 때 초청 교류에 비해 파견 교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9> 1999년도 청소년국제교류 통계

분 류		초 청				파 견			
		정부	자치 단체	민간 단체	계	정부	자치 단체	민간 단체	계
청소년 교류	국가수	7	2	19	22	11	3	12	19
	인원	136 (64)	26 (4)	1,420 (237)	1,582 (305)	253 (78)	118 (12)	1,479 (264)	1,850 (354)
청소년 연수	국가수	0	0	10	10	0	0	11	11
	인원	0	0	70 (21)	70 (21)	0	0	2,462 (316)	2,462 (316)
국제 회의	국가수	0	0	20	20	0	0	7	7
	인원	0	0	64 (62)	64 (62)	0	0	190 (32)	190 (32)
국제 행사	국가수	0	0	48	48	0	0	16	16
	인원	0	0	746 (70)	746 (70)	0	0	720 (91)	720 (91)
합계	국가수	7	2	58	58	11	3	24	29
	인원	136 (64)	26 (4)	2300 (390)	2,462 (458)	253 (78)	118 (12)	4,851 (703)	5,222 (793)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9).

*참고: ()는 지도자수.

³⁹ 단체의 교류 증가율이 감소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 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교류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표 VI-10> 2001년도 청소년국제교류 통계

분 류		초청				파견			
		정부	자치 단체	민간 단체	합계	정부	자치 단체	민간 단체	합계
청소년 교류	국가수	23	14	43	46	17	9	35	45
	인원	319	126	162	2097	334	940	4281	5555
	지도자수	19	79	398	496	53	118	905	1076
청소년 연수	국가수	0	4	24	26	0	3	13	13
	인원	0	88	110	198	0	88	1912	2000
	지도자수	0	22	100	122	0	13	398	411
국제 회의	국가수	0	0	25	25	0	0	14	14
	인원	0	0	114	114	0	0	126	126
	지도자수	0	0	27	27	0	0	79	79
합계	국가수	23	5	56	59	17	8	35	45
	인원	319	214	1876	2409	334	1028	6319	7681
	지도자수	19	101	525	645	53	131	1382	1566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1)

<표 VI-11> 민간단체 주관 교류 현황

(단위: 명)

구 분		'97			'98			'99			'00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파견	초청	계
청소년 교류	국가수	20	19	19	9	10	31	12	19	31	15	27	42
	인원	2,366	1,001	5,575	4,436	1,139	2,899	1,479	1,420	2,899	3,214	1,025	4,239
청소년 연수	국가수	11	4	6	5	1	21	11	10	21	15	15	30
	인원	5,620	91	203	168	35	2,532	2,462	70	2,532	2,335	210	2,545
국제 회의	국가수	8	15	13	12	1	27	7	20	72	12	28	40
	인원	30	51	101	92	9	254	190	64	254	74	94	168
국제 행사	국가수	8	33	20	10	10	64	16	48	64	24	61	85
	인원	556	1,195	1,316	556	760	1,466	720	746	1,466	1,337	1,456	2,793
합계	국가수	47	71	58	36	22	143	46	97	143	30	71	101
	인원	8,572	2,338	10,910	960	1,943	2,903	4,851	2,300	7,151	6,960	2,785	9,745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료 재구성, 각 년도.

우리나라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를 살펴보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해 있는 62개 회원단체가 청소년국제교류의 대부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들의 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단체의 국가별 교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일본과 교류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국가별 청소년국제교류(인원) 통계 현황에 의하면, '99년 전체 국제교류 인원의 80%이상이 일본, 중국과의 교류였고, '01년은 93%이상이 일본, 중국과의 교류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2> 일본, 중국 청소년국제교류 인원 현황

단위: 명(%)

	1999년	2001년
일 본	5436 (77.0)	5121 (63.0)
중 국	879 (12.5)	2518 (30.0)
기타 교류국가 합계	737 (10.5)	538 (7.0)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료 재구성, 각 년도.

위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제교류의 대부분이 일본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청소년단체들이 일본과의 교류를 실시했을 정도로 일본과는 양적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들의 교류는 일본과 편중되어 있는 것에 비해 청소년들의 교류 관심 지역은 주로 유럽이나 북미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동안 단체들의 일본과의 교류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과 교류 홍보적 측면의 점검이 필요로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청소년들의 교류 관심 지역은 사회 환경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청소년단체의 교류 중 일본, 중국과의 교류가 80% 이상을 차지하

⁴⁰ 조영승 외, “청소년교류의 정책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1999).

고 있는 실정에 비해 청소년들의 교류 희망 국가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관심을 반영하는 교류 프로그램 시행이라는 측면과도 상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일본, 중국과의 교류의 양적인 감소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단체의 일본, 중국 교류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일본, 중국 교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단체들의 한·일 교류는 양적으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도 프로그램들은 일회성의 친선 도모 수준의 교류행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취약한 실정이다. 비교적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자리 잡은 단체는 국제적인 연계망을 갖추고 있는 몇몇 단체에 국한되어 있다.

중국과의 국제교류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 해 볼 때 일본 다음 순으로 많은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일본과의 교류에 비해 극히 미미한 단계로 대한적십자사,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등과 같은 국제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단체에 의해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정기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는 단체는 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단체의 중국과의 교류는 일본과의 교류 보다 교류의 정기적, 지속성 면에서 훨씬 취약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교류가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에서도 중국과의 교류가 전무가 경우가 많다.

또한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실태를 살펴 보면, 초청 교류에 비해 파견 교류가 현저히 많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본과 중국에 나가 직접적인 교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그에 못지않게 일본, 중국 청소년들의 국내로 유입 교류 또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류(exchange)란 일방적으로 한쪽이 어느 다른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양방향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단체의 교류는 양방향성의 흐름이 극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중국 청소년의 국내 유입 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단체의 교류 확대와 질적으로 가치 있는 교류 시행을 위해서는 단체의 교류 활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지원 체계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단체의 교류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주축이 된 청소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봉사활동 이수 제도 형식과 같이 교류활동 시간에 대해 인정해 주는 교육체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 중국과의 청소년단체 간 교류는 정부 간 교류나,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의 예산의 문제, 일본, 중국 교류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부재의 문제, 전문 인력의 문제, 실태파악과 총괄체계의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의 장애요인들에 대한 검토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시행 예산은 대부분 정부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는 교류 시행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주로 교류경험이 있는 단체에 정부 지원이 편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교류 단체의 확대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VII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협력 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분석

1. 제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이 연구는 동북아지역의 바람직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방안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1차 기초의견 조사는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청소년교류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교류협회 근무자 5명,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5명, 문화관광부 및 통일부의 국제교류 담당자 5명, 중앙청소년 수련원 및 관련 청소년 단체 근무자 5명(총) 2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2004. 7월 12일부터 7월 31까지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1명이 제1차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 내용은 먼저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에서는 ‘동북아 (한·중·일)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한·중·일 동북아 문화공동체형성’에서는 ‘한·중·일 삼국 간의 바람직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청소년교류활동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관한 의견’과 ‘역사, 대중문화, 학술대회, 스포츠, 관광 및 유적지탐사, 민박활동, 청소년 지도자 교류 중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들과 그 이유에 관한 의견’에 관하여 조사자들의 생각을 적도록 하였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법·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동북아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정비에 대한 의견 및 개선 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교류의 장애요인’ 영역에서는 장애요인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부문에서는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를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에서 향후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의 발전방안 및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제 1차 조사는 모두 영역별 질문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한 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고 응답수를 검토하여 조사결과로 제시하였다.

가.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의 필요성

<표 VII-1>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역할과 기능

응답 문항	설문내용	복수응답수
1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	7
2	상대국가(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	5
3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5
4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만들 수 있음	3
5	세계 공통의 문제(환경, 가난, 전쟁, 질병)를 공유할 수 있음	2
6	평화의 문화 정착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	2
7	문제해결과정 참여를 통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기능수행	1
8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토대 마련	1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질문에는 <표 VII-1>에서와 같이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 ‘상대국가(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그리고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만들 수 있음’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한·중·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방안

<표 VII-2>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활동의 방향 및 접근방식

응답 문항	설문내용	복수 응답수
1	문화교류와 역사교류	6
2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2
3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 도입	2
4	3개국 유사전공 대학생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2
5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2
6	동북아 3국의 다양한 청소년교류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필요	2
7	자원봉사나 공동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1
8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1
9	학술활동을 중심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필요	1
10	청소년문화, 사회 등 특정한 테마위주의 교류내용 구성이 필요	1
11	특수한 분야의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교류 필요	1
12	폭넓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	1
13	지도자 교류(포럼 결성, 행사 위주의 교류) 필요	1
14	단계적 접근, 차별적 접근, 지속적 접근이 필요	1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활동의 방향 및 접근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표 VII-2>에서와 같이 ‘문화교류와 역사교류’,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 도입’, 그리고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 한·중·일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영역

<표 VII-3>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에서 중점 두어야 할 영역들 및 그 이유

응답 문항	설문내용	복수 응답수
1	청소년지도자 교류 ①지속적인 청소년교류를 이끌어 나갈 휴먼웨어로서의 청소년지도자교류가 필요함 ②사업별 목적을 특성화하며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자 선정이 요구됨	5
2	민박활동 ①해당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음 ②포장되지 않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음 ③상호이해 및 인간관계형성이 교류의 핵심이므로 ④생활체험을 통한 문화이해 및 공감대형성의 최선책	4
3	역사교류 ①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음 ②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	3
4	대중문화교류 ①각국의 청소년들의 유행과 의식을 알 수 있음 ②청소년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므로 ③공동체형성을 위해 가장 공감대 형성이 효과적인 분야임	2
5	학술 교류 ①전문가 중심의 학술·연구 교류를 중심으로 청소년교류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6	관광 및 유적지 탐사 ①과거의 실상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됨 ②실제 역사현장 및 주변환경을 몸으로써 상호문화의 이해를 높임	3
7	기타 의견 ①문화간 유사성과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적자원교류 ②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회의 ③지역의 문제해결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자원 활동 ④청소년개별 및 단체 교류	2

라.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정비방안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적인 정비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표 VII-4> 에서와 같이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폭넓은 예산 지원’,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의 간편화 필요’, 그리고 ‘정부출연기금으로 (가칭) 동북아 청소년문화 교류재단 설립’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VII-4> 동북아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적 정비방안

응답 문항	설 문 내 용	복수 응답수
1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폭넓은 예산 지원	5
2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4
3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4
4	청소년 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의 간편화 필요	4
5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	3
6	정부출연기금으로 (가칭) 동북아 청소년문화 교류재단 설립	1
7	청소년관련법에 “동북아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 명시	1
8	청소년교류에 대한 기업체의 협찬 방안 강구대책 마련	1
9	단체의 능동적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사후관리의 법제도 요구	1
10	청소년교류활성화를 위한 3국간 협정, 양해각서 강화	1

마.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장애요인(중앙/지방정부/민간단체)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을 묻는 의견에 대해서는 <표 VII-5>에서와 같이,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부족’,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부족’,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치르다 보니 형식에 치우치기 쉬움’, 그리고 ‘정치적 또는 정권교체에 따른 청소년교류 정책의 잦은 변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VII-5>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중앙정부)

응답 문항	설문내용	복수 응답수
1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5
2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부족	4
3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부족	3
4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치르다 보니 형식에 치우치기 쉬움	3
5	정치적 또는 정권교체에 따른 청소년교류 정책의 잦은 변화	3
6	청소년국제교류가 민간단체차원의 교류로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음	2
7	재정지원의 열악	2
8	작은 인원으로 국제교류진행시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	1
9	프로그램 개발 시급	1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애요인은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인식 부족’, ‘재정 문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전공자)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의 필요성 시급’, 그리고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 없음’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VII-6>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지방자치단체)

응답 문항	설문내용	복수 응답수
1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인식 부족	8
2	재정 문제	3
3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전공자) 부족	3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의 필요성 시급	2
5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 없음	1
6	상호기관의 협력체제구축의 실패	1

셋째, 민간단체 차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의 장애요인은 ‘전문가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재정 문제’, ‘너무 상업적이고 이윤추구에 청소년국제교류를 이용하고 있음’, 그리고 ‘일방적인 초청 및 관광위주, 교류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표 VII-7>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민간단체)

응답 문항	설문내용	복수 응답수
1	전문가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8
2	재정 문제	6
3	너무 상업적 이윤추구에 청소년국제교류를 이용하고 있음	2
4	일방적인 초청 및 관광위주, 교류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	1
5	단체간 수행능력의 편차	1
6	지도자 교육의 소홀	1

바. 동북아 청소년 교류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향후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발전방안 및 수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표 VII-8>에서와 같이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시급’, ‘민간교류단체의 육성과 지원’, ‘정기적인 동북아 소식지 발간’, ‘교류에 앞서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임’, 그리고 ‘동북아 청소년의 타민족에 대한 의식조사’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VII-8> 향후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발전방안 및 수행을 위한 정책과제

질문 번호	설문내용	복수 응답수
1	1.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8
2	2.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 3.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6
3	4.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시급	4
4	5. 민간교류단체의 육성과 지원	3
5	6. 동북아 청소년 문화에 대한 비교연구	1
6	7. 동북아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비교조사연구	1
7	8. 동북아 청소년의 타민족에 대한 의식조사	1
8	9. 유학생의 적극적 유치 및 대학 등 10. 교육기관과의 연계 확대	1
9	11.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	1
10	12. 정기적인 동북아 소식지 발간	1
11	13. 교류에 앞서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임	1
12	14. 재정(기금) 조성 방안 연구	1
13	15. 지자체간 혹은 국제도시간의 교류활성화 촉진	1

2. 제 2차 문항별 중요도조사 결과

동북아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에 관한 제 1차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문항별 중요도와 추진전략을 단기적 차원과 중장기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 1차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11명의 분야별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004. 8월 16일에서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과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등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문항이 10개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5개를 우선순위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둔 가중빈도를 구하여 각 항목별로 1순위에서 마지막 순위까지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각 순위에 따른 가중치 산출 근거로는 앞선 순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순위별 등급 차는 1점으로 하여 1순위 가중치는 8점, 2순위는 7점, 3순위는 6점, 4순위는 5점, 5순위는 4점, 6순위 3점, 7순위 2점, 8순위 1점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빈도는 1순위에 대한(빈도×가중치), 2순위에 대한(빈도×가중치), 3순위에 대한(빈도×가중치), 4순위에 대한(빈도×가중치), 5순위에 대한(빈도×가중치), 6순위에 대한(빈도×가중치), 7순위에 대한(빈도×가중치), 8순위에 대한(빈도×가중치)로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중요시하는 항목 순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가중빈도 합계 점수가 동점일 때는 1순위에 가까운 빈도 합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항목순위를 결정하였다.

가.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의 필요성

동북아 (한·중·일)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중요성 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9>에서와 같이 ① 상대국가(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 ②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 ③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구축, ④ 동북

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⑤ 평화의 문화 정착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II-9>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

번호	항 목	순위 빈도(단기적 차원의 중요성)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6	7	8			
1	동북아공동체의식(파트너십)함양	2	3	1	2		2	1		11	61	②
2	상대국가(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	7	2	1	1					11	81	①
3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3	2	1	2	3		11	44	④
4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구축	1	4	1	1	1	1	2		11	58	③
5	세계 공통의 문제(환경, 가난, 전쟁, 질병)를 공유노력	1	1			5			4	11	36	⑦
6	평화 문화 정착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		1	1	4	1	1	1	1	11	43	⑤
7	문제해결과정에 참여를 통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기능 수행			3	1	2	3	1	1	11	43	⑥
8	한국이 동북아중심국가로의 토대 마련			1		1	2	2	5	11	25	⑧

장기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10>에서와 같이 ①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토대 마련 계기, ②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 ③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구축, ④ 평화의 문화 정착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 ⑤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VII-10>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에 관한
장기적 차원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

번호	항 목	순위 빈도(장기적 차원의 중요성)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6	7	8			
1	동북아공동체의식(파트너십)함양	2	2	2	1	2	2			11	61	②
2	상대국가(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	1		1	1	1	2	1	4	11	34	⑧
3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3	1	2	1	2	1	1	11	50	⑤
4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구축	2	2		1	2	1	2	1	11	52	③
5	세계 공동의 문제(환경, 가난, 전쟁, 질병)를 공유노력			2	3	1	1	3	1	11	41	⑥
6	평화의 문화 정착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		1	4	2	2		1	1	11	52	④
7	문제해결과정에 참여를 통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 기능 수행		2			2	3	2	2	11	34	⑦
8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토대 마련	6		2	1			1	1	11	76	①

특히 청소년국제교류를 통한 단기적 차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국가 및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동북아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동북아 지역이 갖는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과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한·중·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방향

한·중·일 삼국 간 바람직한 청소년교류 활동의 방향 및 접근방식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11>에서와 같이 조사되었다. ① 자원봉사나 공동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마련, ② 정부의 지원 확대, ③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④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⑤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11> 3국 간 청소년교류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및 접근방식에 관한 단기적 추진과제

번호	항 목	순위 빈도(단기적 차원의 추진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1	문화교류와 역사교류 확대	1				1	2	6	
2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1	1	1	3	1	7	19	③
3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 도입		1	1	1		3	9	
4	3개국 유사전공 대학생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2			2	6	
5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2	1				3	14	⑤
6	동북아 3국의 다양한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기반 마련	1		1	2		4	12	
7	자원봉사나 공동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마련	3	1	2		3	9	28	①
8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1	2	1	1		5	18	④
9	학술활동을 중심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필요			1	1		2	5	
10	청소년문화, 사회 등 특정한 테마위주의 교류내용 구성		1	1	2	1	5	12	
11	특수한 분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교류 추진			1		1	2	4	
12	정부의 지원 확대	2	2	1	2	2	9	27	②
13	지도자 교류(포럼 결성, 행사 위주의 교류)		1			1	2	8	
14	단계적 접근, 차별적 접근, 지속적 접근		1				1	5	

장기적인 차원의 추진과제로서는 <표 VII-12>에서와 같이 ①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②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 도입, ③ 정부의 지원 확대, ④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⑤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II-12> 3국 간 청소년교류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및 접근방식에 관한 장기적 추진과제

번호	항 목	순위 빈도(장기적 차원의 추진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1	문화교류와 역사교류 확대	2		1		1	4	14	
2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1	2	2	2	1	10	24	①
3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 도입	1	2	2	1		6	21	②
4	3개국 유사전공 대학생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5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1	1	2		1	5	16	
6	동북아 3국의 다양한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기반 마련	2			3	1	6	17	⑤
7	자원봉사나 공동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마련		1		3	2	6	12	
8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2			1	3	9	
9	학술활동을 중심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필요								
10	청소년문화, 사회 등 특정한 테마위주의 교류내용 구성				1		1	2	
11	특수한 분야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된 교류 추진								
12	정부의 지원 확대	1	1	3	1		5	20	③
13	지도자 교류(포럼 결성, 행사 위주의 교류)			1		2	3	5	
14	단계적 접근, 차별적 접근, 지속적 접근	2	1		2		5	18	④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중·일 삼국 간 바람직한 청소년교류 활동의 방향 및 접근방식에 관한 단기적 차원에서는 “자원봉사나 공동작업을 통한 삼국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추진과제인 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조사되었다.

다. 한·중·일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영역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교류의 영역들 중에서 단기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표 VIII-13>에 서와 같이 ① 대중문화분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미 제1차 조사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 각국의 청소년들의 유행과 의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관심영역 이면서, ㉢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공감대 형성으로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은 ② 민박활동(Home-stay)으로 ㉣ 해당 국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간의 친목도모 가능성, ㉤ 포장되지 않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상호이해 및 인간관계형성이 교류의 핵심, ㉦ 생활체험을 통한 문화이해 및 공감대형성의 최선책 등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③ 청소년지도자교류로서 구체적으로는 ㉧ 지속적인 청소년교류를 이끌어 나갈 휴먼웨어로서의 청소년지도자교류가 필요하며, ㉨ 사업별 목적을 특성화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 밖에 ④ 학술 교류, ⑤ 기타의견(㉩ 문화 간 유사성과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적자원교류, ㉪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청소년회의, ㉫ 지역의 문제해결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 ⑥ 관광 및 유적지 탐사, ⑦ 역사교류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VII-13 >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중 단기적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과 그 이유에 관한 의견

번호	항 목	순위 빈도 (단기적 차원의 중요성)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6				7	
1	청소년지도자 교류 ㉔ 지속적인 청소년교류를 이끌어 나갈 휴먼웨어로서의 청소년지도자 교류필요 ㉕ 사업별 목적을 특성화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전문성이 요구	3		2	2	1	2	10	46	③		
2	민박활동 ㉔ 해당 국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간의친목을 도모가능 ㉕ 포장되지 않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 ㉖ 상호이해와 인간관계형성이 교류의 핵심 ㉗ 생활체험을 통한 문화이해 및 감대형성의 최선책	1	4	1	1	2	1	10	48	②		
3	역사교류 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능 ㉕ 상호이해에 도움이 됨			2		3	4	1	10	28	⑦	
4	대중문화교류 ㉔ 각국의 청소년들의 유행과 의식을 파악할 수 있음 ㉕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관심영역 ㉖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공감대 형성으로 효과적인 분야임	3	2	4	1			10	57	①		
5	학술 교류 ㉔ 전문가 중심의 학술·연구 교류를 중심으로 청소년교류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1	3	1	1	2	10	36	④	
6	관광 및 유적지 탐사 ㉔ 과거의 실상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됨 ㉕ 실제 역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봄으로써 상호문화의 이해를 높임		1		3	4		2	10	32	⑥	
7	기타 의견 ㉔ 문화간 유사성과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적자원교류 ㉕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청소년 회의 ㉖ 지역의 문제해결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 ㉗ 청소년개별 및 단체 교류 확대	4						1	4	9	34	⑤

청소년교류의 영역들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중요성으로는 <표 VII-14>에서와 같이 ① 학술 교류를 통하여 전문가 중심의 학술·연구 교류를 중심으로 청소년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VII-14 > 청소년국제교류 활동 중 장기적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과 그 이유에 관한 의견

번호	항 목	순위 빈도(장기적 차원)							빈도 합계	가중 빈도	우선 순위
		1	2	3	4	5	6	7			
1	청소년지도자 교류 ㉔ 지속적인 청소년교류를 이끌어 나갈 휴먼웨어로서의 청소년지도자 교류필요 ㉕ 사업별 목적을 특성화하고 목적에 합하는 대상자의 전문성이 요구	1	4	4	1				8	55	②
2	민박활동 ㉔ 해당 국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가능 ㉕ 포장되지 않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 ㉖ 상호이해 및 인간관계형성이 교류의 핵심 ㉗ 생활체험을 통한 문화이해 및 감대형성의 최선책	1			1	1	3	4	10	24	⑦
3	역사교류 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능 ㉕ 상호이해에 도움이 됨	2	1	2	4		1		10	48	③
4	대중문화교류 ㉔ 각국의 청소년들의 유행과 의식을 파악할 수 있음 ㉕ 청소년의 공통적인 관심영역 ㉖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공감대 형성으로 효과적인 분야임	1		2	1	3	2		10	34	⑤
5	학술 교류 ㉔ 전문가 중심의 학술·연구 교류를 중심으로 청소년교류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4	1		2			10	56	①
6	관광 및 유적지 탐사 ㉔ 과거의 실상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됨 ㉕ 실제 역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봄으로써 상호문화의 이해를 높임		1		2	3	2	2	10	29	⑥
7	기타 의견 ㉔ 문화간 유사성과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적자원교류 ㉕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청소년 회의 ㉖ 지역의 문제해결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 ㉗ 청소년개별 및 단체 교류 확대	2	1	1	1	1	1	2	10	36	④

그 다음으로 ② 청소년지도자 교류, ③ 역사교류, ④ 기타의견 ㉔ 문화간 유사성과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적자원교류, ㉕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청소년 회의, ㉖ 지역의 문제해결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자원봉사 활동), ⑤ 대중문화교류, ⑥ 관광 및 유적지 탐사, ⑦ 민박활동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정비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15>에서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VII-15 > 동북아 청소년교류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정비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개선 방안

번호	항 목	순위 빈도(단기적 차원의 추진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우선 순위
		1	2	3	4	5			
1	청소년교류에 대한 폭넓은 예산 지원	7		1	1		9	40	①
2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1	3	2	1	1	8	26	③
3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2	3	2	3	1	11	35	②
4	청소년국제교류시 출입국절차 간편화필요		2	1	2		5	15	⑤
5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				1		1	2	⑨
6	정부출연기금으로 (가칭) 동북아 청소년문화 교류재단 설립		2		1	1	4	11	⑦
7	청소년관련법에 “동북아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 명시								⑩
8	청소년교류에 대한 기업체의 협찬 방안마련			2		1	3	7	⑧
9	청소년 국제교류 단체의 자체적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사후관리의 법제도 확립 필요	1		2	2	1	6	16	④
10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국가간 협정, 양해각서 강화		1	1		5	7	12	⑥

①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폭넓은 예산 지원, ②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③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④ 청소년 국제교류 단체의 자체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사후 관리의 법제도 확립 필요, ⑤ 청소년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 간편화의 필요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영역에 걸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의 필요성과 함께 청소년 국제교류의 주도적인 역할이 점차 민간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폭넓은 예산지원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②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 나라간 협정체결 및 양해각서 교환, ③ 정부출연기금으로 (가칭)동북아 청소년문화 교류재단 설립, ④ 청소년관련법에 “동북아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 명시, ⑤ 청소년 국제교류 단체의 자체적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사후관리의 법제도 확립 필요성 등의 순으로 법적·제도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민간단체 중심의 청소년교류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 간 협정체결, 청소년문화 교류재단을 건립, 그리고 청소년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중요한 몫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의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범국가적인 인력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장기적 차원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16>에서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VII-16 > 동북아 청소년교류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정비에 관한 장기적 차원의 개선 방안

번호	항 목	순위 빈도 (장기적 차원의 추진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1	청소년교류에 대한 폭넓은 예산지원	5	2	1		1	9	37	①
2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2	2	1	5	11	⑦
3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1	1	1	4	7	13	⑥
4	청소년국제교류시 출입국절차 간편화필요		1		1	2	4	8	⑨
5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			2	2		4	8	⑨
6	정부출연기금으로 (가칭) 동북아 청소년문화 교류재단 설립	2	3				5	22	③
7	청소년관련법에 “동북아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 명시	2	1			5	8	19	④
8	청소년교류에 대한 기업체 협찬 방안마련			1	3		4	9	⑧
9	단체의 능동적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사후관리의 법제도 확립 필요	1	1	2	1	1	6	18	⑤
10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국가간 협정체결 및 양해각서 교환	2	2	2		1	7	25	②

마.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장애요인(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단기적인 해결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17>에서와 같이 조사되었다.

①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②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 부족, ③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형식에 치우치기 쉬움, ④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시급, ⑤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18>에서와 같이 조사되었다.

①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②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 부족, ③ 재정확보의 어려움, ④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부차원에서의 정보

부족, ⑤ 정치적 또는 정권교체에 따른 청소년교류 정책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표 VII-17> 청소년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단기적 차원의 해결과제(중양)

번호	항 목	순위 빈도 (단기적 차원의 해결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우선 순위
		1	2	3	4	5			
1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4	2		1	2	9	32	①
2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부족	3	2	1	1		7	28	②
3	국제적네트워크와 정부차원의 정보부족			4			4	12	
4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치르다 보니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	3	1	1	1	1	7	25	③
5	정치적 또는 정권교체에 따른 청소년교류 정책의 변화		3				3	12	
6	청소년국제교류가 민간단체차원의 교류로 이양 미흡	1		1	2		4	12	
7	재정확보의 어려움		2	1	2	1	6	16	⑤
8	작은인원으로 국제교류시 과중한 업무 부담			2		3	5	9	
9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시급		1	1	3	4	9	17	④

조사 내용으로 보아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차원에서 모두 청소년교류의 전문성 및 전문가의 부재와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이해부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표 VII-18> 청소년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기적 차원의 해결과제(중앙)

번호	항 목	순위 빈도 (장기적 차원의 해결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1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4	2	2		1	9	35	①
2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부족	1	5	1	2		9	32	②
3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부족	3		2		1	6	20	④
4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치르다 보니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		1	2	1		4	12	
5	정치적 또는 정권교체에 따른 청소년교류 정책의 변화		1		1		2	6	
6	청소년국제교류가 민간단체차원의 교류로 이양 미흡		1	2	1	1	5	13	⑤
7	재정확보의 어려움	2		3	1	2	7	23	③
8	작은 인원으로 국제교류진행시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부담				4		4	8	
9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시급		1		1	5	7	11	

그 밖에 청소년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청소년교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및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교류 정책이 너무 정치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서 오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청소년교류정책 추진의 어려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단기적인 해결과제로서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19>에서와 같이 ① 청소년교류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전공자) 부족, ② 청소년교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③ 열악한 재정, ④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 ⑤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서 부재 등을 제시하였다.

<표 VII-19> 청소년 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단기적 차원의
해결과제(지자체)

번호	항 목	순위 빈도 (단기적 차원의 해결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우선 순위
		1	2	3	4	5	6			
1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인식 이해 부족	3	2	1	1	1	3	11	40	②
2	열악한 재정 문제	1	3	2	1	2	2	11	38	③
3	전문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전공자) 부족	7	1	2		1		11	57	①
4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연구 필요성 시급		2	3	3	2	1	11	36	④
5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서 부재		2	2	2	1	3	10	29	⑤
6	상호기관의 협력체제구축의 실패		1	1	4	3	1	10	28	⑥

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20>에서와 같이 ① 청소년교류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전공자) 부족, ② 청소년교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③ 열악한 재정, ④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은 단기적인 차원과 같은 순서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⑤ 청소년교류를 위한 상호기관의 협력체제구축의 실패 와 ⑥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서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분석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교류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는 청소년교류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과 청소년교류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기회 제공 및 국제교류 전문성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하려는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나 연구소 차원에서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 지침서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VII-20〉청소년 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기적 차원의
해결과제(지자체)

번호	항 목	순위 빈도 (장기적 차원의 해결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6			
1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	1	5	2	2	1		11	47	②
2	열악한 재정 문제	2	2	3	2	1	1	11	47	②
3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전공자) 부족	4	2	1	2	1		10	48	①
4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의 필요성	3	1	2	2	2	1	11	42	④
5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서 부재	1			1	5	3	10	22	⑥
6	상호기관의 협력체제구축의 실패			3	2	1	5	11	25	⑤

민간단체 차원에서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단기적인 해결과제로서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21〉에서와 같이 ① 재정 문제 열악, ② 국제교류 전문가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 ③ 단체 간 수행능력의 편차가 매우 큼, ④ 일방적인 초청, 관광중심의 교류 활동과 정보의 부재, ⑤ 지도자 교육의 소홀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22〉에서와 같이 ① 전문가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 ② 재정 문제 열악, ③ 지도자 교육의 소홀, ④ 단체 간 수행능력의 편차가 매우 큼, ⑤ 일방적인 초청, 관광중심의 교류활동과 정보의 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결과에서와 같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문제가 열악하다는 점과 국제교류를 담당할 전문가 확보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이다.

또한 민간 단체 간 국제교류 수행능력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지적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수행지침서 및 평가 매뉴얼 등의 보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표 VII-21> 청소년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단기적 차원 해결과제(민간)

번호	항 목	순위 빈도 (단기적 차원의 해결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6			
1	국제교류 전문가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	3	4	1	2		1	11	49	②
2	재정 문제 열악	6	1	1	1	1	1	11	51	①
3	너무 상업적이고 이윤추구에 청소년국제교류를 이용함	1	2		1	4	3	11	30	⑥
4	일방적인 초청, 관광중심의 교류활동과 정보의 부재	1	2	1	3	1	3	11	34	④
5	단체간 수행능력의 편차가 매우 큼		2	4	2	1	2	11	36	③
6	지도자 교육의 소홀			4	2	4		10	34	④

<표 VII-22> 청소년국제교류 수행의 가장 큰 장기적 차원 해결과제(민간)

번호	항 목	순위 빈도 (장기적 차원의 해결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6			
1	전문가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	7	1	1		1	1	11	54	①
2	재정 문제 열악	1	6	3	1			11	51	②
3	너무 상업적이고 이윤추구에 청소년국제교류를 이용함	1	1			3	6	11	23	⑥
4	일방적인 초청, 관광중심의 교류활동과 정보의 부재	1	1		2	4	3	11	28	⑤
5	단체간 수행능력의 편차가 매우 큼	1		2	3	4	1	11	32	④
6	지도자 교육의 소홀		2	3	3		2	10	33	③

바. 동북아 청소년교류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동북아 청소년교류 증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23>에서와 같이 ①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시급, ②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③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④ 민간교류단체의 육성과 지원, ⑤ 재정(기금) 조성 방안 연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23>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의 활동의 단기적 차원의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번호	항 목	순위 빈도 (단기적 차원의 추진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1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2	3	1	1		7	27	②
2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2	2	1	1	1	7	24	③
3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시급	3	3	1	2		9	32	①
4	민간교류단체의 육성과 지원	2	2		2	1	7	23	④
5	동북아 청소년 문화에 대한 비교연구			2	1	1	4	9	
6	동북아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비교조사연구		1				1	4	
7	동북아 청소년의 타민족에 대한 의식조사	1					1	5	
8	유학생의 적극적 유치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교류 확대			2			2	6	
9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					3	3	3	
10	정기적인 동북아 소식지 발간								
11	교류에 앞서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임			3	1	1	5	12	
12	재정(기금) 조성 방안 연구	1		2	3		6	17	⑤
13	지자체간 혹은 도시간의 교류활성화 촉진			1	1	1	3	6	

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표 VII-24>에서와 같이 ①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②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③ 재정(기금) 조성 방안 연구, ④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시급, ⑤ 지자체 간 국제도시간의 교류 활성화 촉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II-24>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장기적 차원의 발전방안
정책과제

번호	항 목	순위빈도 (중장기적 차원의 추진과제)					빈도 합계	가중 빈도 합계	우선 순위
		1	2	3	4	5			
1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4	4	1	2		11	43	①
2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1	5	1	1		8	30	②
3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시급	2	1	3		1	7	24	④
4	민간교류단체의 육성파 지원			1	1	1	3	6	
5	동북아 청소년 문화에 대한 비교연구			3		2	5	11	
6	동북아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한 비교조사연구				1		1	2	
7	동북아 청소년의 타민족에 대한 의식조사								
8	유학생의 적극적 유치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교류 확대								
9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								
10	정기적인 동북아 소식지 발간			1			1	3	
11	교류에 앞서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임				1	5	6	7	
12	재정(기금) 조성 방안 연구	4			2	2	8	26	③
13	지자체간 혹은 도시간의 교류활성화 촉진		1	1	3		5	13	⑤

VIII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활성화 방안

1.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방안

문화 패러다임이란 단순히 특성화된 분야의 개념은 아니다. 문화의 가치는 다양성, 참여, 소통, 자율성 이런 가치들과 이어져 있다. 이런 가치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내외적인 문화개방을 통한 타 문화이해와 포용정책을 기조로 국가 간의 활발한 상호교류가 수반되지 않으면 패러다임의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과정이 유럽과 북미지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연대들 간의 교류협력에서는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경제적인 교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 활동에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국가 간 인식의 차이 등과 같은 대외적 환경요소를 비롯하여 각 국의 현실적인 문제도 내재해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해가면서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독자성에 바탕을 둔 청소년 국제교류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기관과 민간 단체를 포함하여 관심 있는 모든 국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문화교류 정책 또는 문화외교는 단순히 국가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상대방 문화에 대한 존중, 상대방 문화의 올바른 수용을 포함하여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올바로 소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아가 현재 그리고 미래 문화공동체 형성의 주인공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로의 국가 간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동북아 3국이 청소년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국가 간 청소년문화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

국가 간 문화교류의 목적인 자국문화의 전파수준을 넘어서 세계문화의 내용을 풍부하게하고 그에 영향 받아 자국문화를 풍부하게 하려는 폭넓은 시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화교류 및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적인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국가(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국가 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교류 활동의 방향정립과 실천방안 마련

첫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및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자신들의 가치관 및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간 청소년교류 전문가의 참여 및 재정지원 등과 같은 민간주도의 청소년교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째, 언어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테마위주의 교류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

여섯째, 각국이 청소년교류에 대한 연구기반을 구축하며, 관련 연구원 및 지도자들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다.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된 법적 및 제도적 정비

첫째, 청소년교류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교류에 관한 3국간 협정서 및 양해각서를 교환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출연기금으로 동북아 청소년교류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

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교류에 대한 국영 혹은 민간 기업체의 후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 청소년국제교류 사업 추진상의 장애요소 해결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의 추진 주체는 크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국제교류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지원 가능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둘째, 의례적인 행사로서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

셋째, 안정적인 재정보화가 어렵다.

넷째, 국제적인 청소년교류 네트워크 및 정보가 부족하다.

다섯째, 청소년국제교류 전반에 관한 지침서 부재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여섯째, 민간주도 시 지나친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 및 협력 강화

오늘날 세계화와 지방화는 하나의 현상처럼 얽혀 있으며, 이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 나라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문화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소년교류 및 협력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생활현장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의 독특한 역사, 전통, 문화 등에 따라 상대국의 지자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자원부족이나 추진 경험이 적기 때문에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대책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 국제교류가 기존과 같은 단순한 유적지 관광이나 시설견학의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체험 나아가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목적 지향적 교류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우수한 인력자원관리 차원에서도 산업 분야별 청소년 국제교류를 정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에도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바. 청소년교류의 종합적인 관리와 자료시스템 구축

동북아 국가들 간의 청소년교류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문화와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구축하는데 소홀히 하였으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도 매우 미흡하였다.

동북아 시대를 넘어 세계화를 지향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문화교류 및 협력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 동안 우리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이제는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들과도 문화적인 교류를 수행하려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서 권역별 국가 혹은 문화적으로 유사한 지역별 자료수집 및 관리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설립을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관심 있게 추진해야 한다.

사.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이와 같이 체계화된 각 지역별 국제교류관리센터에서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원 부처에서 자의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내실화 하여 청소년은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무관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시대가 정착되면서 컴퓨터, TV, 영화 등을 포함한 뉴미디어를 이용한 청소년 국제교류가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미 한류열풍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가 제작한 TV드라마나 영화 등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 문화교류에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동북아 청소년교류 비전 및 전략⁴¹

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

(1)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3국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은 문화장관, 교육장관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현재 고등교육학위 인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학 간 개별교류협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formal, non-formal 교

⁴¹ 이 내용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2004. 11. 11)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에서 발표된 윤철경 박사(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의 원고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임.

육상의 적극적 교류외교정책 수립이 어렵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회의의 개최이다.

유학, 여행, 취업 등 동북아 지역 내 청소년교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동북아지역 청소년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정부차원이 논의가 필요하다.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 회의를 통해 먼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① 3국 간 유학, 연수, 단체여행 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인프라 마련 및 동북아 청소년이동과 교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반현안 및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 ② 서울, 북경, 동경, 부산, 상해, 오사카 등 국제 도시 간 청소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 도시에 외국청소년 전용숙소를 설치할 것을 논의한다.
- ③ 3국의 크고 작은 청소년 NGO들의 네트워크 형성, 교류 및 연대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 ④ 이 외에 동북아 대학생간 학점교환의 인정, 교환학생제, 동북아교류협력기구 설치 등을 논의한다.

(2) 동북아 청소년기금 조성 및 사업을 개발한다.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 중, 일 청소년 교류는 국가 간 교류협정에 의한 한-일교류, 한-중 교류 형식으로 개별 국가 간 교류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동남아국가와의 교류도 한-아세안, 중-아세안, 일-아세안 등 개별 국가가 별도로 아세안과 교류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동북아국가의 지역협력모델이 부족하다. 한국과 일본의 월드킵 공동개최가 일반국민의 한-일간 민족감정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사업의 개최는 지역적 유대감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는 개별국가 간 교류형태를 벗어나 동북아공동사업 형태의 청소년교류와 사업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세안국가까지 포함하는 청소년교류협력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3국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동북아 청소년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금을 동북아청소년사업의 재원으로 삼고 각 국가에는 사업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청소년센터를 설치한다. 동북아 청소년기금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① Asian Voluntary Service

유럽연합의 European Voluntary Service와 같은 아시아지역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동아시아지역 청소년 워크캠프 기구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동아시아 지역 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동북아 청소년들은 동북아의 세계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재 보호, 빈곤지역 개발, 환경보호, 소외계층 지원 등의 워크캠프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② 동북아청소년의 언어학습활동 지원

동북아청소년의 의사소통수단은 영어가 되고 있다. 동북아청소년이 동북아 지역의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동북아 지역의 다른 언어를 배우는 활동을 지원한다.

③ 동북아청소년 창안활동지원

동북아 청소년이 동북아의 지역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이슈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청소년창안활동을 지원한다

④ 동북아청소년 여행지원

동북아청소년이 동북아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거나 동

북아청소년의 동북아 지역을 함께 여행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일례로 동북아청소년 시베리아 횡단열차여행 같은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⑤ 동북아청소년 퀴즈대회 개최

동북아청소년의 아시아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퀴즈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동북아시아의 청소년으로 시상한다.

나. 국가별 과제

(1) 국제청소년교류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동북아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청소년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교류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중 국제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교류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의 중심부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교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한다.

개정 청소년기본법(2003.12.30)에서는 청소년교류를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 문화활동과 함께 청소년활동의 3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교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청소년활동에서 국제교류활동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수요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수요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 시스템이 취약하다. 현재 청소년교류담당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청소년지원과는 정책개발보다는 외교통상부가 위임한 정부 간 청소년교류 업무의 실행부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청소년교류 정책을 능동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관계의 변화,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전

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② 청소년육성기금 사업비의 20%이상을 국제교류 사업비로 확보한다.

청소년국제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국가는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대형 국제교류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국제교류 사업은 성격상 고비용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 중 일정부분은 동아시아 청소년교류 사업에 할애하여 동아시아 청소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특별히 경제적 이유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 중 일정 비율을 청소년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사업은 대부분 행정공무원 등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교류 사업에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비율을 의무화하여 실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청소년교류기회를 확보한다.

(2) 청소년국제교류 특성화시설 지정 및 청소년 여행촌 개발을 추진한다.

중국, 일본 등 외국 청소년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저렴한 숙박시설과 여행정보 제공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청소년을 위한 숙소를 확충한다. 교통편이 좋은 대도시 생활권 수련시설 중 국제화 특성화 시설을 지정·운영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홈스테이 연계나 도심형 유스호스텔 등 안전한 숙박시설 연계, 국내여행정보 제공 및 상담, 외국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를 비롯한 외국 청소년들이 국내에 와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촌을 개발한다. 국내 청소년여행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청소년여행명소가 발굴되면 국내외 청소년이 함께 자유롭게 여행하게 됨으로써 여행을 통한 동북아 청소년교류가 촉진될 것이다.

(3) 동북아청소년사업을 지원한다.

① 동북아 청소년네트워크 지원

청소년 NGO의 동북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다양한 목적을 가진 크고 작은 청소년동아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아시아 문화, 역사,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한다.

② 청소년지도자 훈련 및 교류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교류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교류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교류 경험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교류활동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한다. 국제자원봉사활동, 문화교류활동, 동북아 역사, 사회, 문화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포럼, 동북아 여행 프로그램 등 영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교류 활동을 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동북아 청소년지도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동북아청소년사업의 활성화를 기한다.

(4) 동북아청소년센터 설치 및 청소년국제기구를 유치한다.

① 동북아 청소년센터(동북아청소년연구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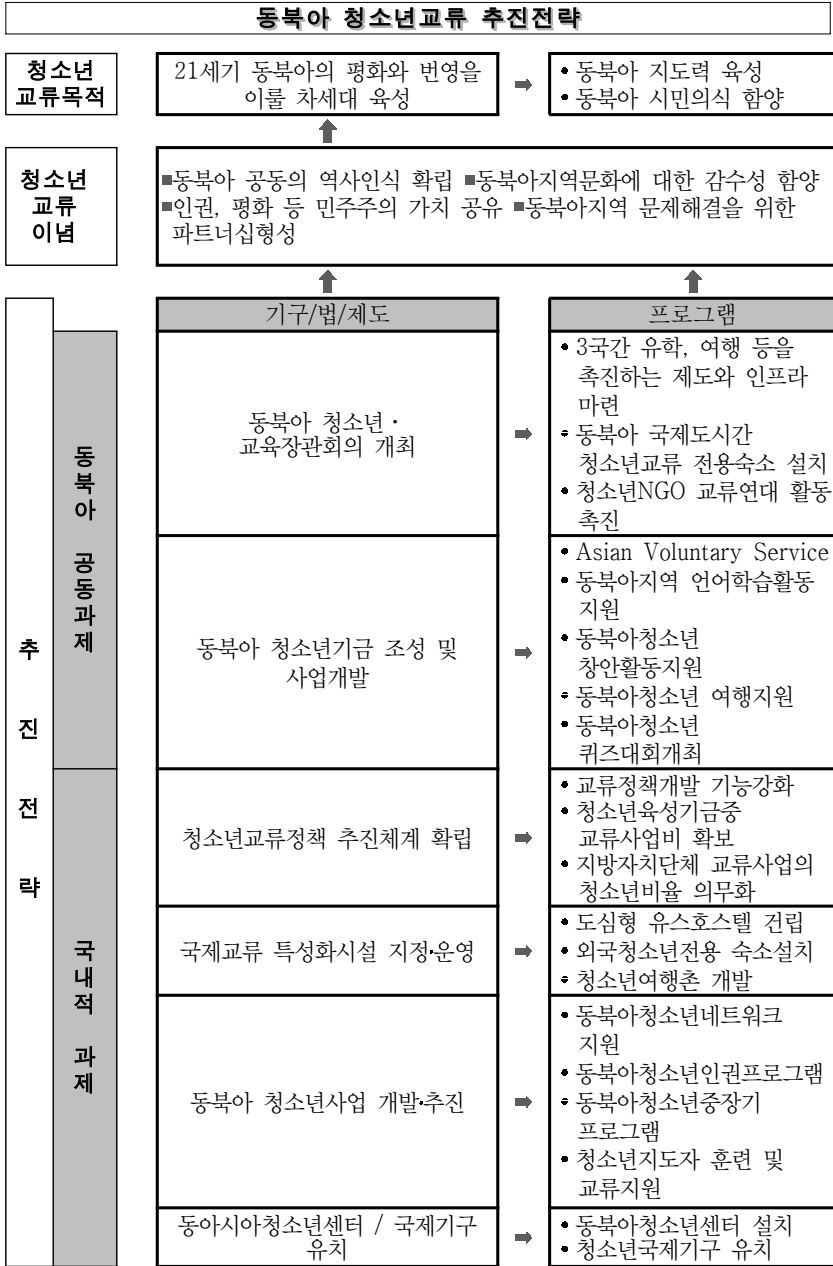
동북아의 청소년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 사회, 문화, 역사, 일반적 사회상황 및 청소년 상황에 대한 지식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교류 사업 개발, 교류인력 양성·연수, 교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청소년단체협의회나 중앙청소년수련

원 부설기구로서 동북시아 청소년센터를 설치하여 동북시아청소년교류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설로 동북아청소년연구원을 두어 동북시아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동북아 청소년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유네스코본부, 혹은 정부간 기구와 협의하여 청소년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센터를 국내에 유치한다. 이를 통해 한국을 동북아(더 넓게는 동아시아) 청소년의 교류중심으로 발전시킨다.

<그림 VIII-1>동북아 청소년교류 추진전략



IX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북아 3국인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논리적 토대 구축에서부터 법적·제도적 접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실태와 장애요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활성화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청소년교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이다. 먼저 동북아 지역의 역사·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의식을 고찰하고 동북아 지역 청소년문화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의 국제적 유형화와 비교연구를 통하여 국가주도형 복지 및 투자모델을 선호하는 유럽형 모델과 비영리단체 주도형의 북미형 모델,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청소년교류 형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및 문제점 분석이다. 한·중·일 3국의 청소년교류와 관련된 법·제도를 포함하여 지방자치제의 조례 및 교류협정서 등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각국의 청소년교류의 법·제도의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 실태와 장애요인 분석이다. 한·중·일 3국의 정부주도의 청소년교류, 지방자치단체 간의 청소년교류, 그리고 청소년단체와 영리단체의 청소년교류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교류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넷째,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제시이다. 동북아지역의 바람직한 청소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방향과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개발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의 바람직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제 1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청소년국제교류와 관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청소년교류를 직접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교류협회 근무자 5명, 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5명, 문화관광부 및 통일부의 국제교류 담당자 5명, 중앙청소년 수련원 및 관련 청소년 단체 근무자 5명(총) 2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31까지 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중에서 11명이 제 1차 조사에 응답하였다.

제 2차 문항별 중요도 조사는 제 1차 지초의견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문항별 중요도와 추진전략을 단기적 차원과 중장기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 1차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11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2004년 8월 16일에서 8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의 필요성

동북아(한·중·일)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중요성 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상대국가(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 ②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 ③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구축, ④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⑤ 평화의 문화 정착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①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토대 마련 계기, ②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 ③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구축, ④ 평화의 문화 정착과 문화의 다양성 증진, ⑤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한 단기적 차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국가 및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북아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동북아 지역이 갖는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과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한·중·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한·중·일 삼국 간 바람직한 청소년교류 활동의 방향 및 접근방식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자원봉사나 공동 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마련, ② 정부의 지원 확대, ③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④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⑤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적인 차원의 추진과제로서는 ①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②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 도입, ③ 정부의 지원 확대, ④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⑤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 한·중·일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영역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교류의 영역들 중에서 단기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① 대중문화분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 각국의 청소년들

의 유행과 의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㉔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관심영역이면서, ㉕ 공동체 문화 형성으로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은 ㉖ 민박활동(Home-stay)으로 ㉗ 해당 국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간의 친목도모 가능성, ㉘ 포장되지 않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㉙ 상호이해 및 인간관계 형성이 교류의 핵심, ㉚ 생활체험을 통한 문화이해 및 공감대 형성의 최선책 등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㉛ 청소년지도자 교류로서 구체적으로는 ㉜ 지속적인 청소년 교류를 이끌어 나갈 휴먼웨어로서의 청소년지도자 교류가 필요하며, ㉝ 사업별 목적을 특성화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조사되었다.

라.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법·제도 정비 방안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정비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폭넓은 예산 지원, ②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③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④ 청소년 국제교류단체의 자체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사후관리의 법제도 확립 필요, ⑤ 청소년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 간편화의 필요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장기적 차원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폭넓은 예산지원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②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 나라간 협정체결 및 양해각서 교환, ③ 정부출연기금으로 (가칭) 동북아 청소년문화 교류재단 설립, ④ 청소년관련법에 “동북아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 명시, ⑤ 청소년 국제교류 단체의 자체적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

고 사후관리의 법제도 확립 필요성 등의 순으로 법적·제도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장애요인(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단기적인 해결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②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 부족, ③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형식에 치우치기 쉬움, ④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시급, ⑤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②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부족, ③ 재정확보의 어려움, ④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부족, ⑤ 정치적 또는 정권교체에 따른 청소년교류 정책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단기적인 해결과제로서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청소년교류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전공자) 부족, ② 청소년교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③ 열악한 재정, ④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 ⑤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서 부재 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① 청소년교류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전공자) 부족, ② 청소년교류에 대한 인식 및 이해부족, ③ 열악한 재정, ④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은 단기적인 차원과 같은 순서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⑤ 청소년교류를 위한 상호기관의 협력체제구축의 실패와 ⑥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서 부재를 지적하고 있는 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단기적인 해결과제로서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재정 문제 열악, ② 국제교류 전문가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 ③ 단체 간 수행능력

의 편차가 매우 큼, ④ 일방적인 초청, 관광중심의 교류활동과 정보의 부재, ⑤ 지도자 교육의 소홀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할 중요한 사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① 전문가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 ② 재정 문제 열악, ③ 지도자 교육의 소홀, ④ 단체 간 수행능력의 편차가 매우 큼, ⑤ 일방적인 초청, 관광중심의 교류활동과 정보의 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 동북아 청소년 교류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동북아 청소년교류 증진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시급, ②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③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④ 민간교류단체의 육성과 지원, ⑤ 재정(기금) 조성 방안 연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①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②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③ 재정(기금) 조성 방안 연구 ④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시급, ⑤ 지자체 간 국제도시 간의 교류활성화 촉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제언

가.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 “상대국가(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 제공”,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등을 통하여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나. 한·중·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동북아 지역 청소년교류 활동의 방향 및 접근방식은 “문화교류와 역사교류”,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 도입”, 그리고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성” 등이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 동북아 국가간에 효과적인 청소년교류의 영역에 대한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부문별 실천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대중문화 분야의 교류”, “민박활동(Home-stay)”, “청소년지도자 교류”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동북아 국가들 간의 청소년교류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확립되어야 한다.

동북아 국가의 청소년교류 관련 법규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방편으로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폭넓은 예산 지원”,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의 간편화 필요”, 그리고 “정부출연기금으로 (가칭) 동북아 청소년문화 교류재단 설립”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바. 동북아 국가간 청소년교류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청소년 교류에 대한 이해부족”,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부족”,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치르다 보니 형식에 치우치기 쉬움” 그리고 “정치적 또는 정권교체에 따른 청소년교류 정책의 잦은 변화” 등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애요인은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인식 부족”, “재정 문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담당자(전공자) 부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의 필요성 시급”, 그리고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 없음” 등이다.

셋째, 민간단체 차원에서 청소년국제교류의 장애요인은 “전문가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 “재정 문제”, “너무 상업적이고 이윤추구에 청소년국제교류를 이용하고 있음”, 그리고 “일방적인 초청 및 관공위주, 교류활동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이다.

사. 동북아 청소년교류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정책대안을 위한 연구 및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의 발전방안 및 수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시급’, ‘민간교류단체의 육성과 지원’, ‘정기적인 동북아 소식지 발간’, ‘교류에 앞서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임’, 그리고 ‘동북아 청소년의 타민족에 대한 인식조사’ 등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병희·박노보·이정주. 『지역으로부터의 국제화』. 대구: 지역발전연구센터 출판부, 1995.
- 강영배·황성하. 『일본의 청소년정책과 연령별 차별화』.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백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 권일남. 『농어촌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의의와 발전방향』. 서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2003.
- 김경준. 『청소년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 김안제 외.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 박문각, 1994.
- 김완순 외.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서울: 무역경영사, 1999.
- 김유남 외. 『국제관계연구의 쟁점과 과제(21세기)』. 서울: 박영사, 2000.
- 문화관광부. 『2001년도 한국·중국교류(파견)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2001.
- _____. 『청소년교류의 정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1999.
- _____.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2003.
- 우종욱·권이중. 『2000년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현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 윤철경 외. 『새천년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윤철경. 『청소년국제교류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99.

- 윤철경 · 김안나 · 김성희. 『한·일 교류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윤철경 · 이상오 · 김경준. 『청소년국제교류사업 실태와 평가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이민희 외. 『청소년교류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이은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 이종원. 『고교생 생활 · 의식 국제비교조사-한·중·일·미 4개국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정희옥 · 전경숙 · 권오실.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 조영승 외. 『청소년교류의 정책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관광부, 1999.
- 조혜영.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3.
-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국제교류 업무편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2003.
- _____. 『국제교류 업무편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2004.
- 한상철 외. 『청소년지도론』. 서울: 학지사, 2001.
- 함병수 외.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John, Friedmann.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Newbury Park. C.A: Sage, 1973.
- Joseph, Frankel. *International Theory and the Behaviour of States*, Oxford Univ. Press, 1973.
- Konopka, G. *Social Group Work: A helping process*. N.J.: Prentice-Hall, 1972.

- March, James G. & Zur, M. *Decision Making: Alternatives to Rational Choice Models*.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Oxford: Glasgow Edition, 1976.
- Smith, D.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4.

『國際公法百科全書』第9卷. 阿姆斯特丹北荷丹出版公司, 1986年.
鄧小平. 『鄧小平文選』第3卷. 人民出版社, 1993年版. 第282頁.

2. 논문

- 강영배. “현대 일본 청소년 정책에 관한 다면적 고찰 및 시사점.” 『청소년학 연구』. 제11권 제1호. 2004.
- 권경득.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국제교류활동을 중심으로.” 『경남개발』 39. 창원: 경남개발연구원, 1999.
- 김경동. “국제화와 지방화: 개념적 고찰.”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서울: 나남 출판사, 1994.
- 김문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국제교류』. Vol. 34. 서울: 한국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1999.
- 문정인. “21세기 한국과 새로운 국제적 위상의 결정.” 『한국행정연구』. 제 9권 1호. 여름호.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0.
- 민준기. “국제화와 지방자치.” 『경희대사회과학연구』 24. 서울: 경희대학교, 1998.
- 박재홍. “세대경험과 신세대의 특성.” 『한국사회학』. 제29집 1995.
- Brecher, R. · Diaz-Alejandro, C.. “Tariffs, Foreign Capital and

- Immiserizing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971.
- Dawn, Dzubay. “Understanding Motivation & Supporting Teacher Renewal.” *Quality Teaching and Learning Series*. 2001.
-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Limited, 1939.
- Peter, Daniels. “Technology”. *Internationalization of Service and Metropolitan Areas*. Brotchie, John et al. eds. 1991.
- Truda, Roper. “Optimizing the 4-H exchange.” *Journal of Extensio*. 1993.
- Shengliang, Deng · Lawrence, H. Wortzel “Importer Behavior: Guidelines for Asian Exporte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32, No. 1. 1995.
- 呂嵐. “區縣經濟發展中青年國際交流与政府功能研究.” 中國人民大學 公共管理碩士論文, 2003.

3. 기타

교육기본법.

김은정. 『청소년의 국제교류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01.

김형렬. “국제화에 대응한 정치·행정의 역할.” 국제화에서의 범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문. 서울: 한국정책학회, 2001.

문화관광부. “청소년관련법 제(개)정 설명자료”. 서울: 문화관광부, 2004.

외교통상부 자료실: 외교백서. 2003.

유화진. 『대학생 해외여행의 교육적 효과』.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6.
 이정주.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결정요인과 교류효과에 관한 연구』. 대구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인터넷사이트 법령자료실.
 재외동포재단법.
 전성민. “한국 청소년문화와 문화 간 소통.” 미지센터 개관2주년 기념 심포
 지엄자료. 서울: 미지(mizy)센터, 2002.
 청소년기본법.
 출입국관리 통계자료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EVA VAN BUREN. 『新生代』. 2001年2月4日.
[http://www.fry.or.kr/bbs/mbbs_view.asp?b_idx=-24&id=ad&page=1
 &bs.](http://www.fry.or.kr/bbs/mbbs_view.asp?b_idx=-24&id=ad&page=1&bs)
[http://www.yfukorea.org/new4.htm.](http://www.yfukorea.org/new4.htm)
 內閣府編, 青少年白書 平成15年度版. 2004.
 獨立行政法人國際觀光振興機構法.
 獨立行政法人國際交流基金法.
 獨立行政法人國際協力機構法.
 青少年育成推進會議, 青少年育成推進要綱, (2002)
 江澤民. “全面建設小康社會,開創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新局面-在中國
 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2年 11月 8日.
 內閣府, 青少年育成施策大綱, (2003)
 文部科學省. 教育の構造改, 2003.
 外國人登録法.
 財団法人 青少年國際交流推進センター. 平成14年度 事業報告書, (2002).
 財団法人 青少年國際交流推進センター.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2003.
 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인식의 모색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차별성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철 외	공저	5,000원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외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